

가 Turtle
거 龜
북 龜
이 crane
와 鶴
두루마리 鶴

타이포잔치 Typojanchi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월 14일 - 10월 17일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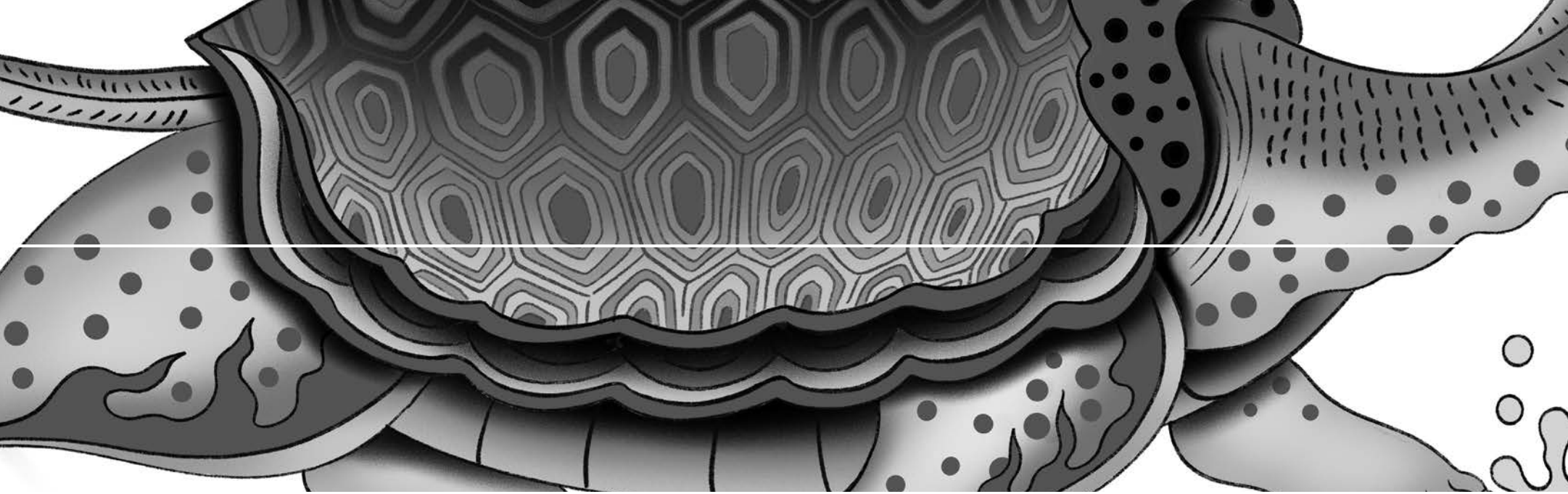
September 14 - October 17

거
북
이
와
두루미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Gabriel Alcala · 강재원 · 고경빈 · 小林一毅 · 구모아
국동완 · 권도희 · 그레이트 마이너 · 기업의 유령들
김동해 · 김영선 · 김주경 · 김현진 · NAVER 문화재단
西山寛紀 · 뚜까따 · 람한 · 레몬 · 劉釗 · 문텐샵
민덕기 · 박진현 · Studio Bergini · Studio Spass
Simo Tse · 씨오엠 · Atelier Tout va Bien
Andreas Samuelsson ·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
안마노 · Anthony Lam · 양장점 · Henri Campeã
Helmo · 0.00 · 오선주 · 오유경 · 大河原 健太郎
윤예지 · 이미주 · 이화영 · 임혜은 · 장한나 · 조준익
최하늘 · 추수 · Cava Life · Club Sans
텍스처 온 텍스처 · Tnop Wangsillapakun
파일드 · 펜 유니온 · 하형원 · 황나키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월 14일 - 10월 17일

2021년 타이포잔치의 주제는 ‘문자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만물과의 이치이자 인간의 공존적 욕망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오래도록 문자를 통해 그 도구적 활용을 넘어 바람, 신념, 상상 등 무형의 개념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향유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매신저 대화창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스크린에서, 이메일 작성 창에서 누구나 바라는 바를 더 정확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자를 다룬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했던 타이포그래피는 점차 시대의 취향을 드러내는 기호, 사람들이 동물의 얼굴, 그림 등의 다양한 재료를 아우르며 진화해갑니다.

한국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꼭인 소르저도 이름으로 남기고 존재하고픈 욕망이 투철한 작가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가장 긴 이름일 터인 ‘김수환’ 두 자와 ‘두루미’ 삼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켄타 워리칼리 세로카포 두루살리 구름이 하리케엔타 담바릭 담바릭에 서형진 서형진에 고양이 고양이 반바퀴 반바퀴는 돌들이는 1970년대 중반 TBC 방송사의 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자식의 정수를 가질만한 지어준 것에서는 삼성으로 한국에서 장수와 장한물을 통틀어 열 가지(가장 오래에서) 성들로 여겨는 십삼성의 일부인 거북이와 두루미를 포함,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 산 인간, 180,000년을 살았다는 중국인인 동 구 수명을 상징하는 존재의 이름을 모두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일기하고 부르면 그려졌고 불거지고, 그 중에서 그 이름의 주인은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합된 단어들의 리드미컬한 발음과 강렬한 심상은 그를 시사람이나 오늘날까지도 여러 창작물에서 패러디되거나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이름은 남겨져서 자명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동양의 그림에서는 사실적인 대상의 묘사보다는, 생각이나 바람을 드러내는 사의(示意)적인 표현이 더 중요시되었음이다. 그래서 건강과 장수와 같은 인간의 최원적 욕망에 도교적 생명 사상이 더해진 길상학(吉祥學)에는 거북이와 두루미 같은 상징적인 동물 소재를 통해 장수의 복을 벗어난 고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학과, 승화하고 발육을 상징하는 열매로 여겨지는 거북이는 이렇듯 많은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도화적인 미감이 더해져, 일종의 문장(文章)이나 신탁적 의미 매우 상징적으로 기능하게 되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신 여러 문화권 각자만의 다양한 바람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에 불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 '거북이와 두루미가 될 수 도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이 거북이나 두루미 한 마리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문자의 위계 숲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는 이번 테마존에서 2021년 초대된 작품 사이에서 대담한 재의와 아름다운 꿈을 펼쳐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Typojanchi 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September 14 – October 17



The theme of Typojanchi 2021 is "Typography and Life." Life is cyclical and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want to look at this cycle as the logic of all things and as the starting point of original human desires. Humans have long expressed and enjoyed intangible concepts such as making wishes and displaying imagination through writing systems, something that is not limited to using text as a simple tool. It is the same today. In a messenger dialogue, whether on a tablet screen or on an email window, many try to show what they want in a more accurate, stronger, and more beautiful way. Typography originally means the art and technique of arranging type, and it gradually evolved to cover various materials such as symbols, human and animal faces, and paintings that revealed the tastes of the times.

In Korea, there is a saying, "Tigers die and leave their skins; people die and leave their names." It may be a reflection of human desire to exist by name although not necessarily eventually dies. Perhaps one of the longest names in the world, "Kun Suhnamoo Keobugwiga Durumi Samcheonggaja Dong bangsak Chichigapo Sarisansaenta Woriori Saepeurikang Moodooosae Gureumi Hurrance Dambyeok Seoasangwonae Goyangyi Badookineun Doldoin," became famous through a comedy show in the mid-1970s on TBC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In the show, the father gave his son the name wishing for his son's longevity. He gathered all the people and elements that symbolize longevity, including a turtle and a crane (part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in Korea).

the longest living person in the Bible, and a Chinese person who is said to have lived for 180,000 years in one name for his son. Despite the efforts of naming and memorizing and calling the name, the owner of the name in the show did not live long. However, the rhythmical pronunciation and intense imagery of the combined words have been loved greatly by the public and are still being parodied or reproduced in many creations today. A person will die in real life, but his or her name can live on for a great deal of time.

In Eastern paintings, the expressions of thoughts and wishes were more important than realistic representations of objects. Thus, in auspicious paintings—which adds Taoist ideas of life to basic human desires for such things as health and longevity—some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like turtles and cranes appear as regular subject materials. The crane, which is symbolically considered a noble being outside the world, and the turtle, which is considered a symbol of protection and blessings, have repeatedly appeared in many works. A schematic aesthetic was added to the crane and turtle, and they came to function in a very symbolic way, like coats of arms or symbols. This is why the best title that can be given to this exhibition, which brings together the diverse wishes of artists from various cultures around the world, is "A Turtle and a Crane." Perhaps a turtle or crane live together in all of our minds. We hope that viewers can find various aspects of fun and formative beauty in works which deal with the extremely human desires behind typography at Typojanchi 2021.

부동산정책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12월 15일 - 2013년 1월 15일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로펌: NAVEA, NAVEA문화재단 후원
 배급: 이진영, 양근호, YW, Sony & Shin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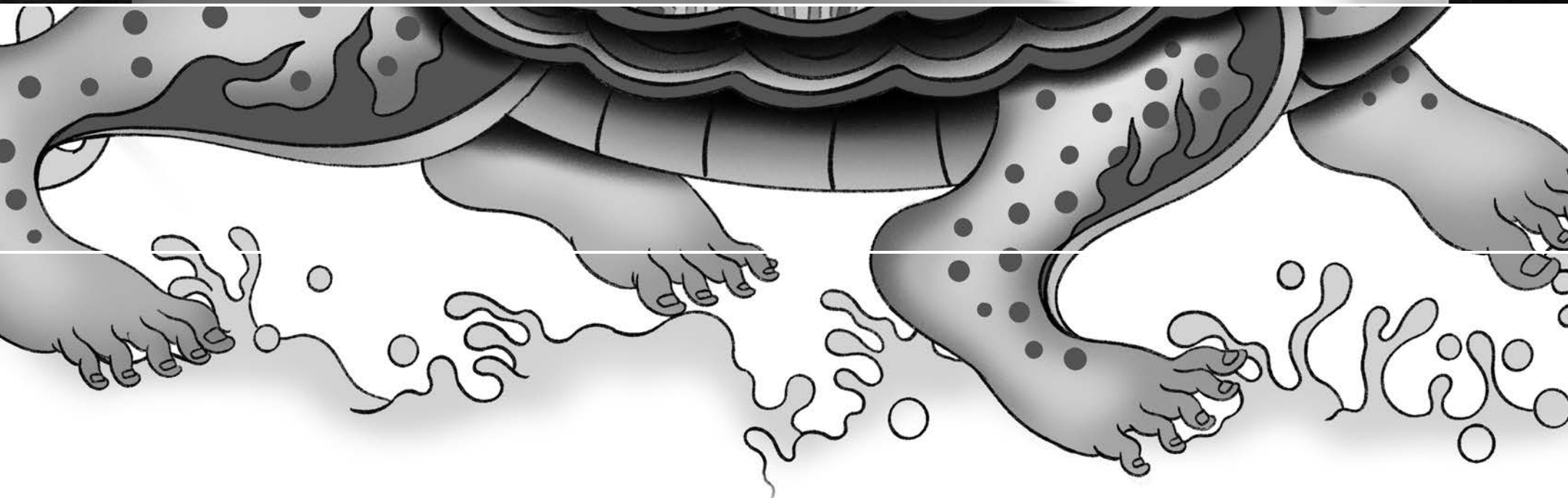
발행: ADRIAN & SONS 연구소, 서울, 한국
 1994년 12월, 3판 1쇄 발행

이두규는 또한 '철학자'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IDEALIST**라는 Design BRAND이다.

저자: 송광, 이재민, 박아람, 조효원
 발행처: 김천신문, 박아람, 신문문화(주) 054-249-2211
 010-970-0000, 010-970-0000

주요역점 제4차 전체회
이후에, 김승배 부주임, 김지영 팀장,
김승배 부주임, 김지영 팀장, 김승배 부주임, 김지영 팀장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5 (삼성동) 삼성생명빌딩 15층



거북이와 두루미

A Turtle and a Crane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월 14일 - 10월 17일

Typojanchi 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September 14 - October 17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Hangeul Museum;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Endorsed by
Ico-D

Sponsored by
NAVER; NAVER Cultural Foundation;
Doosung Paper; Baedal Minjok;
Ahn Graphics; TWL - Shop & Studio;
motemoto; The Japan Foundation, Seoul

Supported by
A0 Typography Institute; GongKong;
LeoDot; CAVA Life; Print Fidelity

Media sponsored by
Monthly Design; Design Press;
IDEA Magazine;
Design360°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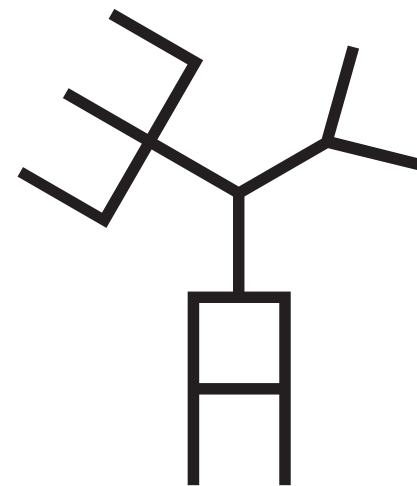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재단
국제타이포: 2021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협력기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타이포: 라피학회
공인: 국제디자인협회

후원: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두성종이, 배달민족, 안그라픽스,
티더블유, 모토모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AG
THINGS
WE
LOVE

후원: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두성종이, 배달민족, 안그라픽스,
티더블유, 모토모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미디어 후원: 월간디자인,
디자인프레스, 아이디어매거진,
디자인360° 매거진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거북이와 두루미》

초판 1쇄 발행	기획 총괄 이재민
2021년 10월 15일	편집·디자인 워크룸(작업실유령)
	번역 김현경
펴낸 곳	사진 장수인
(주)안그래픽스	인쇄·제책 세걸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25-15	이 도록은 두성종이의
전화 031-955-7755	제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팩스 031-955-7744	엔티랏사 175 116g/m ² ,
이메일 agbook@ag.co.kr	디자인스칼라 162 116g/m ² ,
www.agbook.co.kr	리시코 100g/m ²

ISBN 978-89-7059-395-1
03650

©202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T Y P O J A N C H I
E | O | J | A | N | C | H | I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janchi 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 Turtle and a Crane

First published in	Director Jaemin Lee
October 15, 2021	Editing & Design Workroom (Workroom Specter)
Publishing House	Translation Hyunkyung Kim
Ahn Graphics	Photography Sooin Jang
125-15 Hoedong-gil, Paju-si,	Printing & Binding Seguleum
Gyeonggi-do 10881	
tel 031-955-7755	This catalog is made with
fax 031-955-7744	products of Doosung Paper.
email agbook@ag.co.kr	NT Rasha 175 116g/m ² ,
www.agbook.co.kr	Designer's Color 162 116g/m ² ,
	Recyco 100g/m ²

ISBN 978-89-7059-395-1
030650

© 2021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본문에서 책은 겹낫표(『』), 글은 홑낫표(「」),
전시는 겹화살괄호(《》), 작품과 글꼴은
홑화살괄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어와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경우에 따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TYPOJANCHI 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 TURTLE
AND
A CRANE**

거북이와 두루미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20	인사말
28	거북이와 두루미
33	파트 1 기원과 기복
36	챕터 1 기도들
86	챕터 2 흙 스위트 흙
94	챕터 3 참 좋은 아침
141	파트 2 기록과 선언
144	챕터 1 말하는 그림
200	챕터 2 흔적들
214	챕터 3 생명 도서관
239	파트 3 계시와 상상
242	챕터 1 mim의 정원
284	챕터 2 기호들
311	파트 4 존재와 지속

402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0–2021
408	타이포잔치 2021
412	총감독·큐레이터 소개

42	고바야시 이키	194	펜 유니온
46	권도희	202	장한나
50	류자오	214	6699프레스
54	스튜디오 베르기니	246	강재원
58	앤서니 람	252	람한
62	아틀리에 투 바 비앙	260	문탠샷
66	안마노	268	추수
70	오닷오오	274	최하늘
74	이화영	290	김동해
78	티눔 왕실라파쿤	294	민덕기
82	그레이트마이너	298	오선주
88	씨오엠	302	오유경
98	구모아	306	조준익
102	김영선	314	이미주
106	김주경	324	엘모
110	김현진	332	스튜디오 스파스
114	박진현	338	기업의 유령들
118	임혜은	342	클럽 썬
122	양장점	350	시모 제
126	하형원	356	고경빈
130	레몬	360	카바 라이프
134	텍스처 온 텍스처	366	국동완
146	게이브리얼 알칼라	372	황나키
154	니시아마 히로키	380	파일드
162	안드레아스 사무엘손	388	네이버 × 네이버 문화재단 ×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
170	엔히 캄페앙		
178	윤예지	394	뚜까따
186	오카와라 겐타로		

20	Greetings
28	A Crane and a Turtle

33	Part 1	Prayer & Desire
36	Chapter 1	A Sacred Tree
86	Chapter 2	Home Sweet Home
94	Chapter 3	♥4U
141	Part 2	Record & Declaration
144	Chapter 1	Picture Speech
200	Chapter 2	Metamorphosis
214	Chapter 3	Slanted Library
239	Part 3	Revelation & Imagination
242	Chapter 1	Garden of Memes
284	Chapter 2	Land of Symbols
311	Part 3	Presence & Persistence

402	Typojanchi saisai 2020–2021
408	Typojanchi 2021
412	Introduction of Director & Curators

42	Ikki Kobayashi	194	Pen Union
46	Dohee Kwon	202	Hanna Chang
50	Zhao Liu	214	6699press
54	Studio Bergini	246	Jaewon Kang
58	Anthony Lam	252	Ram Han
62	Atelier Tout va Bien	260	MOON TAN SHOP
66	Mano An	268	TZUSOO
70	O.OO	274	Haneyl Choi
74	Hwayoung Lee	290	Donghae Kim
78	Tnop Wangsillapakun	294	Dukki Min
82	Greatminor	298	Sunju Oh
88	COM	302	Yukyong Oh
98	Moa Ku	306	Junik Jo
102	Youngsun Kim	314	Miju Lee
106	Jookyung Kim	324	Helmo
110	Hyunjin Kim	332	Studio Spass
114	Jinhyun Park	338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118	Hyeeun Lim	342	Club Sans
122	Yang-Jang	350	Simo Tse
126	Hyeongwon Ha	356	Bin Koh
130	Lemon	360	CAVA Life
134	Texture on Texture	366	Dongwan Kook
146	Gabriel Alcalá	372	Naky Hwang
154	Hiroki Nishiyama	380	Filed
162	Andreas Samuelsson	388	Naver × Naver Culture Foundation × AG Typography Institute
170	Henri Campeã		
178	Yeji Yun	394	TUKATA®
186	Kentaro Okawara		

세계 각국의 글자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유정미 조직위원장님과 이재민 감독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훌륭한 작품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작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인류 문화의 근간인 문자와 디자인의 관계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의 저변을 폭넓게 확대해왔습니다. 2001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한 타이포잔치는 이런 문자의 예술 가치를 실험적으로 모색하며 세계 유일 타이포그래피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전시는 ‘문자와 생명’을 주제로, 문자의 영역을 기호, 얼굴, 그림 등 상징 언어로 넓히고 현대 미술, 공예, 사진 등 시각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50여 팀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문자의 아름다움과 실험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예술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한글의 우수한 조형성과 문화 예술적 가치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자가 가진 소통과 표현의 힘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일상에서 디자인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타이포잔치가 세계적인 시각 예술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ypojanchi 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which shows the beauty of design deeply imbedded in typography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everyone who worked so hard for this festival, including Jeongmi Yu,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director Jaemin Lee, as well as all the designers and artists who honored this event with great works.

Typography has enriched our lives and expanded the base of art by creatively developing a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writing systems—the basis of human culture. Launched in 2001, Typojanchi marked its seventh event this year, and has grown into the world’s only typography biennale while exploring the artistic value of typography in experimental ways.

Under the theme of “Typography and Life,” this year’s exhibition expands the scope of writing systems into symbolic languages, such as symbols, faces, and paintings while showing expandability by encompassing overall fields of visual art, including contemporary art, crafts, and photography.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discover the beauty and experimental value of typography through various works created by more than 50 team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now that Korean culture and art are captivating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xcellent formativeness and cultural/artistic value of Hangeul will be more widely known international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continue to explore the power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s in typography,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we can enjoy design closer in our daily lives. Furthermore, we will do our best to help Korea overcome the COVID-19 crisis and become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is event, and I hope that Typojanchi will further develop into a world-class visual art festival. I wish all of you good health and happiness.

Hee Hwa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길어지며 개막을 미뤘던 많은 행사들이 조심스러운 재개를 알러오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올 하반기에 열한 개의 비엔날레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바로 타이포잔치입니다. 국제 규모의 행사들 가운데서도 타이포그래피가 주인공인 유일무이한 행사로 전 세계 디자이너와 작가가 참여해 회마다 많은 기대를 모아온 축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고유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과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가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문자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창작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출품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한글날을 맞아 마련한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한 공식 글꼴 〈마루 부리〉역시 타이포잔치 2021 개막과 함께 공개됩니다.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서는 활발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명조 계열 글꼴이 2만여 명이 넘는 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탄생한 것입니다. 전시 주제처럼 글꼴의 제작 과정에서도 생명이 느껴집니다.

이 모두가 많은 분들의 조언과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유정미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 이재민 총감독을 비롯한 실무진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문자와 생명'을 주제로 멋진 작품을 창작해준 국내외 작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태훈

Many events that have been delayed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re now signaling a cautious resumption. In Korea alone, 11 biennales will be held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One of them is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s the only festival of typography in terms of international-scale events, it has raised high expectations each time with the participation of designers and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Looking back, the fact that such a meaningful event can be held in Korea proves that the excellence and status of Hangeul, our own writing system, are recognized worldwide.

Typojanchi: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is jointly organiz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of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nd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longside our reliable partners, the National Hangeul Museum and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we have presented various topics surrounding typography and produced results of the event on a constant basis. We are very happy that participants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ubmitted meaningful work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ore difficulties than ever before in the past.

A program commemorating Hangeul Day will be held once again this year. The official font **Maru Buri**, sponsored by the NAVER Cultural Foundation for Typojanchi 2021, will be unveiled at the start of this event. The serif font, which has not yet been releas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was created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more than 20,000 users. Like the theme of the exhibition, life is felt in the font production process.

This biennale is the fruit gained through many people's advice and hard work. I am very grateful to all the staff members and every party that was involved in this process, including Jeong-mi Yu, the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s well as the committee members, and director Jaemin Le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designers and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who created wonderful works under the theme of "Typography and Life."

Taehoon Kim
President,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일곱 번째 전시를 열었습니다.

타이포잔치는 지난 2001년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한글을 알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를 탐구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문자를 통한 다채로운 시도로 색다른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타이포잔치는 문자를 중심에 둔 다양한 주제를 시각 예술과 결합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재개한 2011년 《동아시아의 불꽃》을 시작으로, 2013년 문학, 2015년 도시, 2017년 몸, 그리고 2019년에는 사물과 만났습니다. 올해는 '생명'을 살핍니다. 현시대가 당면한 급격한 변화에 응답하는 뜻이 담겼습니다. 곧 끝나리라 믿었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어느덧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야 하는 지금, 올해 주제인 '문자와 생명'은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이와 두루미를 그린 강렬한 포스터 이미지는 '생명'이라는 화두를 모든 이들이 바라는 '장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상징 언어로써 새롭게 풀어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양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타이포그래피 문화를 동양의 문자 문화와 함께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재민 총감독이 강조했듯 생명의 순환 과정이 작품과 큐레이션 곳곳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영국, 타이완, 네덜란드, 브라질 등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에 걸맞은 다양한 국가의 작가가 참여해 잔치를 빛냈습니다. 전시를 준비한 이재민 총감독과 기획팀, 사무국 그리고 참여 큐레이터와 작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유정미

Typojanchi: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held its seventh exhibition in 2021. Starting with the theme of "New Imagination" in 2001, Typojanchi has been a venue for communication to promote Hangeul to designers around the world and explore the world of typography. We are confident that the biennale has provided different works to view and great experiences to the public around the world through typography.

Typojanchi has been combining multiple themes with visual art to spread cultural values, all while centering on typography. Starting with *Fire Flower of East Asia* in 2011, when the biennale was revived after an absence of 10 years, the event has dealt with various themes: literature in 2013, cities in 2015, the body in 2017, and objects in 2019. This year, we examined life. We have been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world through a series of timely topics. This year's theme, "Typography and Life," seems to be more meaningful. The COVID-19 situation, which was expected to end soon, still persists, and now the theme will be even more significant at a time when we have to consider "With COVID-19."

The images of a turtle and a crane on the exhibition poster give a strong Eastern impression. Typography was originally formed in Western cultures and has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communication to date. Through this exhibition, you will be able to look back on Eastern typography culture. It is impressive that the theme of life has been newly interpreted using everyone's wishes for longevity as a symbolic language.

As director Jaemin Lee emphasized, the circle of life permeates the exhibition through works and curations. In addition, designers and artists from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 the UK, Taiwan, the Netherlands, and Brazil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to bolster the reputation of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I deeply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carried out by those who prepared this exhibition, including director Jaemin Lee, the planning team, Typojanchi's secretariat, as well as participating curators and artists.

Jeongmi Yu
Chairperson, Organizing Committee of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타이포잔치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직후 지구상에 처음 생긴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여서 그랬는지 꽤 거창한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마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온 세상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가 모두 모여 성대하게 첫 잔치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잔치는 열 살 즈음에 열렸는데, 동아시아의 디자이너 아흔아홉 명이 불꽃 튀게, 신나게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개막한 저녁 예술의전당 앞마당에서 안상수 조직위원장과 몇몇 디자이너들이 둘러앉아 이후의 잔치에 대한 상상을 펼쳤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친구를 초청해보는 상상... 영화, 음악, 도시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잔치는 세 번째부터 구 서울역사(현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게 되었고, 2년에 한 번씩 흥미로운 주제의 친구를 초청하는 잔치판이 예전에 기차역으로 사용된 곳이라는 사실은 해를 거듭하며 타이포잔치의 또 다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태어난 지 스무 해 만에 일곱 번째로 열린 타이포잔치는 ‘생명’이라는 친구를 초대했고,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해에 다시 ‘삶’을 돌아보기로 한 셈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가 불러낸 주제였지만, 성인이 된 타이포잔치에 시의적절한 질문이자 화두였습니다. 이재민 감독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동양의 오행 사상으로 해석해 전시 구조를 짰고, 십장생에 속한 장수하는 동물 ‘거북이와 두루미’를 전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21년 말, RTO에서 사이사이 행사로 열린 워크숍은 비대면 시대 속에서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며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비대면 전시 《만질 수 없는》과 대면 워크숍이 연결되어 묘하게 역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간 초청받은 해외 작가와 큐레이터의 비엔날레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비엔날레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러움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의 안목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를 즐기는 이 땅의 다양한 관람객과 세대를 달리해 이어지는 잔치의 흥과 멋에 있었음을 다시 확인한 멋진 전시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잔치는 어떤 생각을 할지 벌써 다음 비엔날레가 기대됩니다.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
김경선

Typojanchi has now been around for 20 years. The event drew great attention to it immediately with visible fanfare probably because it was the first typography biennale on Earth that happened right after the beginning of a new millennium. Typographer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ed to hold the first festival. The second festival was held when it was ten years old, and 99 East Asian designers hit it off and had so much fun together. In the evening of the second festival’s opening day, I remember Ahn Sang-soo,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several designers sitting around in the front yard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imagining the later biennales to come. It was imagination about typography inviting friends—scenes where typography would be displayed in various forms in our everyday lives, including movies, music, and cities. From the third biennale, the exhibition venue changed from the Seoul Arts Center to the old Seoul Station building (now Culture Station Seoul 284). The fact that the venue for inviting interesting friends every two years had been used as a train station has become another symbol of Typojanchi over the years.

In 2021, 20 years after it was born, the seventh Typojanchi invited a friend called “life” and it was like looking back on one’s life in the year that an individual becomes an adult. Although it was a theme brought about by a pandemic crisis, it was also a timely question and topic for Typojanchi, which by that point had become an adult. Director Jaemin Lee interpreted the theme of “life” through the Eastern theory of the Five Elements to organize the structure of the exhibition, and named the exhibition “A Turtle and a Crane.” At the end of 2020, the Typojanchi SaiSai Workshop held at the RTO (Railroad Transportation Office) Performance Hall created interesting results in a social distancing era, while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s non-contact exhibition **CONTACTLESS** and the offline workshop were linked to create uniquely paradoxical scenes.

Overseas designers and curators who have been invited to Typojanchi envied the biennale in several aspects. Besides the fundamental respect for the existence of the biennale and the discerning eye of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support it, above all they loved the range of viewers and the excitement and stylishness of the festival which has continued over a full generation. We a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biennale and the change we can affect for future generations.

Kyungsun Kymn
Chairperson,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2021년 타이포잔치의 주제는 ‘문자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만물의 이치이자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문자를 통해 바람, 신념, 상상 등 무형의 개념을 형상화해 표현하고 향유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대화하며, 이메일을 쓰며, 혹은 태블릿 스크린에서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바를 더 정확하고, 더 절실하고,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자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는 타이포그래피는 점차 시대의 취향이 묻어나는 기호,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그림 등 다양한 재료를 아우르며 진화해갑니다.

A TURTLE AND A CRANE

The theme of Typojanchi 2021 is “Typography and Life.” Life is cyclical and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want to look at this cycle as the logic of all things and as the starting point of original human desires. Humans have long expressed and enjoyed intangible concepts such as making wishes and displaying imagination through writing systems, something that is not limited to using text as a simple tool. It is the same today. In a messenger dialogue, whether on a tablet screen or on an email window, many try to show what they want in a more accurate, stronger, and more beautiful way. Typography originally means the art and technique of arranging type, and it gradually evolved to cover various materials such as symbols, human and animal faces, and paintings that revealed the tastes of the times.

한국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은 스러져도 이름으로나마 존재하고픈 욕망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에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는 1970년대 중반 한국의 TBC 방송사의 한 코미디 프로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어준 이름이라는 설정으로, 생물과 자연물을 통틀어 열 가지(十) 가장 오래(長) 산다고(生) 여겨지는 십장생에 속하는 거북이와 두루미를 포함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인간, 18만 년을 살았다는 중국의 인물 등 긴 수명을

In Korea, there is a saying, “Tigers die and leave their skins; people die and leave their names.” It may be a reflection of human desire to exist by name although the body eventually dies. Perhaps one of the longest names in the world, “Kim Suhanmu Keobugi-wa Durumi Samcheongabja Dong bangsak Chichigapo Sarisanisaenta Woriwori Sae-peurikang Moodoosella Gureumi Hurricane Dambyeorak Seosaengwonae Goyangyi Badookineun Doldolri,” became famous through a comedy show in the mid-1970s on TBC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In the show, the father gave his son the name wishing for his son’s longevity. He gathered all the people and elements that symbolize longevity, including a turtle and a crane (part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in Korea), the longest living person

상징하는 존재들의 이름을 모두 그러모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외우고 부르던 노력에도
극 중에서 아이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합된 단어의 리드미컬한 발음과 강렬한 심상은
많은 사랑을 받아 오늘날까지 여러 창작물에서
패러디되거나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이름은 남아 장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생각이나 바람을 드러내는
사의(思意)적 표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장수 같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도교의 생명 사상이 더해진 '길상화'(吉祥畵)에는
거북이와 두루미 같은 십장생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속세를 벗어난 고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학, 수호와 발복을 상징하는 영물 거북이는 많은
작품에 반복해서 등장하며 도식화된 미감이 더해져
일종의 문장(紋章)이나 심벌처럼 상징적으로도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신 여러
문화권 작가들의 다양한 바람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 '거북이와
두루미'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북이나 두루미 한 마리쯤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문자 뒤에 숨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을
다루는 이번 타이포잔치 2021에 초대된 작품
사이를 거닐며 다양한 문화와 현상을 해석하는
재미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찾아내주시길 바랍니다.

타이포잔치 2021 총감독
이재민

in the Bible, and a Chinese person who is
said to have lived for 180,000 years in one
name for his son. Despite the efforts of nam-
ing and memorizing and calling the name,
the owner of the name in the show did not
live long. However, the rhythmical pronun-
ciation and intense imagery of the combined
words have been loved greatly by the public
and are still being parodied or reproduced
in many creations today. A person will die in
real life, but his or her name can live on for a
great deal of time.

In Eastern paintings, the expressions of
thoughts and wishes were more important
than realistic representations of objects.
Thus, in auspicious paintings—which adds
Taoist ideas of life to basic human desires for
such things as health and longevity—some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like
turtles and cranes appear as regular subject
materials. The crane, which is symbolically
considered a noble being outside the world,
and the turtle, which is considered a symbol
of protection and blessings, have repeatedly
appeared in many works. A schematic aes-
thetic was added to the crane and turtle, and
they came to function in a very symbolic way,
like coats of arms or symbols. This is why the
best title that can be given to this exhibition,
which brings together the diverse wishes
of artists from various cultures around the
world, is “A Turtle and a Crane.” Perhaps
a turtle or crane live together in all of our
minds. We hope that viewers can find various
aspects of fun and formative beauty in works
which deal with the extremely human desires
behind typography at Typojanchi 2021.

Jaemin Lee
Director

기원과 기쁨
Prayer & Joy
祈願祈福

‘기원과 기복’에서는 생성과 호기심을 주제로 원초적 바람과 기원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작품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상징으로 각자의 바람을 표현한 ‘기도들’, 물건에 행운을 비는 풍습을 해석한 ‘홈 스위트 홈’, 기념일이나 명절, 생일 등 특정한 날에 가족끼리 주고받는 인터넷 메시지를 소재로 삼은 ‘참 좋은 아침’으로 구성된 세 챕터에서 스물두 팀의 작가들이 평면과 입체,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챕터 1
기도들

챕터 2
홈 스위트 홈

챕터 3
참 좋은 아침

The “Prayer and Desire” part displays works that contain various interpretations of basic prayers and desires that people have. The “A Sacred Tree” chapter expresses individuals’ wishes through various symbols; “Home Sweet Home” interprets the custom of connecting wishes for good luck with objects; “♥4U” works on Internet messages exchanged between families on certain days, such as anniversaries, holidays and birth-days. Through these three chapters, 22 artists cover a variety of areas such as two-dimension, three-dimension, and screenwork.

Chapter 1
A Sacred Tree

Chapter 2
Home Sweet Home

Chapter 3
♥4U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인간은 예로부터 종교나 법 같은 추상적 개념을 문자로 시각화해왔습니다. 나아가 부적을 만들어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빌고, 별과 우주의 운행을 해석하고 기록해 길흉을 점치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크게 다름 없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현상을 향한 두려움, 흉을 피하고 복을 비는 마음은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들’에서는 개성 있는 시각적 표현을 선보여온 작가들의 바람과 신념을 다룹니다. 균형 잡힌 삶을 염원하는 태도(권도희), 전통과 경험에서 비롯한 지혜(류자오), 경험에서 우러나온 행운의 상징(스튜디오 베르기니),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품은 우리의 운명(앤서니 램),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의 회귀(아틀리에 투 바 비앙),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글자들(안마노), 주어진 운명과 욕망 사이의 균형(오닷오오), 순환하는 세상과 이를 차분히 바라보며 삶을 곱씹는 마음(이화영), 신념을 다짐하기 위한 부적(고바야시 이키), 세태와 문화를 향한 비판(티눔 왕실라파쿤) 등 작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은 신목(神木)에 매달린 오방색 땡기처럼 설치됩니다. 여러 문화의 문자와 상징으로 만든 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바람을 발견해 함께 즐기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바야시 이키
권도희
류자오
스튜디오 베르기니
앤서니 램
아틀리에 투 바 비앙
안마노
오닷오오
이화영
티눔 왕실라파쿤
그레이트마이너

기획
이재민, 박이랑, 조효준

A SACRED TREE

Humans have long visualized abstract concepts such as religion and law using writing systems. We make amulets for the purpose of praying for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groups, or fortunetelling, and sometimes record human wishes with text,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universe. Such a behavior has been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in similar patterns. It is a fundamental human desire to avoid fear about invisible beings and phenomena as well as ill luck and to pray for blessings. “A Sacred Tree” deals with the wishes and beliefs of artists who have shown unique visual expressions. This part highlights the balance of life and an attitude to wish for it (Dohee Kwon), the wisdom from

tradition and experience (Zhao Liu), the symbol of good luck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Studio Bergini), our destiny that embraces both joy and sadness (Anthony Lam), the return to the most basic attitude (Atelier Tout va Bien), words to bear in mind (Mano An), the balance between destiny and desire (O.OO), a mind that calmly contemplates life while observing the world (Hwayoung Lee), amulets for confirming one’s beliefs (Ikki Kobayashi), and criticism of culture (Tnop Wangsillapakun). These artists’ thoughts and emotions are installed like traditional five-colored ribbons hanging from a sacred tree just as in Korean villages for centuries. We hope viewers will find their wishes captured in the works and enjoy them together.

Ikki Kobayashi
Dohee Kwon
Zhao Liu
Studio Bergini
Anthony Lam
Atelier Tout va Bien
Mano An
O.OO
Hwayoung Lee
Tnop Wangsillapakun
Greatminor

Curation
Jaemin Lee, Eerang Park, Hyojoon 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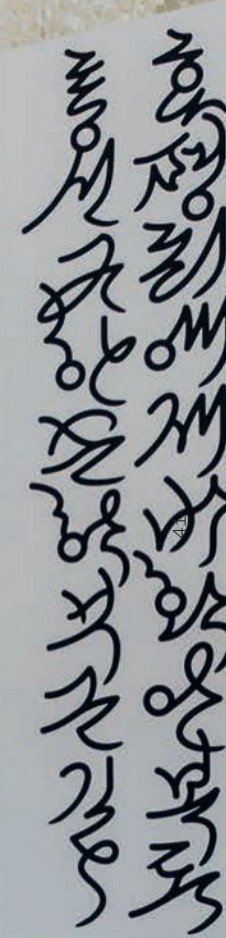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고바야시 이키(小林一毅)는 다마 미술대학 그래픽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시세이도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하며 선보인 일본의 전통 엠블럼과 공예적 표현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작품은 도쿄 TDC, JAGDA 등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도쿄
<http://www.instagram.com/kobayashi.ikki>

IKKI KOBAYASHI

Born in Hikone City, Shiga Prefecture in 1992.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at Tama Art University, he worked as a designer at Shiseido Co., Ltd. before going independent in 2019, winning the Tokyo TDC Award in 2016, the JAGDA New Designer Award in 2019, and the Japan Package Design Award Silver Prize.

Tokyo
<http://www.instagram.com/kobayashi.ikki>

악령퇴산(悪霊退散)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Against the Evil Spirits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거짓을 말하고 허세를 부려도
 어지간히 능숙하지 않으면 금세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바보 같은
 욕심 탓에 종종 거짓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거짓말
 끝에 어중간한 모습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그린 〈악령퇴산〉은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부적입니다.

Even if we lie and bluff, our
 lies will be quickly revealed
 unless we are very skillful.
 We know the fact, but we
 easily surrender to desire
 for lies due to our frivolous
 greed. In order to pledge
 to act honestly, Kobayashi
 made an amulet expressing
 the image of people who
 have become ambiguous as
 a result of lying.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권도희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다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태국 음악에 영향을 받은 한 밴드와 사랑에 빠져 그들의 투어 공연을 위한 포스터 일러스트를 그려준 이래 지금까지 주로 앨범 커버와 공연 포스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 작업은 내면을 치유하고 한 차원 높은 자아로 향하는 여정을 드러냅니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시각적 온기를 느끼게 하고픈 바람이 담긴 일기와 같은 작업입니다.

서울
<http://www.doheekwon.com>

DOHEE KWON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Dohee Kwon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for companies in Korea and Thailand for six years. Thailand was where she first went backpacking while changing jobs. After that, she visited the second hometown in Thai-land many times. Currently, Kwon is based in Chiang Dao in northern Thailand. In the past, she loved a band influenced by Thai music, and began her career as an illustrator by working on their tour concert posters. Since then, she has been working mainly on album covers and performance posters. The artist's personal work captures,

like a diary, the inner healing that she began to have and the journey of connecting to a higher level of self. Kwon hopes viewers will feel a different visual warmth in each work rather than simply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each work.

Seoul
<http://www.doheekwon.com>

PRAYER&DESIRE 祈願·祈福

333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333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운은 무엇일까요? 나를 평생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반쪽을 만날 애정운? 갖고 싶거나 하고픈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재물운?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법, 그렇다면 건강운?

권도희는 마음을 수련하며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가는 보는 이에게 세 가지 운을 모두 불러들이는 부적을 선사합니다. 부적은 작가가 사용하는 한국어, 영어, 태국어 세 언어로 이뤄집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운을 짝짓고, 각 운을 상징하는 수정으로 보는 이에게

What good fortune do we need the most? The tremendous fortune to meet our better half, someone who will love and support us for the rest of our lives? Is it luck that allows me to have what I want and do what I want? Everything is only meaningful when I'm healthy. So does that mean that health is the true fortune in life?

운을 전달합니다. 세 가지 운, 세 가지 언어, 세 가지 수정. 동서양을 아울러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3이란 숫자를 통해 균형 잡힌 완벽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Kwon realized that in the process of training his mind, all three fortunes had to be balanced in harmony to get closer to a happier life. Thus, Kwon presents an amulet that brings all three fortunes to the viewer. The amulet was made using three languages that the designer speaks: Korean, English, and Thai. She paired one fortune per character, and through her experience regarding each character, she sought ways to convey fortune to viewers and captured the results in the design of the amulet. These three fortunes are expressed with crystal that represent each of them. That lends the amulet a stronger meaning of good fortune. Furthermore, the number 3 has been recognized as a perfect number both in the East and West. As such, Kwon wishes for great fortune to all people while seeking to deliver the perfect energy of balance in this amulet.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류자오(劉釗)는 2014년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어너더 디자인을 공동 설립한 이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뉴욕 TDC, 도쿄 TDC, D&AD 등 다양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으며 AGI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SGDA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저우
http://www.another-lab.com

ZHAO L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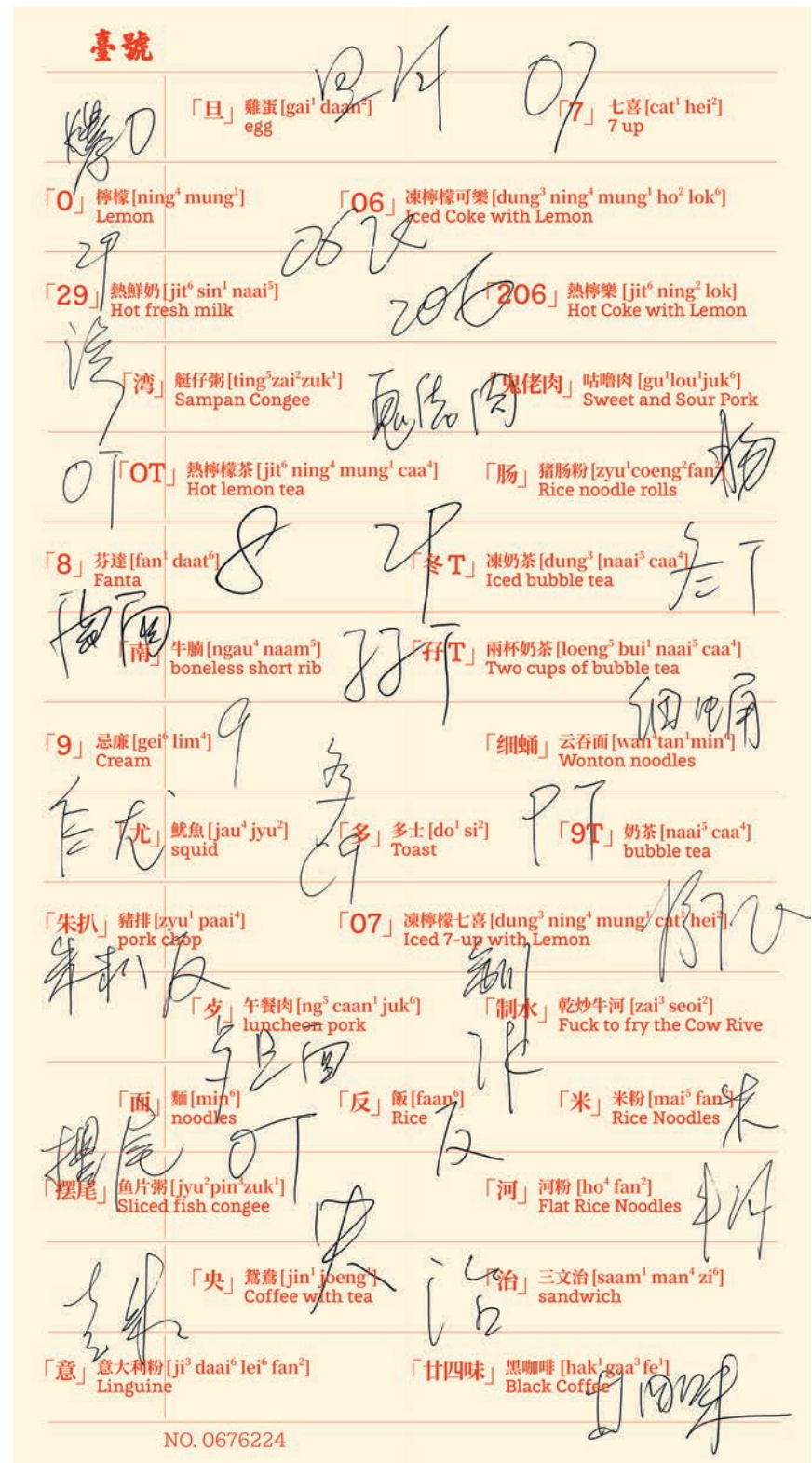
Building up another design with Zhan Huode in 2014, Zhao Liu has won several international design awards, such as New York TDC, Tokyo TDC, D&AD, and so on. He is also an AGI member and SGDA Vice Chairman.

Guangzhou
http://www.another-lab.com

PRAYER&DESIRE 祈願·祈福

06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06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홍콩의 찻집들은 역사가 깊은
독특한 패스트푸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콩과 광저우의 전통
찻집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이
고안한 독특한 의사소통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음식
이름을 단순한 동음어나 축약어로
바꿔 손글씨로 주문받는 시간을
줄이는데, 예컨대 레몬은 'O',
원앙 밀크티는 '夾'로 표기하는
식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이 담긴 이런 언어 체계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Hong Kong-style tea cafe cul-
ture is a kind of unique fast-
food culture, taking the Hong
Kong era as the background.
In traditional tea cafes in
Hong Kong and Guangzhou,
waiters have formed their
own uniqu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working efficiency.
They use simple homophonic
characters or abbreviated
characters to take place of
cumbersome dish names to
save time for handwritten
orders, such as: lemon = O,
mandarin duck milk tea = 夹,
and so on. This language
system is based on people's
thinking about life experi-
ence and is an expression of
wisdom.



<p>「O」 檸檬 [ning' mung'] Lemon</p>		<p>「7」 七喜 [cat' hei'] 7 up</p>	
<p>「29」 熱鮮奶 [jit' sin' naai'] Hot fresh milk</p>		<p>「206」 熱檸檬 [jit' ning' lok] Hot Coke with Lemon</p>	
<p>「灣」 艇仔粥 [ting' zai' zuk'] Sampan Congee</p>		<p>「夾佬肉」 咕嚕肉 [gu' lou' yuk'] Sweet and Sour Pork</p>	
<p>「OT」 熱檸檬茶 [jit' ning' mung' caa'] Hot lemon tea</p>		<p>「腸」 豬腸粉 [zyu' coeng' fan'] Rice noodle rolls</p>	
<p>「8」 芬達 [fan' daat'] Fanta</p>		<p>「冬T」 凍奶茶 [dung' naai' caa'] Iced bubble tea</p>	
<p>「南」 牛腩 [ngau' naam'] boneless short rib</p>		<p>「仔T」 兩杯奶茶 [loeng' bui' naai' caa'] Two cups of bubble tea</p>	
<p>「9」 忌廉 [gei' lim'] Cream</p>		<p>「細麵」 雲吞面 [wan' tan' min'] Wonton noodles</p>	
<p>「尤」 魷魚 [jau' jyu'] squid</p>		<p>「多」 多士 [do' si'] Toast</p>	
<p>「朱扒」 豬排 [zyu' paai'] pork chop</p>		<p>「07」 凍檸檬七喜 [dung' ning' mung' cat' hei'] Iced 7-up with Lemon</p>	
<p>「少」 午餐肉 [ng' caan' yuk'] luncheon pork</p>		<p>「制水」 乾炒牛河 [zai' seoi'] Fried to fry the Cow River</p>	
<p>「面」 麵 [min'] noodles</p>		<p>「反」 飯 [faan'] Rice</p>	
<p>「米」 米粉 [mai' fan'] Rice Noodles</p>		<p>「河」 河粉 [ho' fan'] Flat Rice Noodles</p>	
<p>「夾」 薑茶 [jin' beng'] Coffee with tea</p>		<p>「治」 三文治 [saam' man' zi'] sandwich</p>	
<p>「意」 意大利粉 [ji' daai' lei' fan'] Linguine</p>		<p>「廿四味」 黑咖啡 [hak' gaa' fei'] Black Coffee</p>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스튜디오 베르기니는 프란체스코 코르시니(이탈리아)와 크리스티안 요르스베르게(노르웨이)가 운영하는 런던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2015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를 졸업하고 예술가, 기업, 문화 기관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아이덴티티, 전시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독특한 맥락을 탐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그들의 디자인 방법론은 종종 타이포그래피에 기반합니다.

런던
<http://www.studiobergini.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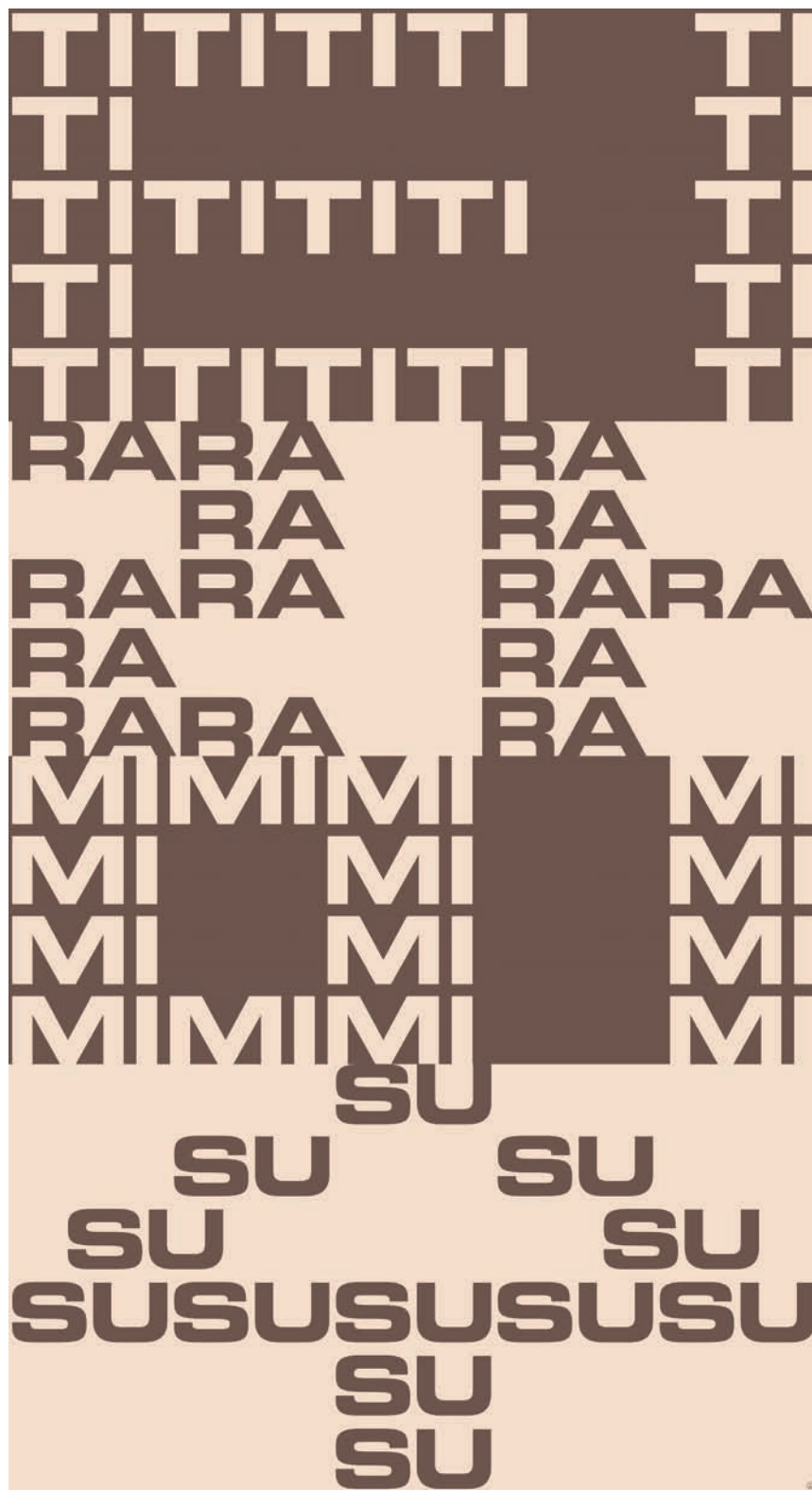
STUDIO BERGINI

Studio Bergini is the London-based graphic design practice of Francesco Corsini (IT) and Kristian Hjørth Benge (NO). Since graduating from Central Saint Martins in 2015 they have worked with artists, businesses, and 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oduce identities, publications, exhibitions, websites, typefaces, wayfinding, packaging, and more. Their work takes a conceptual, informed, content-oriented approach to design, giving each project a uniquely appropriate form based on contextual research and often rooted in typography.

London
<http://www.studiobergini.eu>

티라미수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Tiramisu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티라미수〉는 별개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의미와 사건들을 표현한, 스튜디오 베르기니를 위한 일종의 부적입니다. 티라미수와 함께한 스튜디오의 낱말, 개성, 경험, 미학이 잇달아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이 '소리 시'(sound poem)로부터 정신적 건강을 취하길 바랍니다.

1. 티라미수는 커피 향을 풍기는 유명한 이탈리아 디저트입니다. 재료에는 술이 포함되고, 층을 이룬 모양이며, 과거에는 이탈리아 북부의 홍등가에서 최음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2. 2018년 프란체스코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망원동 티라미수'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린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는 간판이 흥미로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3. 런던 슈퍼마켓에서 파는 티라미수 가운데 최고는 (2021년 자체 기준입니다만) 샌즈베리 제품이며, 최악은 코옵(Co-Op) 제품입니다.

4. 2021년 스튜디오 베르기니는 5주년을 맞았습니다. 3월에 기념일을 축하하며 친구들과 함께 홈메이드 티라미수를 먹었습니다.

Tiramisu is a Bujeok for Studio Bergini, representing a series of separate but connected meanings and events which connect their personality, history, experience, and aesthetic as a studio with tiramisu. We encourage viewers to perform this sound poem in the exhibition space, to channel the spiritual benefits of tiramisu.

1. Tiramisu is a famous coffee-flavoured, boozy, layered Italian dessert. It is said that it used to be served in brothels in northern Italy as an aphrodisiac.

2. When Francesco visited Seoul in 2018, he spotted a tiramisu shop with a big sign reading "망원동 티라미수"(Mangwondong Tiramisu). As an Italian, he found it amusing and photographed it for future reference.

3. In London, the best supermarket tiramisu is from Sainsbury's, and the worst is from Co-Op (own review, 2021).

4. In 2021, Studio Bergini is celebrating its 5th anniversary as a limited company. To celebrate on the day in March, we had home-made tiramisu with our friends.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홍콩에서 나고 자란 앤서니 램은
비주얼 아이덴티티, 브랜딩,
일러스트레이션, 편집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합니다. 현재 홍콩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강연은 물론 전시회
기획 및 아트 디렉팅, 출판물
디자인 등을 맡고 있습니다.

홍콩
<http://www.atelieravocado.com>

운명의 미궁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Labyrinth of Fate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ANTHONY LAM

Born and raised in Hong Kong, Anthony Lam is a multi-disciplinary designer specializing in visual identity, branding, illustration, and editorial design. Anthony Lam is currently working with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for the art direction, curation and execution of departmental events including degree shows, public lectures, exhibitions, and editorial design for departmental publications.

Hongkong
<http://www.atelieravocado.com>

PRAYER&DESIRE 祈願·祈福



운명은 늘 미스터리한 무언가로
여겨집니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반면 속명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복잡하기
그지없고 세심하게 짜인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윽고 그곳에 다다르면,
모든 문제와 혼란은 무(無)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또 다른
미지의 차원에서,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미궁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Destiny is always considered
as an ideology out of mys-
tery, the concept of a series
of events and developments
leading to an unpredictable
outcome out of one person's
control. On the contrary,
Fate is unpredictable yet pre-
determined. It is a labyrinth
with delicate structures and
meticulous settings that are
intended to confuse and

disrupt, but the one involve
in this journey with countless
joy and grief, is obligated to
meet the finish line and then,
all the complications and
chaos returns to nothing,
the one who finishes the
labyrinth continues with
another unknown journey, in
another labyrinth, in another
unknown dimension.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아틀리에 투 바 비엔은 안나
체반스와 마티아스 레이누아르드가
설립한 프랑스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래픽 디자인을 본질적으로
매력을 고려한 창작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구조적 기능성, 조형적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정확성, 시각적
내레이션 등 각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
언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종
[http://www.atelier-
toutva-bien.com](http://www.atelier-toutva-bien.com)

ATELIER TOUT VA B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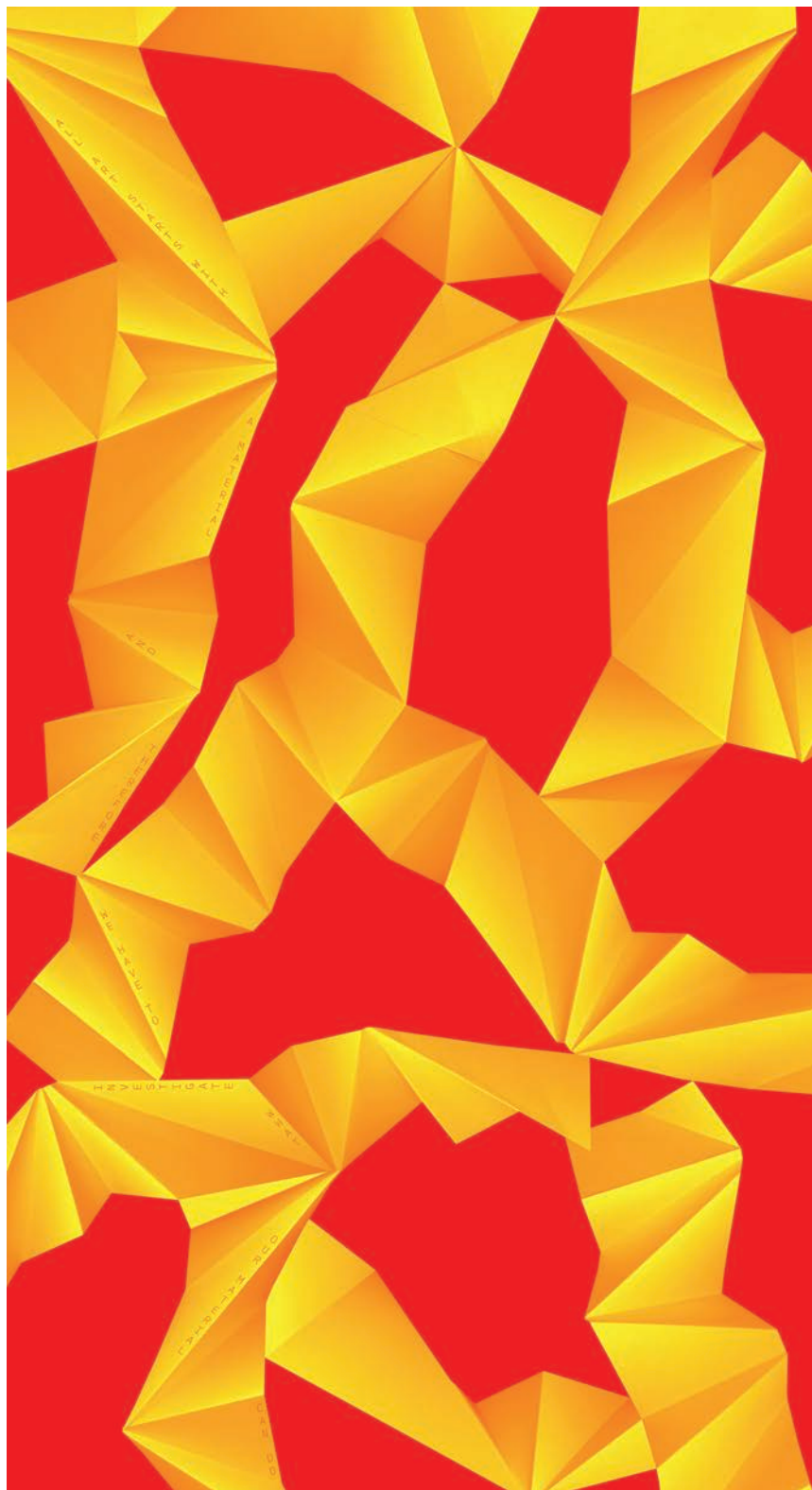
Atelier Tout va bien is a
french graphic design
studio based in Dijon and
founded by Anna Chevance
and Mathias Reynoird. Both
consider graphic design as
an intrinsically contextual
creative activity. Since 2011,
Atelier Tout va bien aims at
developing multiple forms
of visual languages mainly
through printed matters, in
order to settle possible inter-
actions between structural
functionalities, experimenta-
tions, typographical accura-
cies, and visual narrations.
To see, to look, to read, to
understand.

Dijon
[http://www.atelier-
toutva-bien.com](http://www.atelier-
toutva-bien.com)

PRAYER&DESIRE 祈願·祈福

요제프에 대한 헌사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Tribute to Josef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아시아 문화와 신앙에 뿌리를 둔 '부적'은 전통적으로 행운을 빌거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글자와 그림으로 만든 것으로,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컬티즘 덕분에 행운의 물건이나 액막이 장신구 같은 것은 프랑스에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십자가를 제외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운의 부적은 말굽, 토끼 발, 무당벌레, 골짜기에 핀 은방울꽃처럼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사물들입니다. 네 잎 클로버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말하자면, 아시아와 프랑스 문화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The Bujeok anchored in the Asian culture and beliefs, composed with letters and drawings to wish good fortune, does not exist in France. Talismans and amulets are present in our culture thanks to occultism but are not very common in the Christian religion beyond the protective cross of Christ. Most famous French good-luck charms are unholy objects such as the horseshoe, the rabbit's foot, the ladybug, the flower May lily of the valley, and of course, the four-leaf clover. In other words, there is no link between Asian and French cultures on the issue of talismans.

아틀리에 투 바 비앙이 관심을 두는 것은 부적의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한 장의 종이는 추억이나 유희, 시, 문학, 때로는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작가들은 초창기부터 종이를 재료로 삼아, 주로 A4 크기의 흰색 종이를 부피감 있게 변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평범한 재료에 매료된 것은 오래 전, 1920년대 바우하우스에서 요제프 알버스가 종이 조형에 관한 강좌를 열며 했던 말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는 1928년 바우하우스에서 열린 예비 강좌에서 요제프 알버스가 했던 말이 몇 겹으로 겹쳐 감춰진 특정 경로를 따라갑니다. 작가들은

Atelier Tout va bien is highly interested in the original medium of the Bujeok, its tangible substance: the paper. A sheet of paper is a tool for memory, game, poetry, literature, information, and sometimes graphic design. Its uses are infinite, which is its interes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k, we have been using this material, primarily practicing with a standard A4-sized white sheet of paper, transforming it into volumes and morphing it into an image. Their fascination with such an ordinary material was inspired long ago by the discovery of the introduction to Josef Albers' course at the Bauhaus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래픽 디자인의 기원으로 돌아갈 방법을 탐색합니다. 명상에 가까운 수행이 담긴 이 작업에서 어쩌면 모종의 영성, 심지어 부적의 효력이 발현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school in the 1920s (about paper sculpture). As a result, Josef Albers' introduction speech at one of his preliminary courses about paper at the Bauhaus in 1928 has been hidden in some folds yet, tracing a particular path. Atelier Tout va bien is searching with paper for a way to return to some of the origins of graphic design. Thanks to this nearly meditative practice, they can achieve a form of spirituality and even perhaps a return to the virtues of the Bujeok.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안마노는 홍익대학교와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주제로 실험적 표현을 탐구합니다.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스위스 《벨트포맷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시와 타이포그래피 잔치》 등에 참여했으며 도쿄 TDC, 레드닷 어워드,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아시아 퍼시픽 디자인 (APD) 등에 작업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안그래픽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와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anmano.kr

MANO AN

Mano An is a graphic designer and currently the creative director at Ahn Graphics. He studied graphic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the Basel School of Design (HGK FHNW) in Switzerland. He explores the experimental expressions of letters, videos, and images under the theme of the gap between still and moving images. He has participated in the Typojanchi: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Weltformat Graphic Design Festival*, and the *Poetry & Typography Festival*. His work has been introduced to the TDC Tokyo, Red Dot Design Awards, Seoul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and the Asia Pacific Design (APD). He is currently giving lectures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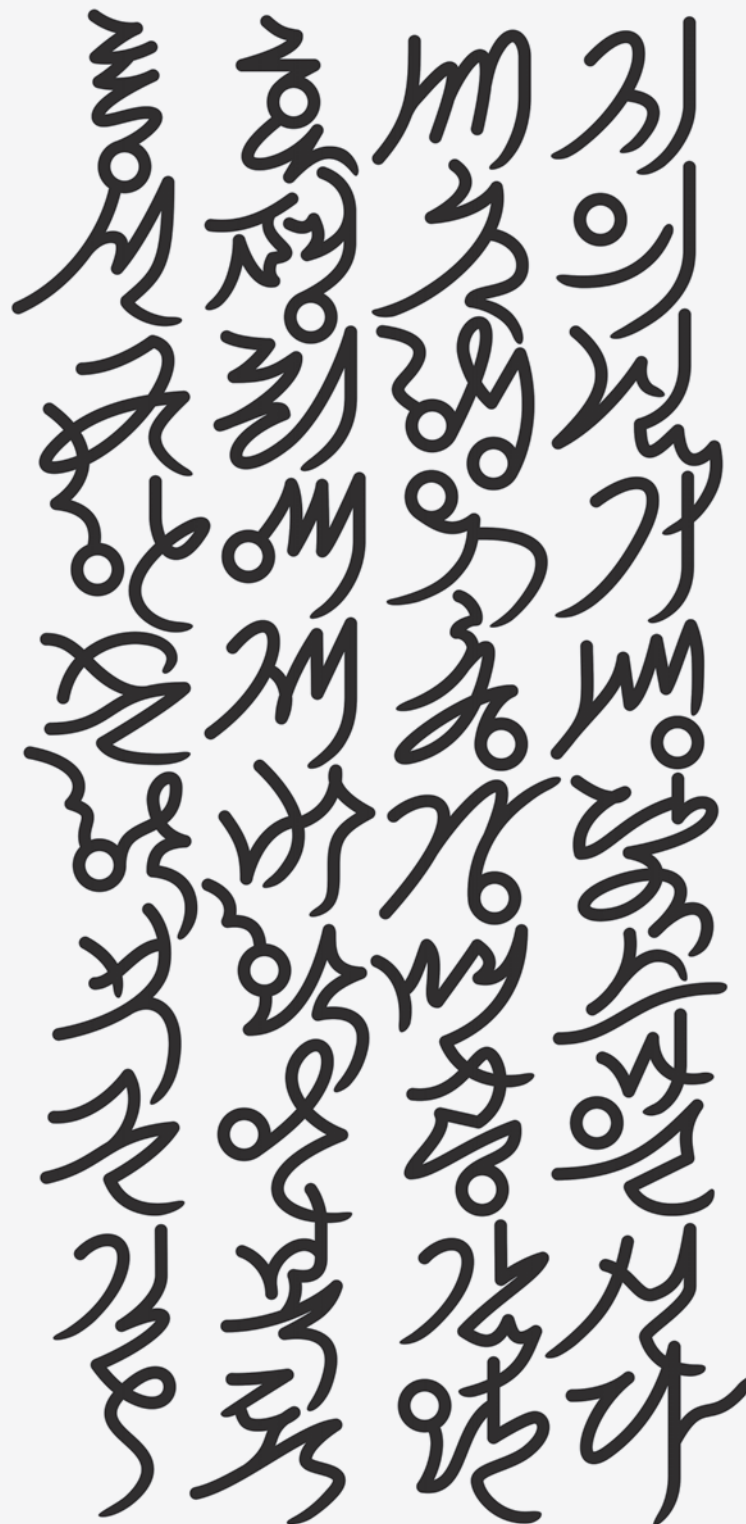
Seoul
http://www.anmano.kr

한글 그물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Hangeul M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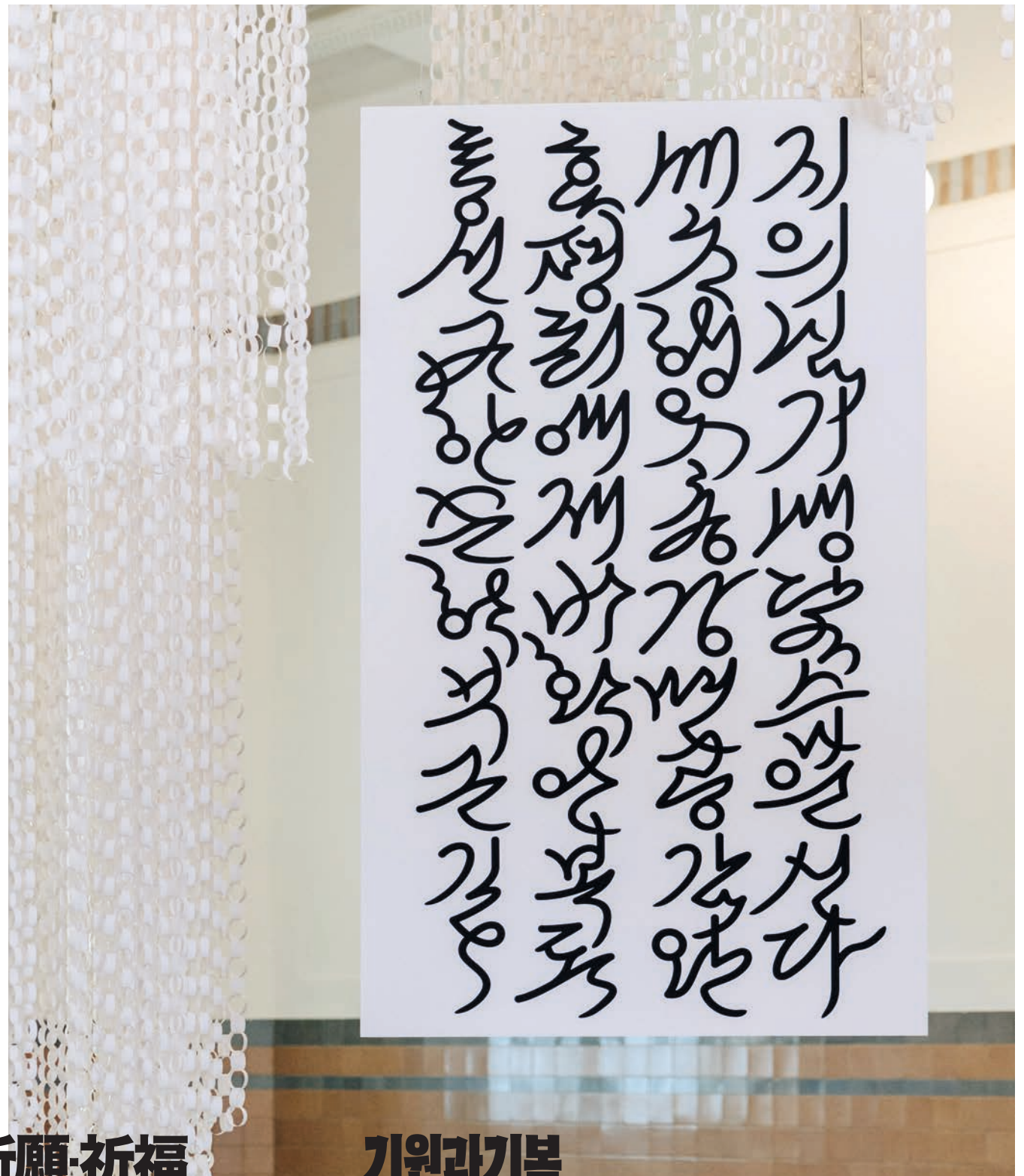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한글 마흔 자로 이루어진 안마노의
〈한글 그물〉은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한자를 던지시 암시하며
구복의 의미망을 형성합니다.
흘림체의 견련(牽連, 이음매와
연장선)을 활용한 레터링은 한글
글자 표현의 규범을 넘나들며
변형되고 양식화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길상 문자의
묶음으로 기능합니다.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감상한 뒤 주변의 복
마흔 가지 정도는 알뜰히 건져올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Hangeul Mesh, composed of
40 Hangeul letters, implies
Chinese characters that
would be nice if you have
in mind, thereby forming a
meaningful network wishing
for blessings. The lettering
using the joints and exten-
sions of cursive fonts is
transformed and stylized
across the norms of Korean
letter expression, thereby
functioning as a new type of
auspicious letter group. He
sincerely hopes that viewers
will have happy days by pick-
ing up at least 40 blessings
around them after seeing
this work.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오닷오오는 리소그래프 인쇄를 사용해 실험적 디자인을 선보여온 타이베이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뉴욕과 도쿄 TDC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불완전한 책자』는 '잇츠 나이스 댓'이 선정한 2016년 그래픽 디자인 25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늘 새로운 작업을 통해 디자인계에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타이베이
<http://www.odot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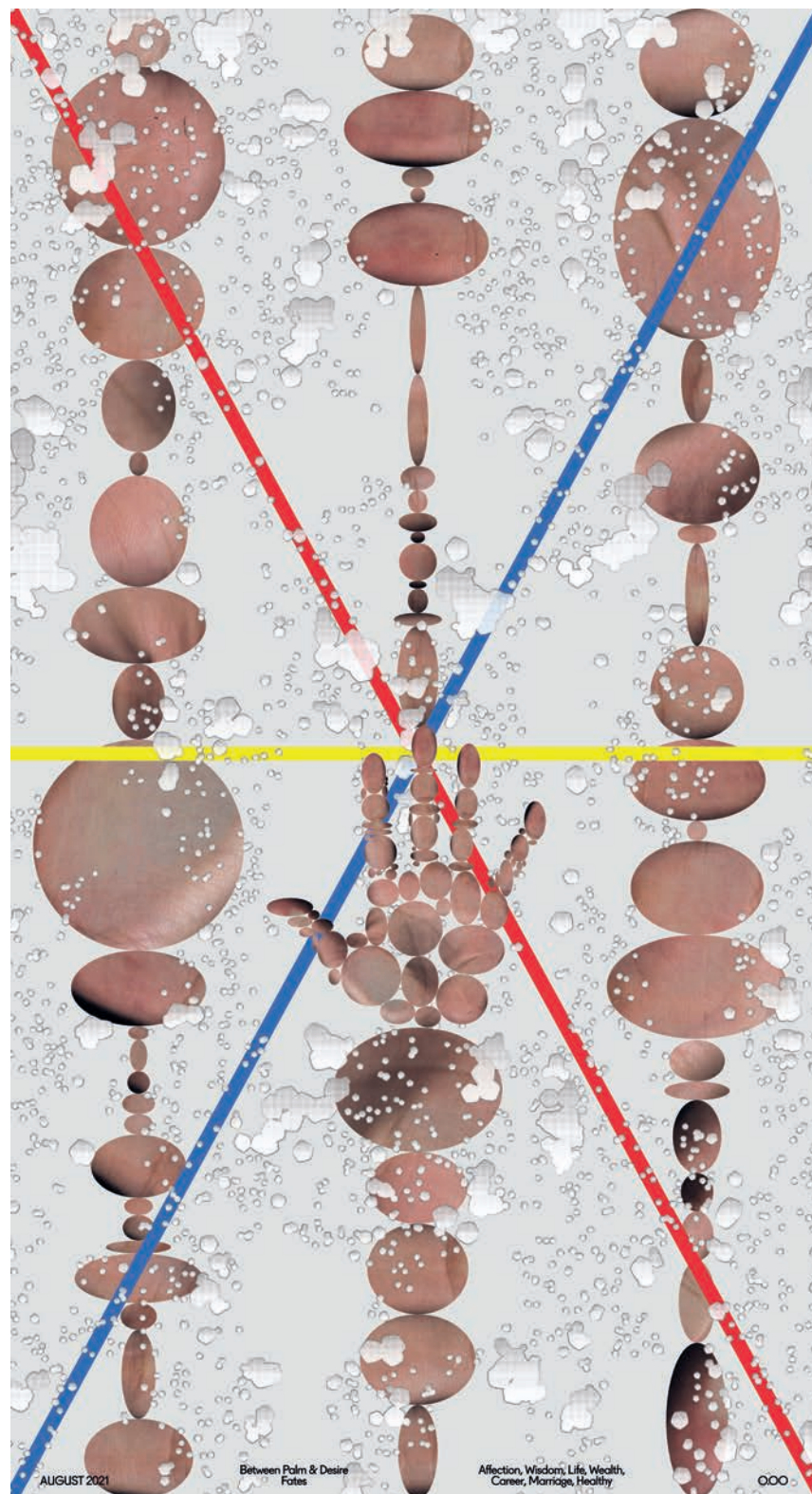
0.00

Taipei-based design studio 0.00 is formed by two graphic designers. They are dedicated to create designs that are more experimental with the use of Risograph printing technology.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ir works were selected as Excellent Work by TDC New York and Tokyo. Especially, *Imperfection Booklets* was also voted as the Top 25 Graphic Design of 2016 in It's Nice That. In addition to graphic design and Risograph printing, 0.00 will create new works and projects from time to time to influence and inspire the design circle in the near future.

Taipei
<http://www.odotoo.com>

손바닥과 욕망 사이: 운명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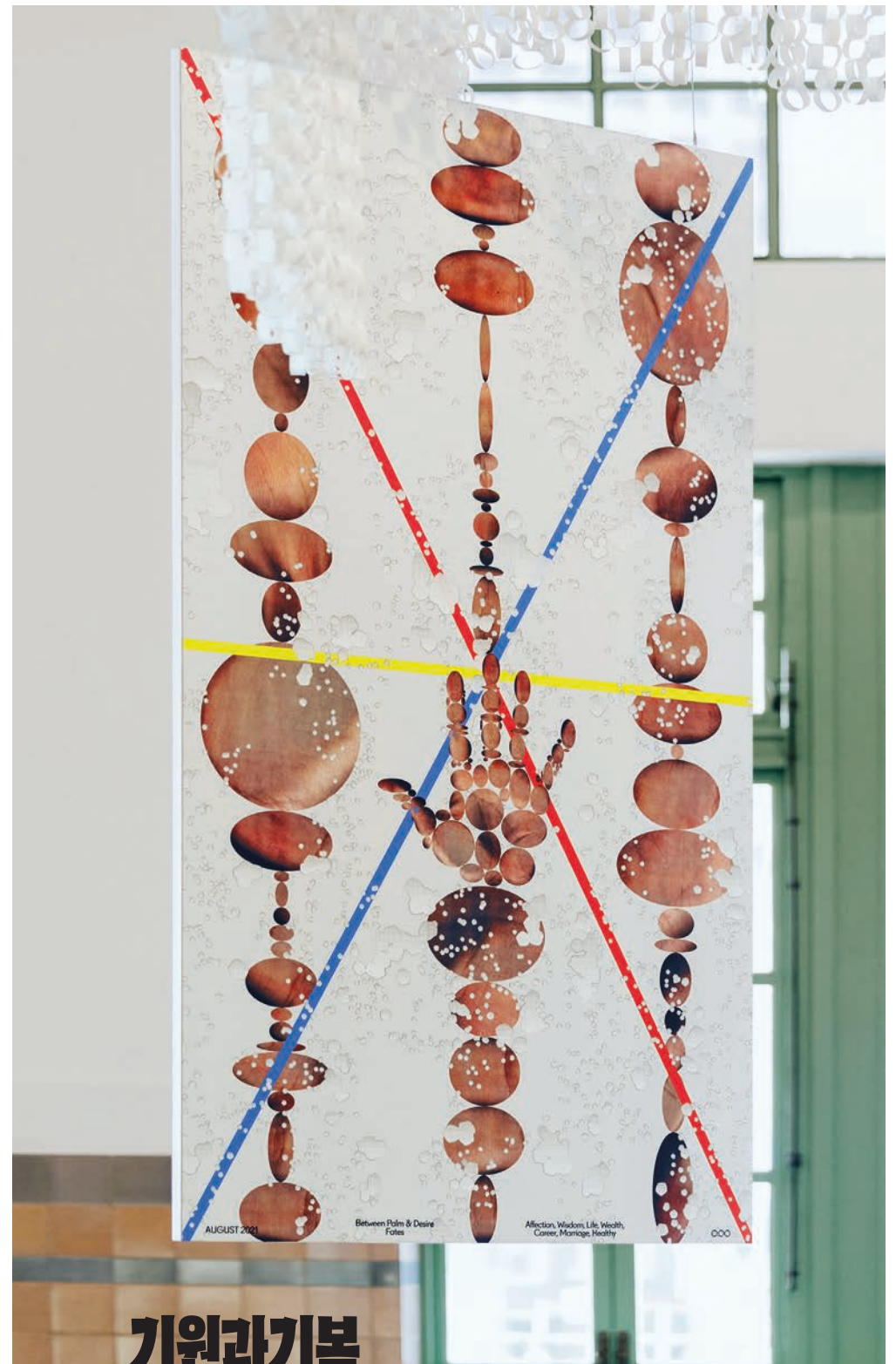
Between Palms & Desires: Fates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사람들은 항상 행운과 행복이
자신에게 깃들기를 기원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양에는
손금을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미래의 운명을
알리는 손금이 새겨진 손은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을 들려주는 말들로
가득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In life, people always pray for
luck and happiness to hap-
pen to themselves, and even
hope to spy on the future
and avoid disasters. In East
Asia, there is a knowledge
called palmprint visualiza-
tion. People can know fate in
advance by reading palm-
prints, so the hands are like
a book full of words, telling
a person's life. However,
how should we balance our
desires in a given destiny?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이화영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환상, 기억, 소녀, 동양 철학 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한 보이어를 기반으로 문화 예술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 다양한 규모의 브랜딩, 제품 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서울
<http://www.bowyer.kr>

나무 아래 쥐부터 구름
 아래 돼지까지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From a Mouse
 Under a Tree
 to a Pig Under
 the Clouds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HWAYOUNG LEE

Hwayoung Lee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and is interested in fantasy, memory, girls, and Eastern Philosophy. She founded Bowyer with Sang-Jun Hwang in 2016. Bowyer deals with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visual identity, various printed materials, and products for art and culture, as well as many different commercial projects.

Seoul
<http://www.bowyer.kr>

PRAYER&DESIRE 祈願·祈福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오행과 음양 개념을 통해 세계를 해석했습니다. 오행은 세상의 만물이 나무, 불, 흙, 쇠, 물의 속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속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하며 순환한다는 점을, 음양은 세계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축합니다.

옛 사람들은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하늘의 열 가지 기운과 땅의 열두 가지 기운을 도출했으며, 하늘과 땅의 기운을 위아래로 조합해 육십갑자(六十甲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육십갑자는 서양의 달력이 도입되기 전까지 동양에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틀이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인간의 운명 역시

육십갑자를 통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육십갑자로 이해하는 인간의 운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운명을 구성하는 성분이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변화해갑니다. 갑자(甲子, 나무 아래 쥐)로 시작해 계해(癸亥, 구름 아래 돼지)로 끝나는 예순 가지 글자는 하늘과 땅, 밝음과 어둠,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죽음을 맞는 순환을 수직 수평으로 직조한 운명의 직물 아닐까요? 직물을 한 땀 한 땀 수 놓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자신, 나아가 우리의 삶을 곱씹히 바라봅니다.

Since ancient times, people in East Asia have interpreted the world through the concepts of the Five Elements and yin and yang. The Five Elements theory says that all things in the world are made up of the properties of wood, fire, soil, iron, and water, and these properties circulate in harmony or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the yin and yang theory says that the world is made up of a combin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nergies.

Based on these ideas, ancient people derived ten kinds of energy from the sky and twelve kinds of energy from the earth, and the en-

ergy of the sky and the earth was combined to create the sexagenary cycle. The cycle w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flow of time in the Eastern world until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calendar. Furthermore, people determined the fate of humans living in the flow of time through the sexagenary cycle. The fate of humans, which is understood through the sexagenary cycle, is not fixed, but changes as th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destiny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sixty terms—which starts with gapja (甲子, a mouse under a tree) and ends with gyehae (癸亥, a pig under the clouds)—are

like a fabric of fates woven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 the cycle in which all living beings born, grow, bear fruit, and die. This work looks at life intently through the process of weaving the fabric step by step.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티놉 왕실라파쿤은 예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목표로 삼는 스튜디오 티놉 디자인의 설립자 겸 디렉터입니다. 작가는 예리한 디자인이란 개념적 작업과 이를 구현하는 솜씨가 얼마나 균형을 갖추는지가 핵심이라 믿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철저히 동시대적 소재와 제작 기법, 실행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표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랑싯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전임 교수, 2016년부터 AGI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콕
http://www.tnop.com

TNOP WANGSILLAPAKUN

Tnop Wangsillapakun is a founder and design director of TNOP DESIGN, a Bangkok-based design studio that focuses on creating a perfect balance between art and design. Tnop believes that a sharp design is about the critical balance of conceptual work and a relevant craftsmanship. His philosophy is to create a unique design that can represent client's culture through distinct contemporary executions, materials, and production techniques. He's also a full-time professor of the Master of Fine Art in Design program at Rangsit University and an active member of AGI since 2016.

Bangkok
http://www.tnop.com

죽은 대부의 성지
피그먼트 인쇄
2200 × 1200 mm
2021

The Dead
Godfather Shrine
Pigment print
2200 × 1200 mm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죽은 대부의 성지〉는 태국의 안트라 부적을 현재 맥락에서 재창조하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티눈 왕실라파쿤은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 남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것, 강해지는 것이라는 통념 말입니다. 그는 태국 전통 부적의 필수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표하는 이모티콘, 물질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유명 브랜드 로고 등 현대적 요소를 한데 합쳤습니다.

오늘날 태국에서는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부잣집 아이들의 모습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대로 세습되는 강력한 인맥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술 취한 부잣집 아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모의 인맥으로 법의 처벌을 피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작품 중앙의 '죽은 대부의 성씨'를 뜻하는 태국 문자 'สกุลเจ้าพ่อเส็ง'은 이와 같은 엘리트 인맥 중심의 태국 문화를 비판합니다.

The idea was to recreate the Thai Yantra cloth (ผ้ายันต์) in today context. Tnop Wangsilapakun wanted to challenge the idea of social acceptance; is being rich, being seen, being powerful is what young people dream of these days? The design kept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traditional Thai Yantra cloth but incorporated modern elements such as emoticons to represent the online platform that the young generation is born into and as well as famous brand logos representing the idea of materialistic lifestyle.

One top of that, the main focal point is the Thai typography in the middle reads “ศาลเจ้าพ่อเสือ” which literally means “Dead Godfather’s Shrine” critiquing the Thai culture of elite connection. This idea of powerful connection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f rich families is really causing trouble in the modern day Thai society as young people grow up seeing the lavish lifestyle of rich kids as seen on their social media accounts. But at the same time, the fearless rich kids are also causing trouble as we can see from recent news about serious crimes committed by drunk rich kids and apparently they’ve gotten away with it because their dads have connections with the law enforcement.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그레이트마이너는 정도이와 정재나로 구성된 팀으로, 형태와 구조를 바탕으로 한 공예 기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은 사물부터 오브제, 설치 작업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greatminor.com

원과 원
가변 크기
2021

Circle To Circle (CTC)
Variable size
2021

하늘의 달과 태양.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 영원을 약속하는 반지. 무한하게 순환하고 연결되고 반복하는 원의 형태적 특징 때문일까요? 절대적인 영원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흔히 원의 형태를 통해 상징성을 전달합니다.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는 원은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가운데 전체성과 영원성을 비유하며 형태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레이트마이너는 원이 전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원의 조형적 기능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그 속성처럼 원은 생각의 시작점이자 과정, 그리고 결과로서 하나를 이룹니다. 원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원과 원>은 원의 물리적인 기능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그 연결성, 반복성, 확장성을 담아내기 위한 조형적인 실험 결과물입니다. 원과 원의 결합은 종이 고리라는 익숙한 이미지로 치환되어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듯 확장합니다. 이는 유기적으로 증식하는 자연을 상기시키는 한편, 원의 무한한 영원성을 암시합니다.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원을 통해 관람객은 우주의 형태를 마주하며 나와 당신의 안녕을 염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시킵니다.

GREATMINOR

Jaena Jung and Doi Jung are working as a creative team under the name of Greatminor. Based on the exploration of form and structure, they have been doing craft-based works for years. They are presented in various categories, ranging from small objects to installations.

Seoul
http://www.greatminor.com

The moon and the sun in the sky. Time that goes by infinitely. A ring that promises eternity. Probably because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circle that circulates, connects, and repeats indefinitely, things that conjure up absolute eternity deliver their symbolism through the form of a circle. The circle, which has no distinction between its beginning and end, is likened to entirety and eternity in the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enabling a story about symbolic functions of form. Greatminor decided to explore the formative function of the circle that can deliver

an alluring visual story of the circle.

Like its properties, circles become one as the starting point, process, and result of this idea. **Circle to Circle (CTC)**, which structurally represents the story of a circle, is the result of formative experiment to capture its connectivity, repeatability, and extensibility based on the exploration of its physical functions. The combination of a circle and another circle is replaced by the familiar image of a paper chain, which extends seemingly indefinitely, even with a limited number of circles. This reminds viewers of the

organically proliferating nature of a circle, and again its infinite eternity. Through a circle that simply captures everything, viewers face the form of the universe, and project onto it the image of us wishing for the wellbeing of all.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사람들은 장수, 건강, 부, 성공 등 누구나 바라는 다양한 욕망들이 투사된 사물들을 만들고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 둔 채 함께 살아갑니다. 거북이나 두루미가 수놓인 보료, 한 쌍으로 이뤄진 원앙 조각, 손님을 부른다는 고양이 모습의 마네키네코,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스웨덴의 달라 호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사물들은 대개 수명이 긴 동식물이나

상서롭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물이나 장식품은 침실에, 주방에, 자녀 공부방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홈 스위트 홈’은 평면의 시각적 즐거움을 다양한 오브제로 확장한 씨오엠의 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의 사물을 재해석한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을 조금 다른 온도로 바라보게 합니다. 행복도 물건처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씨오엠
.....
기획
이재민, 박이랑, 조효준

HOME SWEET HOME

People project various but identical desires—such as longevity, health, and the acquisition of goods—onto objects, and live with those objects in their living spaces. Objects of happiness that can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such as a fancy mattress embroidered with turtles or cranes, a maneki-neko in the form of a cat that is considered to bring guests or money, and a Dala horse in Sweden, which is said to bring home peace—are often made based on long-lived animals or plants, or animals that are considered auspicious in different cultures of the world.

These objects and ornaments exist in bedding, kitchens, and children’s study rooms in various forms. The “Home Sweet Home” chapter of the exhibition consists of works by COM, which expands the visual enjoyment of a flat plane to a variety of objects. Works that reinterpreted objects of happiness allow us to look at scenes we are familiar with from a bit different perspective. How good would it be if we could accumulate happiness like goods and use them whenever necessary?

COM
.....
Curation
Jaemin Lee, Eerang
Park, Hyojoon Jo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씨오엠은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김세종과 무대 미술을 전공한 한주원이 2015년 결성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업 공간에서 여러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까지 다양한 성격의 공간과 가구를 디자인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HYBE 사옥과 인왕산 대충유원지, JTBC PLAY 등이 있고, 단체전 《뉴 웨이브 2: 디자인, 공공에 대한 생각》과 단독전 《The Last Resort》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studio-com.kr>

COM

COM is a design studio that was established in 2015 by Sejoong Kim, who majored in spatial design at Kookmin University, and Joowon Han, who majored in stage art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OM designs spaces and furniture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from commercial spaces for unspecified individuals to offices where different members work together. COM's projects include the HYBE office building, a café called Inwangsan Daechoong Park, JTBC PLAY, khakis. They have also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cluding a group exhibition, *New Wave II: Design, Thinking about the Public*, and a solo ex-

hibition, *The Last Resort*. COM is pronounced "see-oh-em."

Seoul
<http://www.studio-com.kr>

행운의 집
 나무에 페인트
 가변크기
 2021

Lucky House
 Paint on wood
 Variable size
 2021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씨오엠의 <행운의 집>은 가정의 소망을 담은 사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작품은 내부를 열어보거나 앉아볼 수 있는 가구 형식을 취합니다. 외형은 과거부터 장수, 지혜, 재물 등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문양의 형태를 띠고, 그에 상응하는 사물로 채워집니다.

예컨대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으로 내부를 채운 책장은 지혜와 출세를 상징하는 원숭이와 합쳐진 모습을 통해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가구는 거북이와 식탁이 합쳐진 모양으로 상판 위에 수상해 보이는 수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세워진 장롱 안에는 다양한 바람을 새겨둔 이불과 베개가 커커이 쌓여 있지요.

기복을 바라는 기묘한 모습의 가구들이 마치 장승처럼 서 있는 형국입니다. 가구 표면의 질감은 대리석이나, 물, 불타는 연기, 푸른 청동 등 일반적인 가구 마감으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소재를 무대 작화 기법을 통해 드러냅니다.

Lucky House consists of objects capturing the wishes of a family. This work follows a format of furniture that allows you to look inside or sit on it. The exterior of the furniture is in the form of animals or patterns that have traditionally meant longevity, wisdom, and wealth, and the pieces are filled with objects that correspond to such wishes.

Some furniture looks like a combination of a monkey and a bookcase. The inside of the bookcase is filled with notable people's biographies for children. This represents the hope of Koreans for their children's success, while the

monkey symbolizes wisdom and success. Another piece of furniture is in the shape of a tortoise that is combined with a table, on top of which are viewing stones (*suiseki*) in unusual forms. Inside the wardrobe, standing on the other side, are duvets and pillows with various wishes embroidered on them. The composition shows odd-looking furniture pieces that wish for blessings standing here and there like totem poles. The surface texture of the furniture will be expressed using a stage painting technique with materials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use for ordinary furniture finishing materials, such

as marble, water, burning smoke, and blue (molybdenum) bronze. This is to show the strangeness of these objects that seem to be wishing for blessing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corridor of the old Seoul Station building, where this work will be installed. Viewers will especially appreciate this installation as they approach it from a distance.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가족이 모인 휴대전화 대화창에는 구성원들의
안녕을 바라는 메시지가 오갑니다. 이때 주고받는
이미지 파일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말들을 그러모은 텍스트와 고색창연한
이미지를 조합해 만든 이런 밈(meme)에는 가족의
행복을 비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전자를 공유한 구성원들의 안녕은 아주 오랜
기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아침’에서는
글꼴 디자이너와 사진가가 각각 ‘안녕의 인사’를



In a group cell phone chat window where
a family is gathered, they share messages
wishing for the well-being of their family
members. Those image files are intriguing.
The text gathering all the positive words in
the world and old-fashioned images are com-
bined in the memes, which contain sincerity
praying for the happiness of their family.
People have long wished for the well-being of
their family. In “♥4U”, font designers and
photographers send warm replies to the
messages they have received using text and
images, the two key elements of the greet-

PRAVER&DESIRE 祈願·祈福

구성하는 두 축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해 그들이
받아본 메시지에 따뜻한 화답을 보냅니다. 인터넷
밈뿐 아니라 안녕의 인사가 오가는 실제 시공간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명절 아침 차례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병풍 앞에 차려진 다정한 모습의 오래된
TV들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조롱거리처럼
여겨지는 특정 종류의 밈을, 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뻘한 인사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ings wishing for the receiver's well-being.
When considering the real time and spatial
environment in which not only Internet
memes but also greetings are shared, we
can come up with the front of the memorial
service table on the morning of a Korean
holiday. At this exhibition, through the friend-
ly-looking, old TV sets installed in front of
the folding screen and the messages con-
tained in them, we hope viewers will get
an opportunity to look at common memes
shared between family members from a new
perspective.

기원과기복

구모아
김영선
김주경
김현진
박진현
임혜은
양장점
하형원
레몬
텍스처 온 텍스처

기획
이재민, 박이랑, 조효준

Moa Ku
Youngsun Kim
Jookyung Kim
Hyunjin Kim
Jinhyun Park
Hyeun Lim
Yang-Jang
Hyeongwon Ha
Lemon
Texture on Texture

Curation
Jaemin Lee, Eerang
Park, Hyojoon Jo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구모아는 건국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산돌에서 글꼴 디자이너 겸
매니저로 5년 동안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및 팀장으로 마루
프로젝트 등 글꼴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새로운 글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일에 기여하는 한편,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에서 글꼴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최적화한 최정호체를
시작으로 화면과 글꼴에 관한 연구
및 프로젝트와 서예를 바탕으로
한 글꼴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moa_ku

부모님께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자식의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이 장성한 뒤
어느 순간 부모의 안녕과 무탈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화답받습니다.
시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부모에게 받은 마음을 되돌려주듯
성년이 된 자식은 부모가 흐르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옆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구모아는 부모님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어르신 팔'에
답을 보냅니다.

MOA KU

After majoring in Communication Design at Konkuk University, Moa Ku worked as a font designer and manager at Sandoll Co., Ltd. for five years. From 2017 up until now, she has been trying to create a new font culture and making font design projects such as the Maru Project as a senior researcher and team leader at AG Typography Institute. Ku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design work related to letters such as font design, logotype design, and lettering. She has also been teaching font design at Design School and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for years. Starting with the Choijeongho Screen font,

she has been conducting a great deal of research and commercial projects on screens and fonts, while steadily working on fonts based on calligraphy.

Seoul
http://www.instagram.com/moa_ku

To My Mom and Dad

Single channel video
2021

Parents want the best for their children, and when the children grow up it is their turn to take care of their parents' well-being and prosperity. The time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However, just like giving back love, people hope that their mother and father are not left behind in society and always stay healthy and happy as they stand by their children. Moa Ku is sending an answer to senior citizen memes in the spirit of providing a gift of a turtle and a crane to her parents.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미디어는 그대조 있지 말고
인터넷 쇼핑은 나한테 맡기고
포즈는은 누르지 말기!
*_<

정신
이제 걱정
그만하고
정신
건강
기세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김영선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디자이너로 인쇄 매체 디자인, 브랜딩, 레터링,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형태의 글자를 도구 삼아 다양한 프로젝트에 접목하는 한편, 《100 Films 100 Posters》, 《대강포스터제》, 《벨트포맷코리아》, 《“THEN TO NOW” Gateway》, 《TUKATA NEW BLUE CHALLENGE》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kimyoungsun.cargo.site

YOUNGSUN KIM

Youngsun Kim is a graphic designer and brand designer based in Seoul, working on print design, branding, lettering, and illustration. Kim mainly works by combining interesting-shaped letters with various projects. Kim has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100 Films 100 Posters*, *Big River Poster Festival*, *Weltformat Korea*, *“THEN TO NOW” Gateway*, and *TUKATA NEW BLUE CHALLENGE*.

Seoul
http://kimyoungsun.cargo.site

PRAYER&DESIRE 祈願·祈福

편지가 더 익숙하고 줄임말이 어색한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는 요일별 응원, 절기 알림의 역할, 또는 희망을 전하거나 건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시대적으로 문학을 사랑하던 세대였기에 음절의 반복이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말장난을 즐기기도 합니다.

김영선은 어르신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속 메시지,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 가까운 사람들을 염려해 공유하는 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메시지 가운데 젊은 세대를 향한 인생에 대한 조언과 응원(‘우리는 삶이란 연극의 주인공’, ‘미워 말라 사랑하라’,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을 시각적인 목소리로 재해석하고, 그 표현 방식을 빌려 ‘짤’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의 애니메이션 방식을 TV의 특성에 맞추어 표현합니다.

지혜의 메시지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In conversations with senior citizens, many of whom are more accustomed to writing letters and are awkward with abbreviations, we often find cheerful messages for each day of the week, seasonal greetings, or texts to convey hope and well wishes for their family members' health. As a generation who loved poetry and literature, seniors enjoy repetition of syllables or small puns using homonyms.

Youngsun Kim collected a variety of writings by seniors, such as SNS profile messages, frequently used memes, and texts they share with close people. She then

classified them by category. Among their messages and writings that contain adult wisdom, advice and support in life were selected (For example, messages titled “We Are Heroes of the Play Called Life,” “Don’t Hate, but Love,” “However Sad You Are, Today Will Pass but There is Always Tomorrow”.) These themes were then visually reinterpreted for younger people. When creating memes by borrowing senior citizens' expressive methods, the animation motion method is applied to PowerPoint, expressing them so that people will be familiar with through their televisions.

A Message of Wisdom
Single channel video
2021

기원과기복

미워말라
사랑하라

미워말라
사랑하라

미워말라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는
주인공
의

주인공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

PRA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김주경은 2017년에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그해 8월부터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에서 글꼴을 디자인했습니다. 궁체를 재해석한 <화양연화체>와 옛 한글을 지원하는 <AG 훈민정음체>를 개발하고, 현재는 <초특태명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joooo.kyung>

JOOKYUNG KIM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Visual Design at Seoul Women's University in 2017, Jookyung Kim joined the AG Typography Institute in August of that same year and has been drawing fonts. She developed the *Hwayangyeonhwa* font, which reinterprets Gungche (the count style of Hangeul calligraphy), and the *AG Hunminjeongeum* font that supports the Hangeul of the past. She is currently drawing *Choteuktae Myeongjo* (extra black, serif style font).

Seoul
<http://www.instagram.com/joooo.kyung>

PRAYER&DESIRE 祈願·祈福

오늘의 별자리를 확인하거나 연초에 신년 운세를 보는 것, 또는 관심사에 대한 타로 점을 보는 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에서 자신의 운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해소합니다. 희노애락을 담은 짧은 점괘와 행운의 물건, 행운의 컬러 등이 맞아 떨어질 때는 그것을 '유사/사이비 과학'이라 부르며 가볍게 즐기기도 합니다.

'어르신 짬'은 특유의 언어로 '희'만을 담은 '행운의 부적'과 닮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오늘 또는 미래가 '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먼저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후대에 보내는 환상적인 유사/사이비 과학이 아닐까요? 작가는 관람객이 우리의 오늘에 바라는 안부와 운에 집중해 '어르신 짬'을 재해석합니다.

내일의 운세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People check their daily horoscope, read their fortune for the New Year, or look at tarot cards about their concerns. They all find answers to their questions about fortune in life in their own ways. When simple division signs, lucky objects, and lucky colors are in harmony with people's situations, they are sometimes called pseudoscience and enjoyed with gaiety.

Senior citizens' memes resemble a lucky charm that captures only joy in their own vernacular so that the unknown today or the future will always be healthy and happy. It might be a fantastic pseudoscience that a person who has lived longer than others sends to future generations. This work reinterpreted senior citizen's memes, focusing on the kind regards and luck the older generation wish for today's people.

Fantastical Pseudo-science
 Single channel video
 2021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김현진은 글꼴 및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낯설고 아름다운 조형의 글자 탐험을 즐기며 새로운 인상의 한글꼴을 찾습니다. 한글꼴 지도에 빈 좌표를 찾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글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pretty.odd.type>

HYUNJIN KIM

Hyunjin Kim is a font designer and graphic designer based in Seoul. Kim enjoys exploring unfamiliar but beautiful forms of letters, and always wants to find Hangeul typefaces with new impressions. As a font designer, Kim's personal goal is to discover something new in the empty coordinates of the Hangeul font map. In addition to fonts, Kim is also working on design projects in various fields.

Seoul
<http://www.instagram.com/pretty.odd.type>

PRAYER&DESIRE 祈願·祈福

글자굿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김현진은 길흉화복을 비는 곳과 '어르신 짬'의 시각적·기능적 측면에서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기운을 글꼴 작업으로 옮겼습니다. 작품에서는 '어르신 짬'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핵심 메시지가 담긴 여덟 단어가 화면에 등장하며 관람객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Occult Type

Single channel video
 2021

Hyunjin Kim found strange similarities in the visual and functional aspects of gut (shamanic rituals), the act of praying for good luck, and senior citizens' memes. She then transferred their energy to font design. The eight words, which are used at a high frequency in senior citizens' memes and contain key messages, appear on the screen and make a wish for the wellbeing of the viewer.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박진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다루고, 글꼴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그리며, 종종 글자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 세로쓰기 전용 글꼴
〈갈맷빛〉을 출시하고, 현재는
본문용 민부리 활자 가족 〈지백〉을
그리고 있습니다. 《50인,
50꼴》, 《벨트포맷코리아》,
《서울국제도서전 2016: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 특별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parkjinhyun.com

JINHYUN PARK

Jinhyun Park works with
letters as a graphic design-
er, draws letters as a type
designer, and often provides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letters. In 2018, Park
released *Galmaetbit*, a type-
face exclusively for vertical
writing, and is currently
drawing a sans serif type
family *Jibaek* for the main
text. She has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50 People*,
50 Types, *Weltformat Korea*,
and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6: Special Exhibi-
tion for the 570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Hunmin-
jeongeum*.

Seoul
http://www.parkjinhyun.com

작은 사진 속에 화려하게 꾸며진
좋은 말은 대체로 수신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허공을 맴도는
피상적인 응원으로, 또는 답하기
어려운 대화로 읽히기도 합니다.
한편, 시선을 끌기 위해 추가된
다양한 꾸밈이 오히려 내용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무시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 짤’은 이따금
본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박진현은 〈상충〉에서
‘어르신 짤’이 지닌 아이러니,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괴리감 등을
글자 형태 사이의 관계로 치환해
‘어르신 짤’의 문장을 재현합니다.

상충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Comforting or instructive
messages decorated in small
photographs are usually
based on heart-warming
attention to the receiver, but
for some people they are
read as superficial support
that sounds hollow or as part
of a conversation that is dif-
ficult to answer. In addition,
various decorations added
to attract the reader's atten-
tion may interfere with the
communication of the con-
tent or cause the image to
be ignored. As such, senior
citizens' memes often result
in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Conflict changes the irony of
these memes and the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sender and receiver into a
relationship between mean-
ing, expression and fonts to
reconstruct senior citizens' memes.

Conflict
Single channel video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임혜은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글꼴 디자이너입니다. 금속 공예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 몸에 익힌 공예적 작업 방식을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폰트 디자인 등의 영역에 적용합니다. 2018년 글꼴 〈마포 다카포〉를 디자인했고, 현재는 산돌에서 글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l___h___e

HYEEUN LIM

Hyeeun Lim is a type designer based in Seoul. In college, she studied metal craft and graphic design, and has been applying her craftsmanship to the fields of illustration, video, and font design. In 2018 she created the **Mapo Dacapo** font. She is presently working as a designer at Sandoll, a font company.


Seoul
http://www.instagram.com/l___h___e

꽃과 심장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문자를 이미지로 장식하고 강조하는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세기 이전 등장한 '손가락표'()에서는 책 귀퉁이에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로테스크한 손가락 끝이 독자가 주목한 부분을 탐욕스럽게 가리킵니다. 오늘날 상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하트'도 본디 심장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지요. 이렇듯 문자를 꾸미고 강조하려는 인간의 오랜 열망을 떠올리면 '어르신 찜'의 원초적 기원의 메시지는 빛, 기계적이고 서툴게 움직이는 빛, 무지개, 꽃, 금속 같은 자연물의 이미지와 어우러져 주문처럼 읽힙니다.

메시지를 강조하는 요소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통일된 양식이나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어르신 찜'에 혼재된 장식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에너지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임혜은은 이런 모습을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존재한 장식적 문자의 모습과 루핑하는 아날로그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정교하게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감행한 수많은 시도를 기리고, '어르신 찜'이 지닌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작품 속 텍스트는 주제에 잘 어울리는, 언제나 웃음을 주는 분의 애정과 염려로 점철된 메시지에서만 가져왔습니다.

Flowers and Heart
 Single channel video
 2021

Decorating and emphasizing text with image elements has been conducted for a very long time. The origin of the manicule () which appeared earlier than the 15th century, shows that the grotesque fingertip, which is carefully drawn at the corner of a book page, greedily points to the part that the reader has noticed in the article. Hearts, a symbol that are easily used today, were originally a simple image of the human heart. When considering the human desire from long ago to decorate and emphasize the text, the message of wishes in senior citizen memes is read like a magic spell, while combining images

of natural objects such as light, rainbows, flowers, and metals that move mechanically in the background. The elements used to emphasize the messages are too flashy. They neither have any unified style nor follow the rules of modern typography. However, that is why the free energy emanating from the mixed decorative images and text in memes is attractive. Hyeeun Lim is trying to show such an image in a more sophisticated form using decorative characters that existed in various eras before the development of current technology and the analog cut-out animation

method. This work honors the numerous attempts that people have made to emphasize the messages that they considered important, and also emphasizes the fantastic and surreal feeling it brings about from senior citizen memes. The text was created only from messages dotted with the affection and concern of the sender, which matches well with this topic.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양장점은 라틴 알파벳 디자이너
양희재(양)와 한글 디자이너
장수영(장)이 만든 서체를 판매하는
상점(점)이라는 의미의 타입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양희재는
양장점에서 라틴 알파벳 디자인을,
장수영은 양장점에서 한글 글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yang-jang.com>

YANG-JANG

Yang-Jang is a type design
studio which refers to a shop
that sells typefaces created
by Latin alphabet designer
Heejae Yang and Hangeul
designer Sooyoung Jang.
Heejae Yang is in charge of
designing Latin alphabet
fonts at the type design
studio Yang-Jang. Sooyoung
Jang is in charge of design-
ing Hangeul fonts at the same
studio.

Seoul
<http://www.yang-jang.com>

PRAYER&DESIRE 祈願·祈福

웃으면 복이 와요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 워커

“어르신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사랑 가득한 멋진 한 주 보내세요!
사랑 하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르신들이 연락 주고받으실 때
하트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들 더 큰 사랑
전하시라고 하트를 아낌 없이 듬뿍
담은 글꼴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배경에만 하트가 들어가서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제 글자에도
하트를 담아 두 배의 사랑을
전하세요! 양장점은 시니어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Smile Brings Fortune

Single channel video
2021

Motion graphic:
WALKER

“Hello, everyone. It's Monday
morning, the beginning of
the week.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 full of love
ahead! Speaking of love, you
use a lot of hearts when you
talk to each other, right? We
made a font full of hearts
so that senior citizens can
share more love. We are
sure you've been disappoint-
ed that hearts only decorate
the background image, but
now you can add hearts
in the letters and express
your feelings twice as much!
Yang-Jang supports senior
citizens' new lives.”

기원과기복

Smile Brings
Fortune
웃으면 복이 와요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하형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가족성을 담보한 새로운 한글 형태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며 뮤직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를 위한 타이틀 레터링을 만듭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는 전시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바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꼴 개발을 병행하며 방각본 계열의 세로쓰기 서체인 <도웅>, 잡지 『FDSC.txt』 1호를 위한 <FDSC.txt>를 공개했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및 현직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레터링 수업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hahyeongwon>

'어르신 짬'에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노년의 시간과 답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와 싸우는 우리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는 무사태평하고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형원은 이런 짬을 건네받았을 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모두가 풀지 못한 채 안고 살아간다는 지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던지는 침예한 질문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 큰 대답은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어르신 짬'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는 것, 다음으로는 삶을 유지해나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과 소속감,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며 자아실현적인 가치를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안부 인사에 인색한 자신을 위해 작가는 <무사태평>을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보낼 안부 인사를 만들었습니다. 단, 1년에 두 번 이상은 보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무사태평
 싱글 채널 비디오
 2021

HYEONGWON HA

Hyungwon Ha majored in visual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creating new Hangeul forms with strong readability and makes title lettering for M/V, animations, as well as advertisements. As a graphic designer, she also produces printed materials, and works on exhibitions and brand identities. She recently worked as a brand designer at Baton. In her spare time, she is personally developing typefaces. So far, **Dyowoong**, a typeface for vertical writing in the Banggakbon (woodblock-printed novels) style, and **FDSC.txt** for the magazine **FDSC.txt** vol.1 of the same name have

been released. Based on these experiences, she often holds lettering classes and workshops for students and designers.

Seoul
<http://www.instagram.com/hahyeongwon>

One senior citizen meme contains the older generation's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important in life?" Such theoretical words must look so laid-back and old-fashioned to the younger generation fighting the problems we face every day. However, when Hyungwon Ha received such a meme, it was quite comforting to her in that everyone's life goes on even though they could not solve one of life's fundamental challenges. When you get lost between essential questions you ask yourself, these general answers are always the starting point for you to return to.

The three main themes mentioned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suggest that we appreciate the fact that life is given. Next, the memes emphasize health, a sense of belonging, and love, are of which are basic elements to maintain life. Lastly, they suggest that we find our own values for self-realization in our lives. Hyeongwon Ha made some greetings to send to her family and friends for herself, someone who rarely sends people greetings. Instead, she decided not to send them more than twice a year.

Peace of Heart
 Single channel video
 2021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오늘도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멋진 날 되세요...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넘치는 날
되세요...

PRAY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레몬

레몬은 과거에는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수집가로 활동하며 특히 1970~1980년대 레트로 가젯에 애정이 깊습니다. 턴테이블, 붐 박스, 카세트테이프, 레코더 등 음향 기기뿐 아니라 전자 제품, 피겨, 로봇 등의 독특한 제품을 비슷한 취향을 가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공간 ‘레몬 서울’을 열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lemon_seoul

LEMON

Lemon used to be a designer and is a collector now. In particular, Lemon has a deep affection for the retro gadgets of the 1970s~1980s. Lemon has opened a studio called Lemon Seoul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similar tastes, not only sound devices such as turntables, boom boxes, cassette tapes, and recorders, but also electronic products, figurines, and robots that can be seen in museums.

Seoul
http://www.instagram.com/lemon_seoul

PRAYER&DESIRE 祈願·祈福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형태만 다를 뿐 세대를 거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클릭으로 만들어지는 밈은 그들만의 문화에서 확장되어 젊은 세대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과거를 여행하는 듯한 이미지와 화려한 색감, 자유로워 보이는 글자 속 메시지의 본질은 명절날 우리 가정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when one’s home is happy, all goes well.” The wishes for harmony, good health, and blessings of the family have continued throughout generations, only in different forms. Memes, which are carefully created by the elderly with wishes for each other’s wellbeing, has expanded from their own age group, permeati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nature of the messages in the images seemingly from the past, diverse colors, and free-looking characters resembles the image of our family on holidays.

기원과기복

레몬은 〈가화만사성〉을 통해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밈의 요소를 분리하고 재배치해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던 저화질 메시지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된 공간은 관람객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선사하고, 관람객들은 소위 어르신 문화로 치부된 밈 문화를 윤택하게 향유합니다.

Lemon planned the space by separating and rearranging each element of the memes with wishes, so the low-resolution messages seen through the mobile screen have been expressed in 3D. The space gives us another sense of something new. This enables the viewers to enjoy the meme culture, which was regarded as so-called senior citizen culture in the past.

가화만사성
CRT 모니터
가변크기
2021

Gawha'meme'sasung
CRT Monitors
Variable size
2021



텍스처 온 텍스처는 2015년부터 사진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COS, 이솜, JTBC, HYBE 등 다양한 규모의 브랜드, 작가, 디자이너와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협업했으며 《변화 구성》,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 등의 단독 전시 및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textureontexture.kr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디지털 인쇄, 한지
각 1800 × 550 mm
2021

인사말과 덕담, 미신과 잔소리의 경계를 미묘하게 오가는 어르신들의 안부 묻기. 조선 중기 학자들의 기록에도 “가족들의 잔소리가 지겹다.”라는 구절이 남아 있다 하니 기술의 발전으로 형태만 바뀌어왔을 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애정 어린 참견을 보내고픈 마음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텍스처 온 텍스처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는 글자와 그림이 결합한 민화인 문자도의 형식으로 어르신들의 생각과 염원과 미의식을 재해석합니다. 문자도의 주된 주제인 ‘효제충신예의염치’,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 우애를 다지며 나라에 충성하고

신의를 잊지 말고 예의 바르고 청렴하게 살 것’은 어르신 짤이 내포한 수많은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리라 짐작하며 보내는 ‘어르신 짤’ 속의 여러 상징과 요소—꽃, 풀, 약재, 건강 식품 등—들이 획과 획 속에 자리 잡으며 잔소리의 표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한편, ‘소불근학노후회’(少不勤學老後悔)는 잔소리의 대표적인 고사성어로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다소 서늘한 일침을 담고 있습니다.

TEXTURE ON TEXTURE

Texture on Texture has been working in Seoul since 2015. The studio carries out photography-related projects with a variety of brands and media, artists, and designers. It has participated in solo exhibitions and numerous group exhibitions.

Seoul
http://www.textureontexture.kr

Jan-sori
Digital print, hanji
each 1800 × 550 mm
2021

Older people ask after people as they subtly cross the lines between greetings—words of blessing, superstitions, and nagging (jansori). Even records from scholars in the mid-Joseon period show that they were tired of family members nagging them, so we can see that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offer affectionate messages in one way or another, although its style has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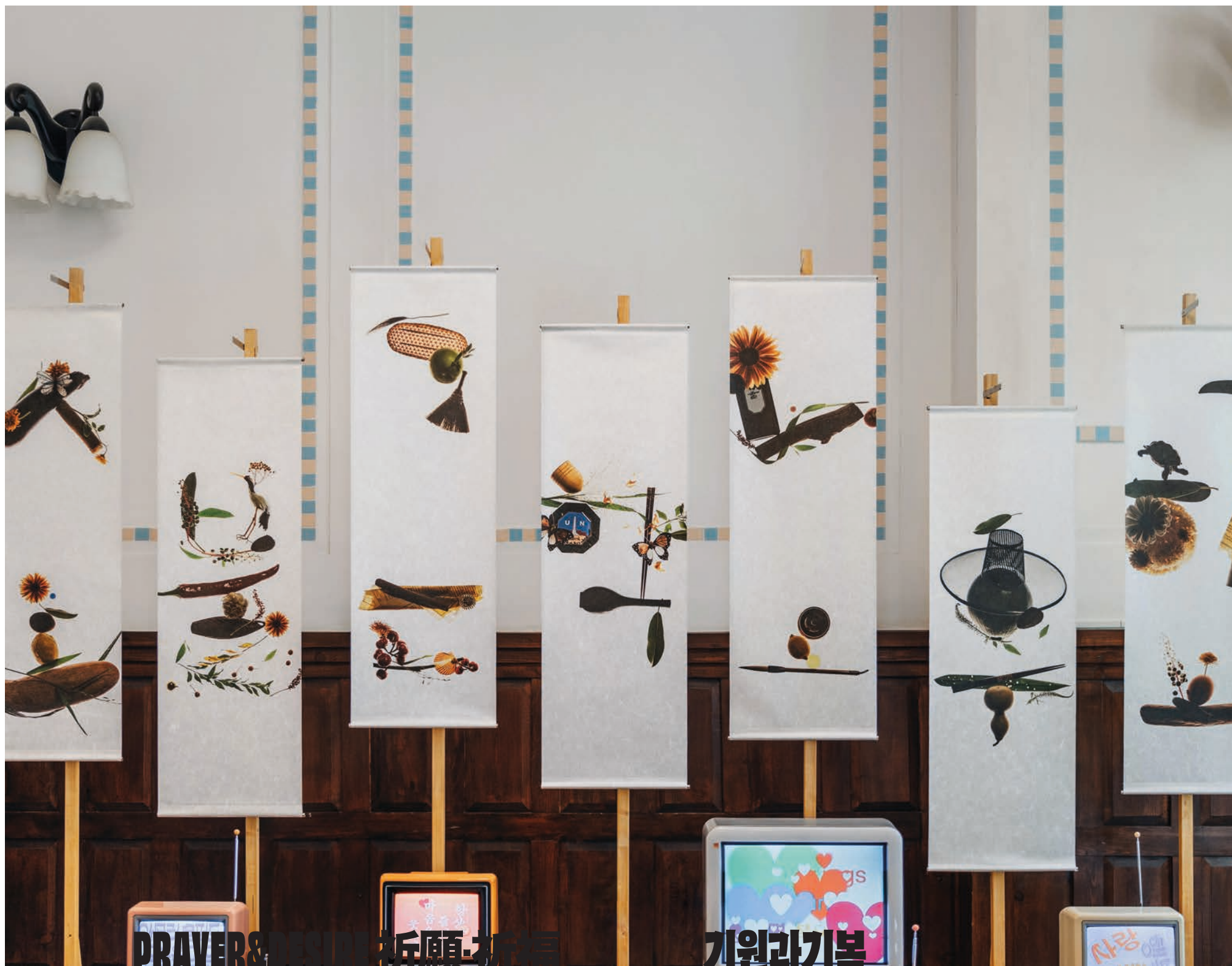
Jan-sori now takes the form of pictorial ideographs (munjado), reinterpreting the thoughts, aspirations, and aesthetics of senior

citizens. The main theme of munjado is to “be faithful to your parents, strengthen brotherhoods, be loyal to your country, never forget your fidelity, and live with good manners and integrity.” These are all connected with many meanings of senior citizen memes. Various symbols and elements in senior citizen memes (which the elderly send while expecting their family members will gladly receive them), such as flowers and grass, medicinal herbs and healthy foods, are placed in the strokes of the text, making the surface of the “nagging” more beautiful. The Chinese phrase “少不勤學老後悔” is a well-known idiom,

and something considered as nagging by the younger generation. It means that if you don’t study hard when you are young, you will regret it when you are old.

PRAVER&DESIRE 祈願·祈福

기원과기복



PRAYER&DESIGN 祈願 祈福

기원과기복



PRAYER&DESIRE 祈願 祈福

기원과기복

記錄宣傳
Registration
기록과 선언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기록과 선언’에서는 분열과 결실, 열정과 직관을 주제로 동시대 화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과 그림이 주고받은 이야기와 목소리를 다룬 ‘말하는 그림’, 바닷가의 암석화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관찰의 대상으로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흔적들’, 2015년 이후 나온 국내 도서 가운데 출간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시도를 통해 이후 북 디자인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모은 ‘생명 도서관’의 세 챕터로 구성되고, 일곱 팀과 마흔여덟 권의 도서가 참여합니다.

- 챕터 1
말하는 그림
- 챕터 2
흔적들
- 챕터 3
생명 도서관

The “Record and Declaration” part displays works with close observation and deep introspection on contemporary topics under the themes of division & fruition, and passion & intuition. This part consists of three chapters: “Picture Speech” is about stories and voices exchanged between texts and pictures; “Metamorphosis” approaches environmental issues as an object of observation by collecting and recording plastic waste that became hardened like rocks on the beach; and “Slanted Library” collects examples of books that have influenced changes in book design through extraordinary attempts at the time of publication since 2015.

- Chapter 1
Picture Speech
- Chapter 2
Metamorphosis
- Chapter 3
Slanted Library

RECORD&DECLARATION

책이나 포스터 등의 매체에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은 텍스트로 적힌 주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이 먼저 준비되고 그림은 그것을 해석하는 셈입니다. ‘말하는 그림’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를 해석한 텍스트가 관람객과 만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미지와 문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들이 관심 갖는 동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인권, 젠더 이슈, 뉴 노멀, 범유행, 부동산 문제 등—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선보입니다. 그림은 서로 연속되거나, 관련한 서사를 담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글과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야기를 만들고 소개해온 펜 유니온(김하나, 황선우)이 그림에 글을 보탰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관심사를 두고 그림과 글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 챕터가 글은 명료하고 이성적이며 그림은 모호하고 감성적인 표현이라는 고정 관념을 뒤집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게이브리얼 알칼라
니시야마 히로키
안드레아스 사무엘손
엔히 캄페앙
윤예지
오카와라 겐타로
펜 유니온

기획
이재민, 박이랑, 조효준

PICTURE SPEECH

Illustration works on media such as books and posters often express topics written in text using images. The texts are prepared first and illustrations interpret them. In “Picture Speech,” we change the order so that the viewer faces the pictures which had been prepared first and the texts that interpreted them. Through this, we want to experiment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images and texts. Illustrators from numerous countries present pictures that were created based on various issues in the contemporary era—ranging from human rights, gender issues, the New Normal, a pandemic,

and real estate. The pictures consist of five different sizes that contain consecutive or related narratives. Pen Union (Hana Kim & Sunwoo Hwang), a duo who have written and talked about many different ways of life and stories, add writings to these pictures. This chapter is a conversation between pictures and texts about issues that we can all relate to these days. In addition, we hope this chapter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verse the stereotype that texts are clear and rational while pictures are an ambiguous and emotional way of expression.

Gabriel Alcala
Hiroki Nishiyama
Andreas Samuelsson
Henri Campeã
Yeji Yun
Kentaro Okawara
Pen Union

Curation
Jaemin Lee, Eerang
Park, Hyojoon Jo

RECORD&DECLARATION

게이브리엘 알칼라는 미국 마이애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작한 밴드 활동을 통해 많은 투어를 경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에 몰두한 이후로는 애플, 뉴욕타임스, 나이키, 워싱턴포스트 등과 협업했습니다. 한가할 때는 강아지 시모어와 뛰놀거나 명상하며 휴식을 즐깁니다.

마이애미
<http://www.gabrielalcala.com>

GABRIEL ALCALA

Gabriel Alcala is an illustrator based in Miami, USA.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he started a band and did a lot of touring. Since beginning to get serious about his work, Alcala has done projects for Apple, New York Times, Nike, The Washington Post, and many more. He enjoys running, meditating, and hanging out with his dog Seym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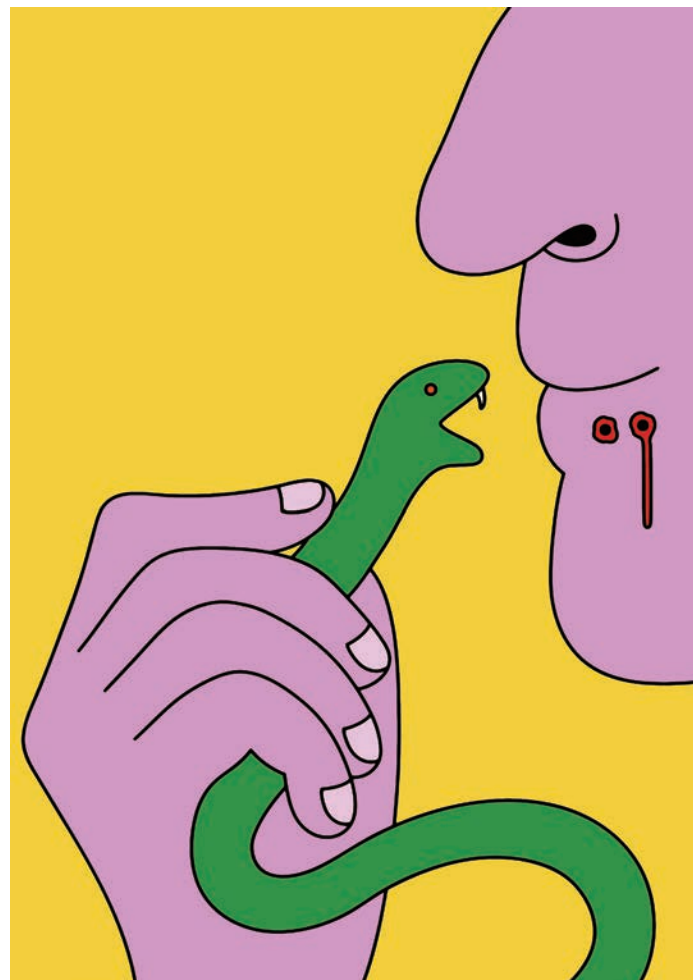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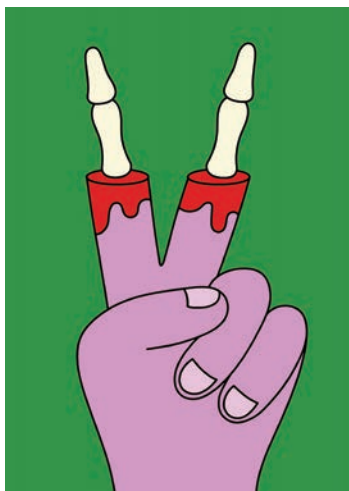
Miami
<http://www.gabrielalcala.com>

죽음과 함께 춤을
 피그먼트 인쇄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게이브리엘 알칼라는 모든 존재가 개별적이라는 환상과 의식을 다룬 다섯 점의 일러스트레이션 연작 〈죽음과 함께 춤을〉을 선보입니다. 작품은 물질적 몸으로 등장하는 존재에서 시작해 조금씩 미묘한 형태로 변하다 결국 죽음만 남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러시아의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작용해 작품 안에서 계속 다음 형태가 이어져나옵니다.

Dancing with Death
 Pigment print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Gabriel Alcala creates *Dancing with Death*, a series of 5 illustrations dealing with the humorous acceptance of mortality. The work begins with a material body and continues to change into a subtle form, and eventually, only the death remains. The illustrations act like a Matryoshka doll; the form continues in the following work.



기록과
선언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을 이후를 지켜볼 수 있었다. 죽은 몸은 발판에 놓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뼈만 남았다. 생전에 고통을 감냈던 피부색과 상관없이 최고, 단단하여, 대장적인 형태의 뼈는 그 사람의 생애보다 더 오래 놓여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기이한 감각을 일깨웠다.

다정한 눈빛이 있던 곳은 텅 빈 구멍이 되고, 단단한 근육도 주름졌던 피부도 모두 사라졌다. 뼈를 제외한 것들은 재빨리 새에게로, 맹수에게로, 벌레와 흙에게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다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났다.

현대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뼈를 볼 일은 극히 드물다. 그의 생애보다 오래 남는 것은 사진과 영상일 것이다. 대신 쉽게 풍화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남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사용한 칫솔 같은 것들. 플라스틱은 몇 백 년 동안 썩지 않는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칫솔은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남아 있다.

껍질은 깨어지고 세계는 망가진다.
모든 실패한 가능성과 잘못된
걸음은 어떤 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
오직 죽어버린 생명을 제외하면.

제 꼬리를 무는 뱀의 이미지는
순환을 상징한다. 뱀의 순환을 끊어
다른 존재들에게 독을 퍼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일지도 모른다.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니시야마 히로키(西山寛紀)는 단행본, 잡지, 광고, 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다마 미술대학교 그래픽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루의 일부』를 펴냈으며 전시 《좋은 일상》, 《작은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HB 파일 컴페티션과 미국 더 원 쇼에서 수상했으며, 도쿄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
http://hirokinishiyama.
tumblr.com

HIROKI NISHIYAMA

Hiroki Nishiyama is an illustrator based in Tokyo, Japan, and works in the fields of books, advertisements, magazines, and websites. He graduated from Tama Art University's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and earned his Ph.D. at the same university. He published *Parts Of Days* (2017) and has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s *Good Routine* (2020) and *A Little Pleasure* (2019). He won the Takayuki Soeda Prize at the Hb Gallery File Competition in Japan (2018) and the Merit Award at the One Show in New York (2017). 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Tokyo Illustrator Society.

Tokyo
http://hirokinishiyama.
tumblr.com

존재들

피그먼트 인쇄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니시야마 히로키는 인간 존재의 이미지를 다양한 꽃으로 그렸습니다.

1.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존재합니다.
2. 우리는 각자 가치관이 달라도 존재합니다.
3. 우리는 각자 개성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4. 우리는 각자 가진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5.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아닌 곳에 있다 해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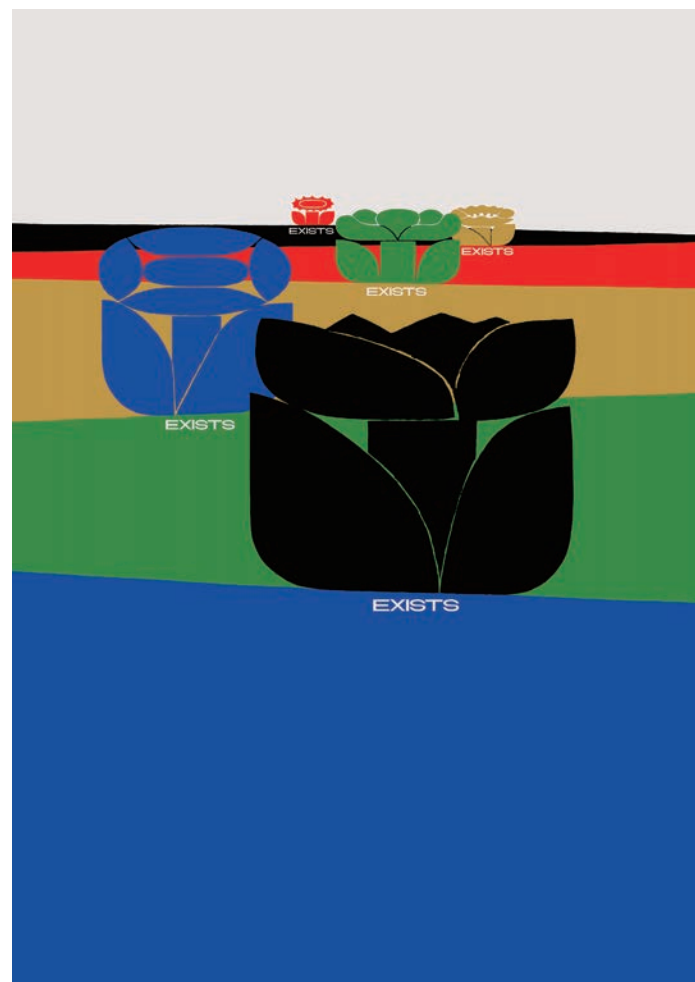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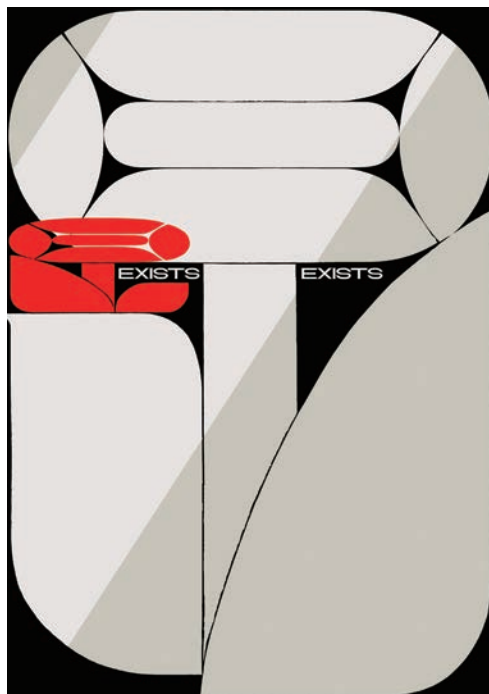
Exists

Pigment print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Everyone exists whether or not they are permitted by others. Hiroki Nishiyama drew the various flowers as the image of the existence of a human.

1. We exist among the various matters.
2. We exist even if our values are different.
3. We exist regardless of our individuality.
4. We exist regardless of the scale of power.
5. We exist even if we are in the place where we were not born and grew up.

RECORD&DECLARATION



기록
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차별금지법안

발의정보: 장혜영 의원 등 10인

제2101116 (2020. 6. 29.)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안드레아스 사무엘손은 스웨덴 예테보리에 거주하는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 선, 재질, 형태의 여러 특성을 탐색하고, 도전하고, 대조함으로써 '복잡한 단순함'을 만들어냅니다.

예테보리
<http://www.andreas-samuelsson.com>

ANDREAS SAMUELSSON

Andreas Samuelsson is an image creator living in Gothenburg. With his seemingly stripped-down images, he makes the complicated simple and the simple a little more complicated by exploring, challenging and contrasting the representative, associative and concrete properties of line, surface and shape.

Gothenburg
<http://www.andreas-samuelsson.com>

사람의 몸

피그먼트 인쇄
 420 × 297 mm,
 594 × 420 mm,
 840 × 594 mm,
 1188 × 840 mm,
 1680 × 1188 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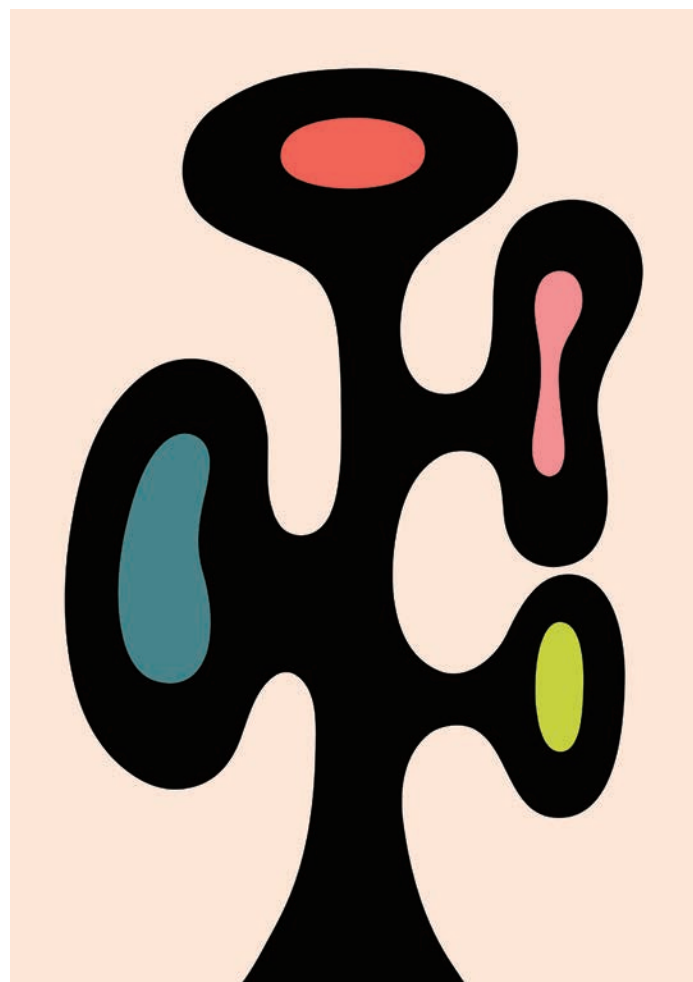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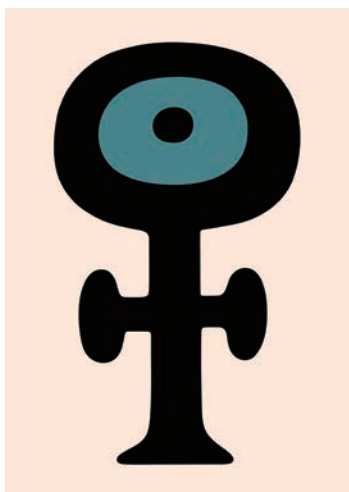
〈사람의 몸〉은 추상적인 이야기이자 인체에 대한 헌사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사물의 일부를 보고, 부분들을 결합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짓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리듬과 균형이 자라나고, 서서히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안드레아스 사무엘손은 표준 규격 백지에서 출발해 상상력으로 지면을 채우기를 즐깁니다. 우선 빠르게 선을 긋고, 옅은 느낌이 들 때까지 작은 디테일들을 갈고닦습니다. 솔직함을 느낄 때까지, 현실에 닿은 느낌. 인간이 될 때까지.

The Human Body

Pigment print
 420 × 297 mm,
 594 × 420 mm,
 840 × 594 mm,
 1188 × 840 mm,
 1680 × 1188 mm
 2021

The Human Body is an abstract story and a dedication to the human body. It's a thought that leads to another one. A way of seeing things in parts put them together, and build up to something new. It is rhythm and balance that grows up; Slow energy. Andreas Samuelsson likes to start from a standard format, a blank sheet, and fill it with imagination. He draws up lines very fast, and after that, he shapes up small details until it feels right. Until feeling honest and realistic. Human.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명백했습니다.
전에 있던 자가 그대로 있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했지요.
누군가는 더 멀리까지 갈 것이고,
누군가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며,
누군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종족으로,
후에 그들로부터 여러 다른
종류들이 진화해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성과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요.
따라서 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족임에도, 그다지
뚜렷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주위에는
이 세상이 변화 과정에서 취할 수
있었던 형태들, 그런데 어떤 우연한
동기로 인해서든 또는 본질적인
모순으로 인해서든, 취하지 않았던
그 모든 형태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형태들,
되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형태들이었습니다.

“모래, 모래 아니다.”

나는 먼저 주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그녀는
그렇다고, 이해했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바위, 바위 아니다.”

나는 그런 화제로 계속 대화하려고 말했지요.
당시는 많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너 나 아니다.”

나는 몸짓으로 설명하려 했지요.

누가 괴물이고 또 누가
괴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혹은
얼마 전에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괴물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괴물인 것입니다.

같은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우주 만화』 중에서 여러 곳을 발췌한 것이다. (김운한 옮김, 일민책방)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엔히 캄페앙은 브라질 상파울루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이자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2D 애니메이션 애호가입니다. 벨라스 아르테스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집중해 애플, 코카콜라, 뉴욕타임스, WGSN, 퀴츠, 스냅챗 등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연, 퀴어 커뮤니티, 브라질에서의 삶, 만화 등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작품에는 생생한 색상, 기발함, 마법과 초현실주의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상파울루
<http://www.henricampea.com>

HENRI CAMPEÃ

Henri Campeã is a Brazilian visual artist, freelance illustrator, and 2D animator enthusiast in São Paulo. Graduated in Graphic Design from the Belas Artes University of São Paulo, his work today is focused on illustration. He usually works with clients such as Apple, Coca-Cola, The New York Times, WGSN, Quartz, Snapchat, and many more. His primary source of inspiration comes from nature, the Queer community, living in Brazil, cartoons, etc. His work combines vivid colors, ingenuity, magic, and surrealism.

São Paulo
<http://www.henricampea.com>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개화〉는 퀴어 휴머노이드 식물이 개화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자라기 시작하는 묘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개화한 식물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억압을 표현한 붉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억압은 세 번째 그림에서 절정에 달해 식물이 자신의 주변에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 방어막은 네 번째 그림에서 식물과 함께 커지며 억압을 밀쳐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식물과 공간은 아무런 억압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만개합니다.

엔히 캄페앙은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 및 코드에 반대하며 작가 자신의 경험과 공명하는 작품을 통해 자기 삶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려내고자 합니다. 자기 인식과 표현을 주요한 저항의 도구로 삼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며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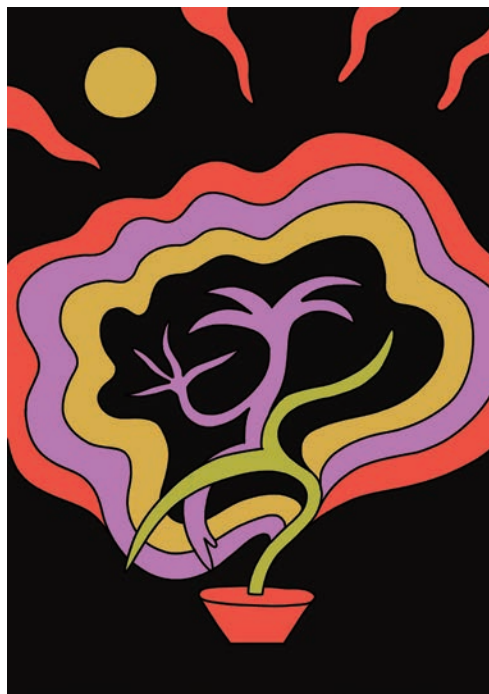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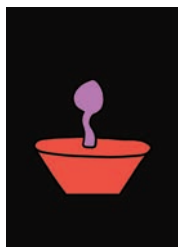
개화
 피그먼트 인쇄
 420 × 297 mm,
 594 × 420 mm,
 840 × 594 mm,
 1188 × 840 mm,
 1680 × 1188 mm
 2021

Bloom is a piece centered on the blooming process of a queer humanoid plant divided into five stages and periods. In the first canvas, they are a seedling that starts to grow. In the second canvas, some red shapes (representing oppression) appears as the plant starts to bloom and show their personality. The oppression hits its peak on the third canvas, and the plant creates a defense field around them. This field grows with the plant on the fourth canvas, pushing back the oppression. At the final stage, they are completely grown expressing their identity without any oppression left.

As a non-binary person, Henri Campeã wants to create a piece that resonated with his experience dealing with gender norms and binary codes. He portraits how it affected him during his life. Self-knowledge and expression was an important tool for him to build resistance to navigate society standing for what he is.

Bloom
 Pigment print
 420 × 297 mm,
 594 × 420 mm,
 840 × 594 mm,
 1188 × 840 mm,
 1680 × 1188 mm
 2021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그녀는 1934년에 태어났다.

“난 페미니스트야.
성차별에 맞서 싸울 거야!”
“아니, 그 전에 넌 흑인이야.
인종차별에 맞서는 게 먼저야.”

“난 흑인이야.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거야!”
“아니, 너는 여기 쫓겨. 너는 동성애자니까.”

“넌 이상하고 징그러워.
넌 잘못됐어.
넌 비정상이고 까다로워.
넌 열등해.
넌 병들었어.
우리 눈앞에 보이지 마.
침묵해.
사라져버려.”

혐오의 목적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분노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제게 빛이 된 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제게 불이 되어 준 것도 바로 분노였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의미야!”

오드리 로드는 흑인이자 페미니스트,
동성애자이자 암 투병 생존자로서
일생을 혐오에 맞서 싸운 시인이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아프리카 이름은 감바 아디사
Gamba Adisa, ‘전사, 자신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 준 여자’였다.
이 글은 오드리 로드의 생애와
그가 남긴 말을 재구성한 것이다.



윤예지는 출판,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MBC 라디오 스타 로고, 나이키 팝업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카라 동물 영화제 포스터 등을 작업했습니다. 『땅콩나라 오이제국』, 『12Lands』, 『산책가자』 등의 그림책을 만들고, 『마당을 나온 암탉』 20주년 특별판에 그림을 그리는 한편, 그린 에너지 캠페인을 위한 그림책 프로젝트 『Is This My Home?』를 진행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과 감정의 흐름을 이미지로 기록해두며, 그림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seeouter
space.com

“락다운 속에 갇힌 채로 핸드폰 너머만 바라본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해야 할 것만 같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주식에,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 붉은 광기와 푸른 슬픔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탈진하고 좌절한다. 모두들 달에 가자고 외친다. 영혼을 끌어모아 나도 달에 갈 준비를 했다. 또 한 번 좌절한다. 나만 바보 같다. 그 사이에 집값은 점점 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하늘을 나는 집은 동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벼락 거지가 된다고들 한다. 불안하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다.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에 위로받고 싶다.”

윤예지는 어린 시절 〈2020 우주의 원더키디〉를 보며 미래의 202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난 2021년, 우리는 팬데믹에 갇혀 있습니다. 작가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씁쓸한 단상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두 배씩 커지는 그림 크기만큼 점점 묵직해지는 마음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시대의 단상
피그먼트 인쇄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YEJI YUN

Yeji Yun is an illustrator. She works with clients from many countries and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shing, posters, and advertisements. Well-known works of hers include the logo design of MBC's show Radio Star, pictures for one of NIKE popup stores and Apple's App Store, and the KARA Animal Film Festival. She also made picture books such as *Peanutborough Cucumberland*, *12 Lands*, and *Let's Go for a Walk*, and worked on illustrations for 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of *Daisy*, *A Hen into the Wild*. Yun conducted a project for a picture book *Is This My Home?* for a Danish energy

company, as part of Ørsted's green energy campaign, in collaboration with an advertising company, Wieden+Kennedy Amsterdam. She is interested in various changes in the world, so she is exploring whether she can convey messages that affect the world through illustrations.

Seoul
http://www.seeouter
spa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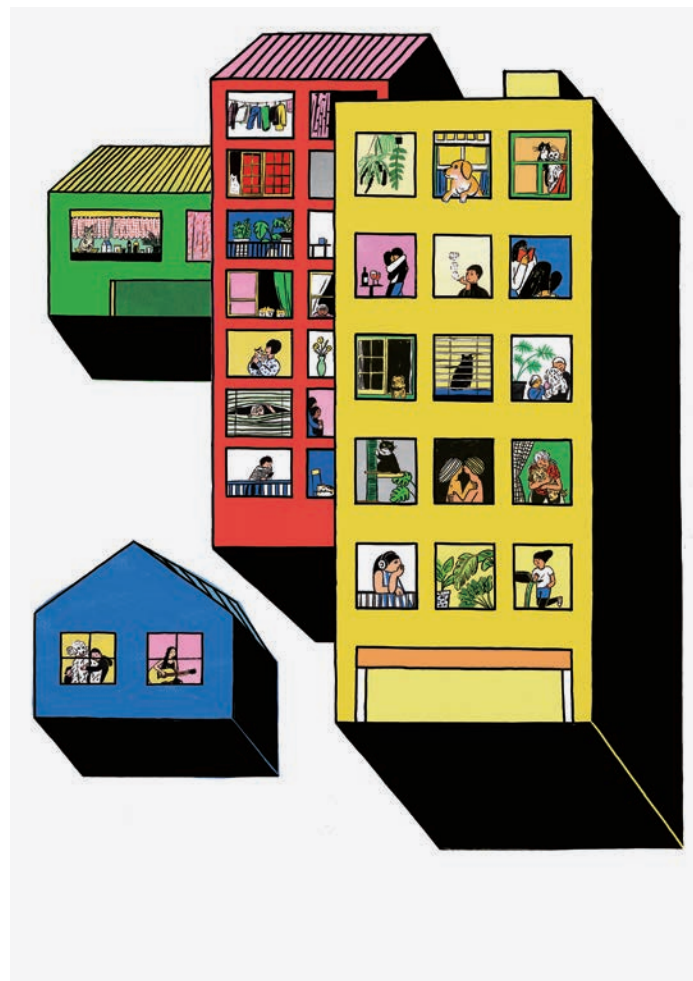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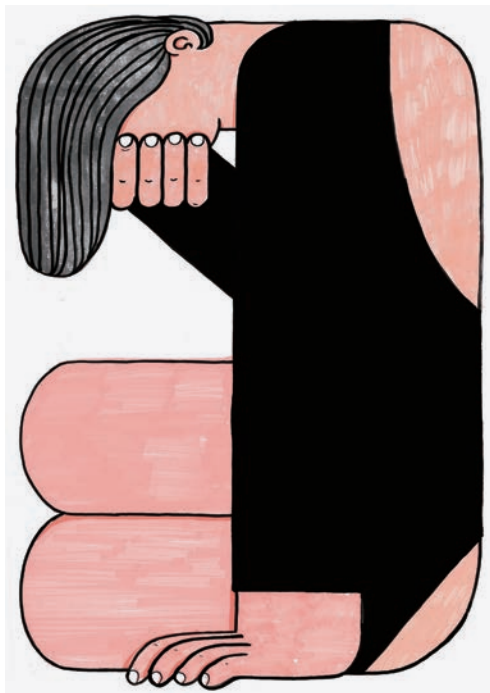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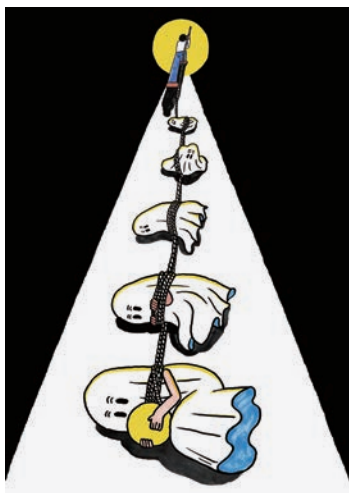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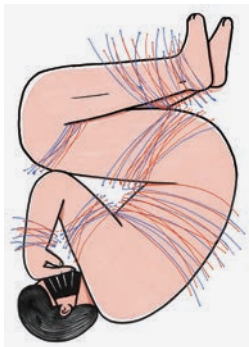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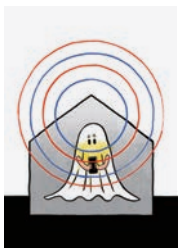
“Today, we became trapped in a pandemic and only look at our cellphones. When I hear other people's stories, I feel like I should also follow this trend, and I'm the only one falling behind. I started investing in stocks and digital currency. After experiencing red madness and blue sadness back and forth, I eventually became exhausted and frustrated. When everyone shouts that we should go to the moon, I struggle hard and prepare to go to the moon. In the meantime, the prices of houses are rising uncontrollably. I thought a flying house was only a scene from a fairy tale. They say if you don't do something

about it, you will become a beggar out of nowhere. I'm nervous. How can I survive in the future? I feel like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 want the world to comfort me by saying that what happened is not my fault.”

Yeji Yun watched *Wonderkid of the Universe 2020* and imagined what the future in 2020 would be like in her childhood. She painted pictures that show the bitter aspects of this era, full of surprises. As the size of the next painting doubles, it makes the viewer's heart heavier.

Fear of Missing Out
Pigment print
420×297 mm,
594×420 mm,
840×594 mm,
1188×840 mm,
1680×1188 mm
2021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달에 도착한 그들이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전국의 집값이 이번 달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셋값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며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연합뉴스 2021. 8. 29.)

『10월51억』

7 29 37 5 16 12
『10월51억』

사흘 동안 전세에 50% 이상
가 오른 집값이 10월 51억
가 오른 집값이 10월 51억

10월 51억



오카와라 겐타로(大河原 健太郎)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2011년 도쿄 폴리텍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한 이후 다양한 국제 전시에 참여했으며 다섯 권의 미술서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창작이 사랑의 표현이며 서로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각 작품은 초현실적이면서도 친숙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인간, 다른 피조물, 의인화된 사물들의 혼합물은 친밀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모두가 사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밝은 색상과 양식화된 모티프의 세계 속에서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터넷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보편적인 인간성을 다시 떠올려보라고 격려합니다.

도쿄
http://www.kentaro0308.com

KENTARO OKAWARA

Kentaro Okawara is a painter and sculptor based in Tokyo, Japan. Since graduating from the College of Arts, Tokyo Polytechnic University in 2011, He has been exhibited internationally and had five 'art books' published. Okawara's work explores his long held belief that making art is an expression of love and a means to connect with each other. Each piece presents a surreal yet familiar cast of characters; a cocktail of humans, creatures, and personified object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intimate and bizarre ways to create a world that can be endearingly engaged by all. Within Okawara's world of bright

colours and stylised motifs he addresses the importance of direct eye-to-eye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In this digital age where we seem to exchange our thoughts and feelings primarily over the Internet, Okawara's work encourages us to think again, cast aside our differences and re-connect to our shared humanity.

Tokyo
http://www.kentaro0308.com

오카와라 겐타로는 2020년 6월에 이 연작을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연습처럼 그려온 그림입니다. 작가는 해외에 나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얻습니다. 영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은 후로는 내내 스튜디오에서 작업해왔습니다.

올해 7~8월에 작업한 작품 가운데 다섯 점을 골랐습니다. 제목이 없는 이유는 제목을 지으면 작품이 언어에 고정되어 그 다면성을 잃어버리는 탓입니다. 작가는 사랑을 그리며, 사랑이 다양하기를,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다양하기를 바랍니다. 관람객들이 이 그림을 즐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제(7월부터 8월까지)
피그먼트 인쇄
297 × 420 mm,
420 × 594 mm,
594 × 840 mm,
840 × 1188 mm,
1188 × 1680 mm
2021

Kentaro Okawara started this series in June of last year. He has been drawing them as a kind of training in his days in the studio. He loves to go abroad to see and experience things he does not know. It inspires him to hang out with his friends to create works. Since he realized that inspiration comes from the inside, not the outside, he works in the studio all year.

He selected five pieces from the work he did between July and August of this year. There is no title for them because He wants to avoid losing diversity through the images of words. He paints love and hopes that love is diverse and that the way of seeing is also various.

Untitled (Selected Daily Work, July-August)
Pigment print
297 × 420 mm,
420 × 594 mm,
594 × 840 mm,
840 × 1188 mm,
1188 × 1680 mm
2021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
머리카락과 발가락을
잃어버릴지.
그들이 그이
금과 벌과 지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네이 끝없이
슬픔을 찾았다.
세상의 그 어떤 꽃잎 하나도
그네의 슬픔을 위해
생겨나지 않았다고 편이
주여치 않았다.

마루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그네이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그네의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작가 겸 진행자인 김하나는 제일기획, TBWA 코리아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말하기를 말하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공저), 『힘 빼기의 기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농담』, 『15도』를 썼고, 예스24의 팟캐스트 〈책읽아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여러 해 진행했습니다. 작가이자 인터뷰어인 황선우는 잡지를 만들고 인터뷰하는 일을 20년 동안 했고, 그중 패션 매거진 『W Korea』에서 가장 오래 일했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공저)를 썼고, 인터뷰집 『멋있으면 다 언니』가 있으며 김하나와 함께 유튜브 채널 〈펜 유니온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pen.union>

PEN UNION (HANA KIM, SUNWOO HWANG)

Hana Kim is a writer, and moderator. She has worked as a copywriter at Cheil Worldwide Inc. and TBWA KO-REA. She is the co-author of *Two Women Live Together*, and the author of *Talking about Talking*, *The Art of Relaxing*, *My Favorite Jokes*, *15 Degrees*. She has hosted a podcast series for an online bookstore, Yes 24, for many years. Sunwoo Hwang is a writer and interviewer. She has worked on magazines and interviewed people for 20 years. Of all

her jobs, the longest-term job was for the fashion magazine *W Korea*. She is the co-author of the book *Two Women Live Together*, and the author of an interview book called *Every Girl is an Older Sister If They Are Cool*. She runs a YouTube channel titled *Pen Union TV* with Hana Kim.

Seoul
<http://www.instagram.com/pen.union>

‘일러스트레이션’은 종종 ‘삽화’로 번역되곤 합니다. 텍스트 사이에 삽입되어 글의 이해를 돕거나 정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중심을 이루는 것은 텍스트이며 일러스트레이션은 부가적이라는 암묵적이고 관습적인 위계 감각, 텍스트가 먼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를 해석하는 작업이라는 선후 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하나와 황선우로 이루어진 펜 유니온은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의 관계를 뒤바꿉니다. 그림 작가 여섯 명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석하고, 상상하고, 글을 짓고, 현실을 재구성해 다리를 놓거나 자료 등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보내온 명료한 의도를 일부러 비틀기도 하고, 꽤 멀찍한 곳에 기둥을 박고 작품의 끄트머리를 슬쩍 묶어 영역을 확장해보려 합니다. 중심을 차지한 적이 없기에 경청의 대상이 되지 못한 존재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이 ‘삽문’ 작업은 기존 글쓰기 방식과는 제법 다릅니다. 일종의 해방감과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그럴 때 가장 흥미롭다는 것을.

먼 곳에 기둥 박기
2021

Illustrations refer to inserted pictures between texts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text or to form a sentiment. In this explanation, there is a sense of implicit and customary hierarchy that text is central and the illustration is additional. The definition also reflects the order of text coming first and then illustration interpreting it.

Pen Union rever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illustration. When six illustrators first worked on illustrations, they interpreted them, imagined and wrote about them, reconstructed reality, built bridges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or added notes. In the process, they

deliberately twist the clear intentions sent by an illustrator and t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work by considering an irrelevant topic like building a post in the distance and then connecting part of the illustration with it. This work of “inserting texts” by amplifying unheard voices of pictorial elements, which had never taken the center stag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riting method, so it is a sense of liberation and anxiety at the same time. Writing is the most interesting when that happens.

Posts in a Distance
2021

RECORD & DECLARATION

아주 특별한 사형집행 가족이나
사형하는 이의 죽음 이후를
지켜볼 수 있었다. 출근 길은
평범해 보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 죽은 것이다. 출근에 집을
감다만 피복하고 상복이 되고,
단단하고 대장적인 형태의 옷은
그 사람의 생애보다 더 오래
붙어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살에 대한 기이한 감각을 일깨웠다.

화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도 아주 많이. 이를테면
사용한 칫솔 같은 것들.
몇 백 년 동안 썩지 않는다.
만들어진 플라스틱 칫솔은
어딘가에 남아 있다.

이외한 것들은 재빨리
으로, 맹수에게로, 벌레와
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났다.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
는지 카락과 발가락에
있어 버릴지.
그녀의 나이
금과 벽과 지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누가 괴물이고 또 누가
괴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혹은
얼마 전에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괴물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괴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민호의 소설 '무주 만화' 속에서 여러 곳을 여행한 것이다. (김민호 원고, 정민재)

RECORD & DECLARATION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문자’는 인간이 자연에 남기는 흔적이 되고, ‘문자와 생명’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흔적과 자연’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변화시켜 남긴 흔적들이 인류세의 신생 문자로 읽히는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장한나는 〈뉴 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합니다. 그는 인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자연을 신생태계로 바라보고 이전에 없던 변화된 자연물인 ‘뉴 락’을 추적하고 채집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작가의 채집과 기록은 새로운 문자를 발견하는 행위가 되고, 관람객들은 채집된 신생 문자가 전하는 경이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장한나
기획
이장섭

METAMORPHOSIS

From nature's perspective, written characters become traces that humans leave in nature, and the theme of "Typography and Life" can be interpreted as a relationship between human traces and nature. The current era in which human beings are extremely transforming the Earth is called the Anthropocene. Thus, it is possible to imagine that the traces of our changing nature are considered as new characters of the Anthropocene. Artist Hanna Chang

embodies this idea through *New Rock*. Chang looks at nature with human beings' active involvement in it as a new ecology, and has been working on tracking and collecting "new rocks" that are unprecedentedly changed natural materials. In this chapter, the artist's collecting and recording become the act of discovering new characters, and viewers decipher the phenomenal warning messages from the new characters gathered by the artist.

Hanna Chang
Curation
Jangsub Lee

RECORD&DECLARATION

장한나는 삶에서 만나는 환경 문제를 관찰하며 환경 문제를 경고하거나 고발의 주제로 보지 않고 미적 연구 또는 관찰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태어난 돌연변이 식물을 재현한 〈이상한 식물학〉(2016), 사물이 소비되고 버려진 뒤의 이야기에 주목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카나페〉(2017)에 이어 암석화한 플라스틱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뉴 락〉(2017~)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new___rock

HANNA CHANG

Hanna Chang continues to work by obser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everyday life. She does not consider environmental issues as the themes for warning or accusation, but sets them as subjects for aesthetic research or observation. *The Strange Botany* (2016) series recorded mutant plants caused by nuclear generation, and *Micro Plastic Canapé* (2017) focused on the story after things are consumed and abandoned. Currently, she is conducting the *New Rock* project (2017~present) to gather and observe plastics that have become hardened like rocks.

Seoul
http://www.instagram.com/new___rock

〈뉴 락 표본 2017~2021〉은 암석화한 플라스틱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이 한순간 사용되고 순식간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땅에 묻히고 바다에 버려져, 세월이 흐르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연과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연의 대척점으로 존재하던 플라스틱이 지질의 일부가 되고 생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장한나는 지난 5년 동안 인천, 고성, 강릉, 울산, 신안, 부산, 제주도 해변을 돌아다니며 돌처럼 변한 플라스틱을 '뉴 락'이라는 이름으로 수집해왔습니다. 〈뉴 락 표본 2017~2021〉은 작가가 지금까지 채집한 뉴 락 일부를 발견 지역, 발견 시기, 크기, 무게 등의 정보와 함께 소개합니다. 1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생산된 플라스틱이 수많은 풍화 작용 속에서 암석과 같은 형태로 다시 태어났음을 감각하는 순간 관람객은 이미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뉴 락 표본 2017-2021
수집된 플라스틱
가변크기
2021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New Rock Specimen 2017~2021 is a project to collect and observe plastics that became rocks. A huge amount of plastics is used every day for a moment and thrown away in an instant, then buried in the ground or thrown into the sea. Over the years, plastics become part of nature and return to us. It seemed impossible to mix plastics with nature, as plastics exist as the antipode of nature, but they have become part of geology and an ecological space today.

For the past five years, Hanna Chang has been wandering around beaches in regions such as Incheon,

Gyeong, Gangneung, Ulsan, Sinan, Busan, and Jeju Island to name and collect stone-like plastics as "new rocks." *New Rock Specimen 2017~2021* introduces some of the new "rocks" that she has so far collected from nature, along with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date of discovery, size, and weight of each item. While sensing that plastic objects produced without a millimeter of error have been reborn as rocks amid weathering, the viewers recognize that the boundaries between the natural and the artificial have already been torn down.

New Rocks Specimen
2017-2021
Collected plastic pieces
Variable size
2021

RECORD&DECLARATION











생명은 세포로 된 조직체에서 분할하고 전이되며 변화를 시작합니다. 책은 생각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글자의 조직체이며, 북 디자인은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수 세기 동안 북 디자인은 원칙을 내세우며 책다움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을 조직하고 축적해왔습니다. 현대의 북 디자인이 과거로부터의 문법을 답습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디자이너는 변이되어 생명을 확장하는 세포처럼

전통과 관습에서 빗겨난 시도로 책의 낯선 변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생명 도서관'에서는 변종으로서의 북 디자인을 전시합니다. 2015년 이후 한국에서 출간된 책 중 표지와 내지 영역에서 비관습적 북 디자인의 시도를 수집하고 분류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존재한 '최소한'의 규칙 및 정보에 관해 질문하고, 읽기와 보기의 경계에서 비스듬히 어긋나 있는 책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기획
이재영(6699프레스)

SLANTED LIBRARY

Life divides, transfers, and begins to change starting with a single-celled organ. A book is a structure of types that leads to thoughts and practices, while book design is a creative process that brings a book to life. For centuries, book design has organized and accumulated rules to secure the true nature of books by advocating principles. It has become natural for modern book design to follow traditional ways of design in order to survive. At the same time, designers constantly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radition and customs like cells

that mutate and expand life, often creating unfamiliar "variants" of books. "Slanted Library" exhibits book design as variants. This chapter collected and classified unconventional designs that have broken away from traditional rules of design both in cover and page designs among books published in Korea since 2015. We would like to ask questions about the minimum rules and information that have been accepted natural, and look at books that are obliquely off the border between reading and viewing.

Curation
Jaeyoung Lee
(6699press)

'생명 도서관'은 섹션 1: 내지,
섹션 2: 표지로 나뉩니다.
아래 키워드는 수집한 책의 분류
체계이며, 책을 구분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섹션 1: 내지

이질적 조판
.....
돋움체 시 조판
.....
비대칭적 본문 조판
.....
제목용 글꼴로 본문 조판
.....
장식용 글꼴로 본문 조판
.....
하나의 글꼴로 본문 조판
.....
가로쓰기 전용체로 세로쓰기 조판
.....
본문과 각주 조판 통일
.....
본문 가림
.....
본문 위계 변형
.....
본문에 이미지 삽입
.....
좁은 여백
.....
배면 활용
.....
엑스트라 텍스트 활용
.....
문장부호 변형
.....
장식적 쪽번호
.....
쪽번호 강조
.....

섹션 2: 표지

의도적 오류
.....
위트
.....
맥락 없음
.....
위계 없음
.....
제호 및 정보 없음
.....
글꼴 특징 강조
.....
하나의 글꼴만 사용
.....
낯선 이미지를 조합
.....
이질적 물성과 결합
.....
분책과 합권 방식
.....
바코드 위치
.....
본문 일부 활용
.....
목차 활용
.....
특수지 활용
.....
띠지 활용
.....
재킷 활용
.....
접지선 활용
.....
툼스 활용
.....

"Slanted Library" consists
of Section 1: Body pages
and Section 2: Cover.
The following keywords are
classification of collected
books, which were utilized as
categorization tools.

Section 1: Body pages

Disparate typesetting
.....
Sans-serif typesetting
for poem
.....
Asymmetrical straight matter
.....
Straight matter
with a title typeface
.....
Straight matter
with a decorate typeface
.....
Straight matter only
with a single typeface
.....
Vertical typesetting with
a typeface designed exclu-
sively for horizontal writing
.....
Uniform typesetting on
body text and footnote
.....
Body text partially hidden
.....
Variation on hierarchy
of body texts
.....
Inserting an image
into body text
.....
Narrow margin
.....
Printed on spine
.....
Using extra text
.....
Modified punctuation marks
.....
Decorative page numbers
.....
Stress on page numb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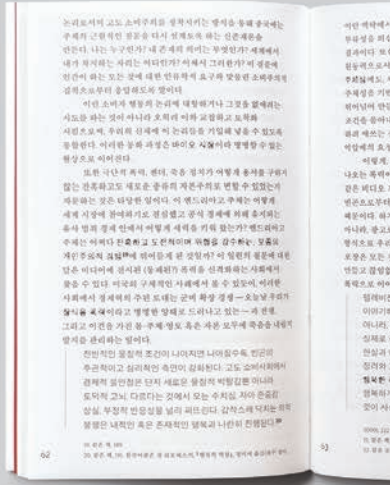
Section 2: Cover

Intentional error
.....
Witty
.....
No context
.....
No hierarchy
.....
No title or information at all
.....
Stress on typeface features
.....
Applying only
a single typeface
.....
Unfamiliar images mixed up
.....
Heterogeneous properties
combined
.....
Ways of fascicle binding and
assembled volume
.....
Bar-code point
.....
Quoting a part of body text
.....
Applying table of contents
.....
Adopting specially
made paper
.....
Book band option
.....
Book jacket attached
.....
Paper folds applied
.....
Processed with Thomps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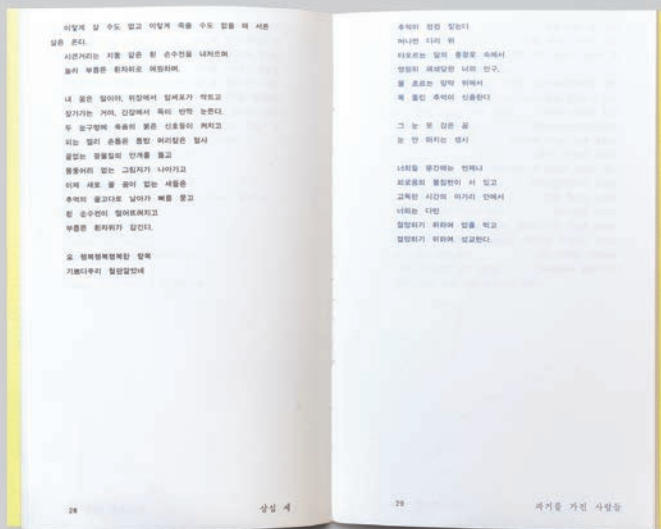
하룬 파로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경수, 프론트도어 ©MMCA
 2019, 188×230×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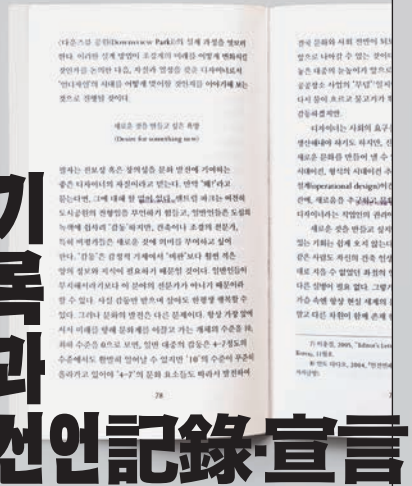
고어 자본주의
 ©유한선 ©워크룸 프레스
 2021, 124×188×16mm



이 시대의 사람 최승자
 ©김동신 ©문화과지성사
 2021, 130×205×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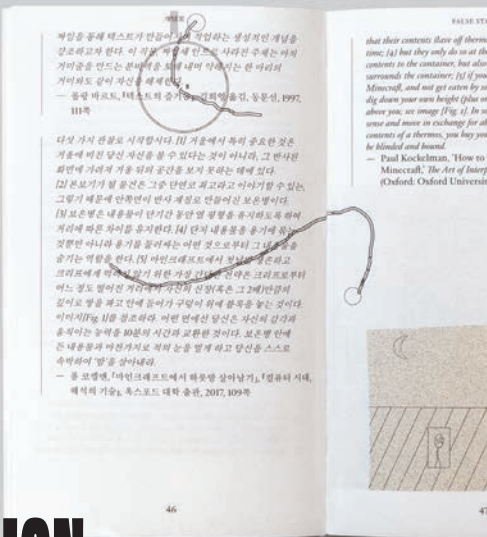
엘터너티브 네이처
 ©유윤석 ©미디어버스
 2016, 105×172×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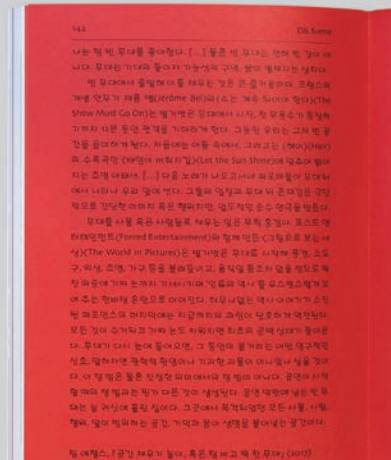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정재환 ©사월의눈
 2017, 210×280×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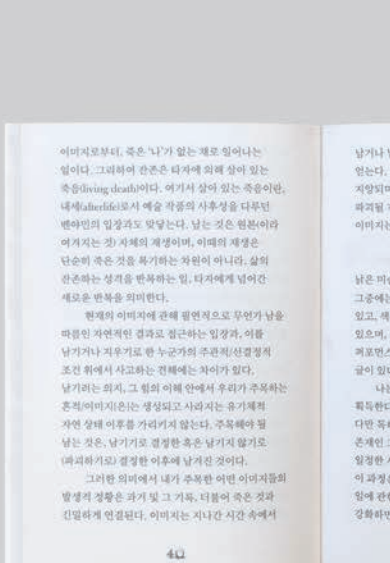
개별꽃
 ©신신 ©미디어버스
 2020, 110×180×12mm



옵신 7호
②슬기와 민 ②스펙터 프레스
2017, 138×204×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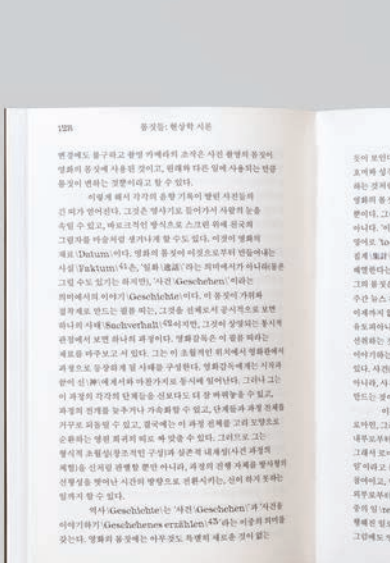
동물성의 찬상
②강문식 ②미디어버스
2021, 105×150×7mm



북해에서의 한해
②신덕호 ②현실문화A
2017, 154×216×17mm



몸짓들
②황석원 ②워크룸 프레스
2018, 124×188×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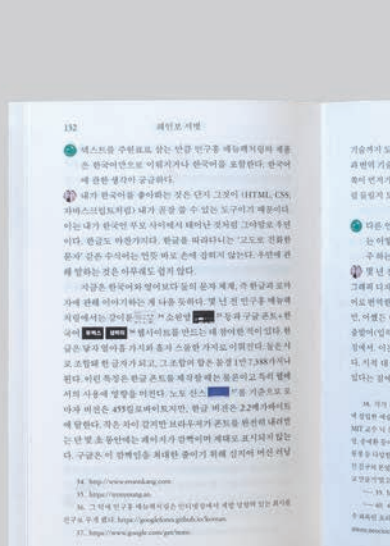
220

글짜서 10: 안 치홀트
②김병조 ②안그라픽스
2015, 170×240×2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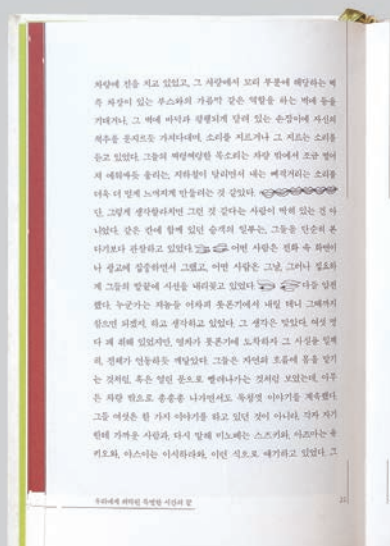


선인記錄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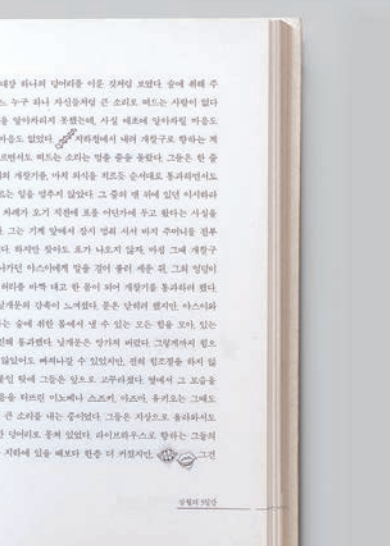
레인보 서벗
②슬기와 민 ②작업실유령
2020, 120×189×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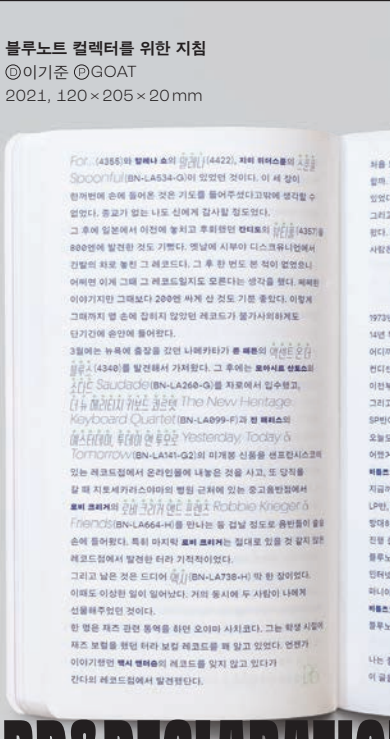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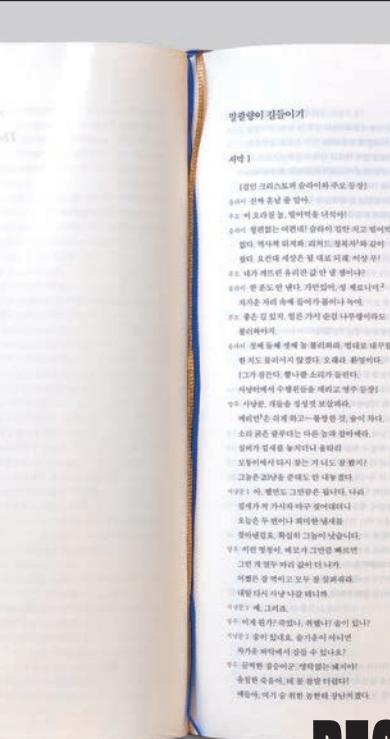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시간의 끝
②안지미 ②알마
2016, 136×220×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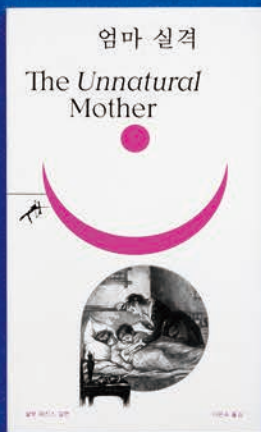
몸짓들
②황석원 ②워크룸 프레스
2018, 124×188×17mm



221



↓ 엄마 실격
©워크스 ©민음사
2020, 113×188×13mm



↓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워크스 ©민음사
2020, 113×188×1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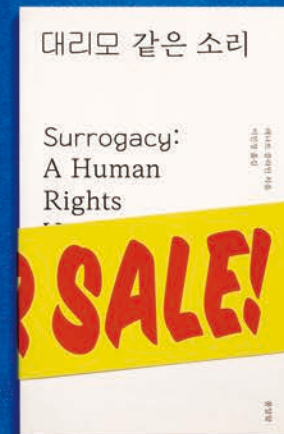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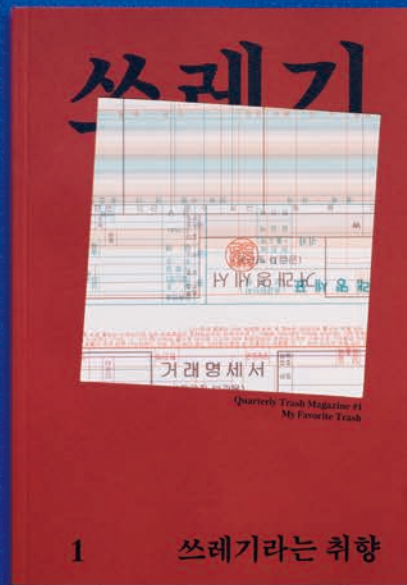
←← 법 앞에서
©이기준 ©민음사
2017, 113×188×12mm

←← 이것은 시를 위한 강의가 아니다
©이기준 ©민음사
2019, 113×188×11mm

← 공간 디자이너: 김세중, 한주원
©권아주 ©프로파간다
2018, 124×203×1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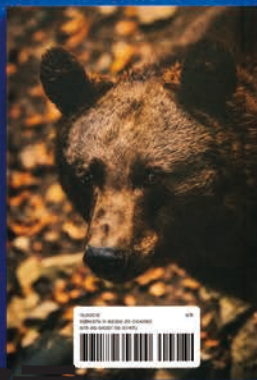
↳ 감정화하는 사회
©서주성 ©리시들
2019, 128×200×19mm

↓ 쓰레기 1호
©DDBBMM ©저스트 프로젝트
2018, 180×255×15mm



↑ 대리모 같은 소리
©우유니 ©불일림
2019, 120×190×15mm

← 스스로 조작하기
©신진 ©미디어버스
2016, 126×195×15mm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 한시간 총서
©강문식 ©미디어버스
2017~, 105 × 150 mm

→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
©오혜진 ©여라운드
2021, 110 × 170 × 12 mm

→→ 권태
©이기준 ©민음사
2017, 113 × 188 × 10 mm



↓ CC IMG
©배민기 ©초타원형 출판
2019, 130 × 180 × 35 mm

↓ 거실의 사자
©오세남 ©마티
2018, 137 × 196 × 28 mm



↓ 햇빛 총서
©이도진 ©SUNNYBOOKS
2017~, 110 × 160 mm

→ 메타유니버스: 2000년대
한국미술의 세대, 지역, 공간, 매체
©김영나, 도한결 ©미디어버스
2015, 110 × 180 × 22 mm



노윤신
 ©슬기와의인 ©스펙터 프레스 작업실유형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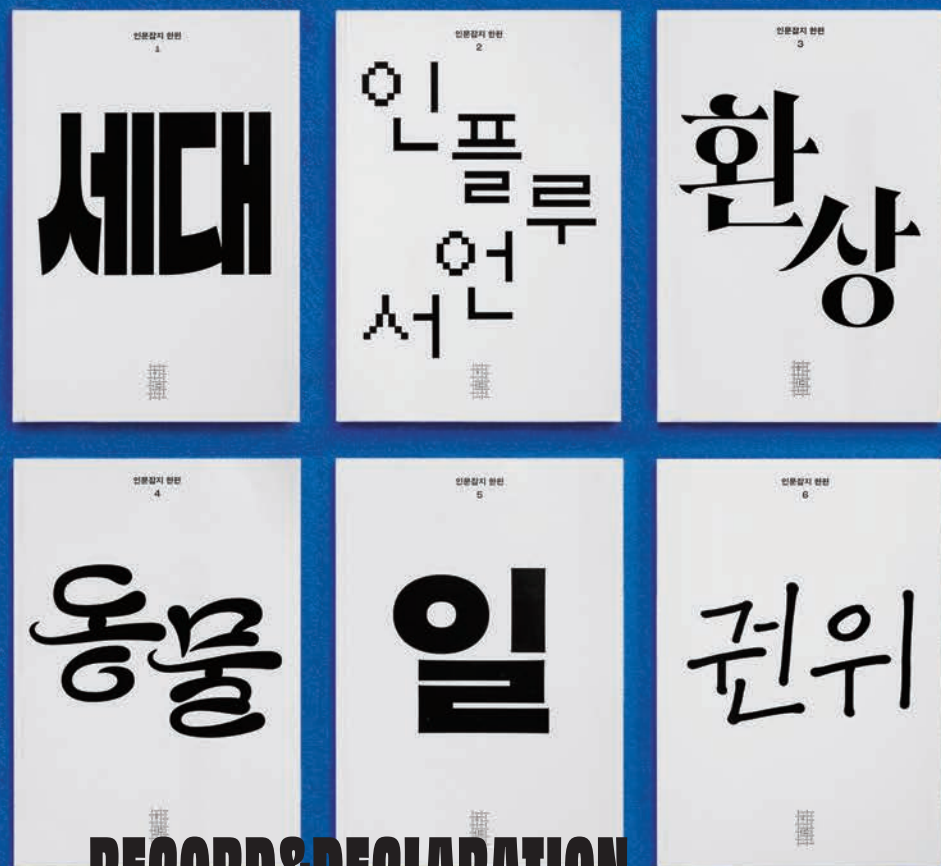
228

↳ FDSC.txt Vol. 1:
 슬기로운 디자인 생활
 ©김나영, 김현중, 노을재,
 이예현, 하형원 ©FDSC
 2020, 190×265×15mm

→ 디자인 FM
 ©신인아, 장윤정 ©오늘의풍경
 2019, 125×190×25mm



→ 인문잡지 한권
 ©유진아 ©민음사
 2020~, 127×18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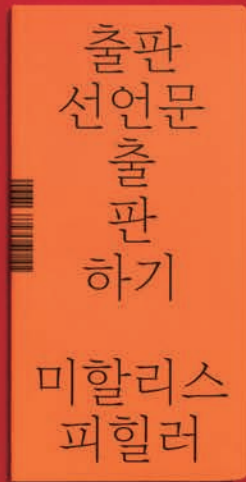
229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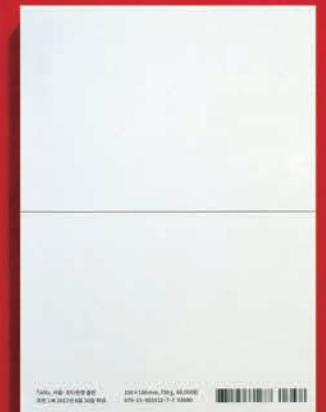
↓ 제노페미니즘:
소외를 위한 정치학
©양민영 ©미디어버스
2019, 105 × 210 × 8 mm

↓ 출판선언문 출판하기
©양민영 ©미디어버스
2019, 105 × 210 × 8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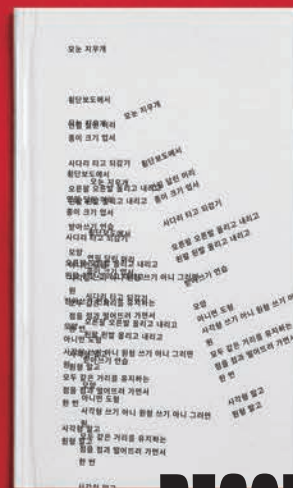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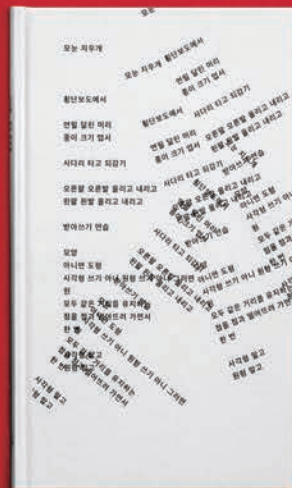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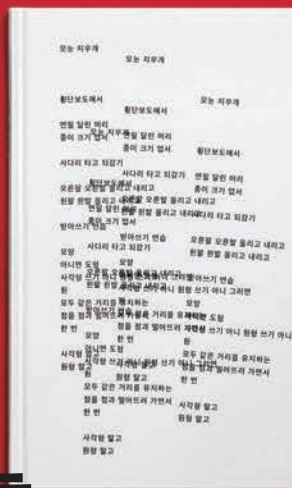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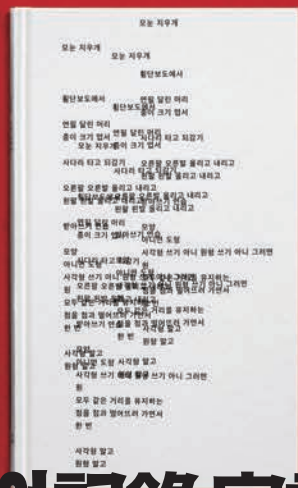


←← 탐방서점
©유명상 ©프로파간다
2016, 110 × 178 × 25 mm

← □
©강문식 ©오르칸프레스
2020, 110 × 180 × 26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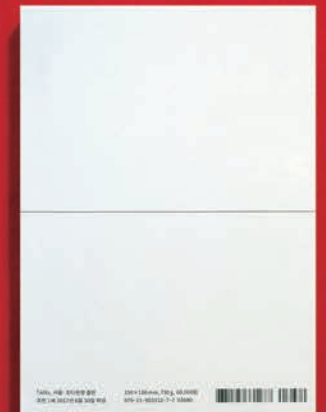


↓ 모는 지우개
©전용환 ©외밀
2020, 129 × 212 × 11 mm



↑ 111 다이어그램:
큐레이터의 도면함
©황석원 ©워크룸 프레스
2018, 110 × 178 × 25 mm

↑ AIR
©김병조 ©초타원형 출판
2017, 130 × 180 × 35 mm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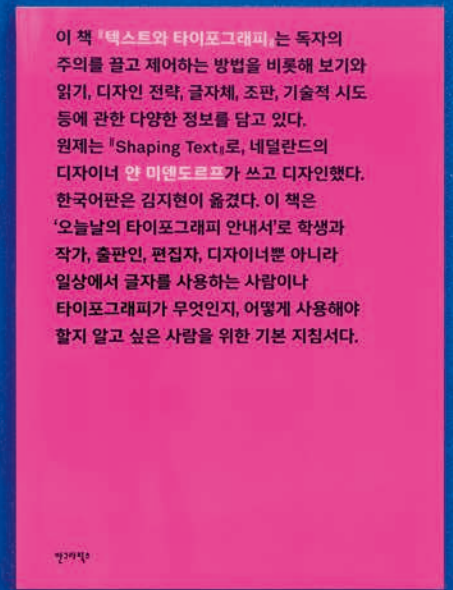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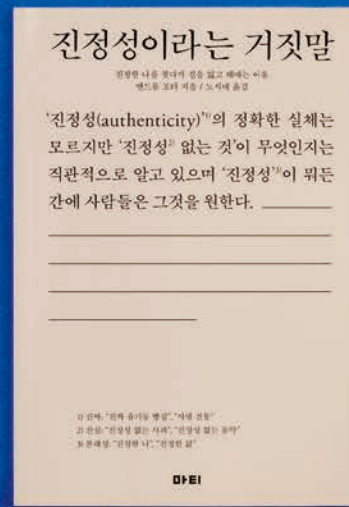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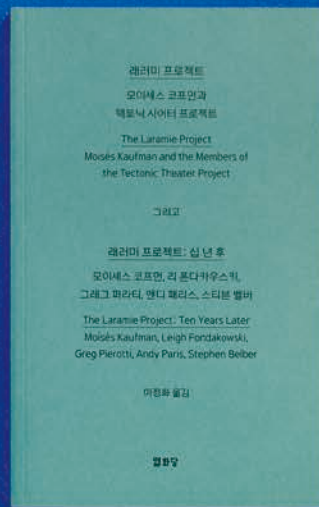
RECORD&DECLARATION

↓ 노무현 전집
 ©김동신 ©둘베개
 2019, 180×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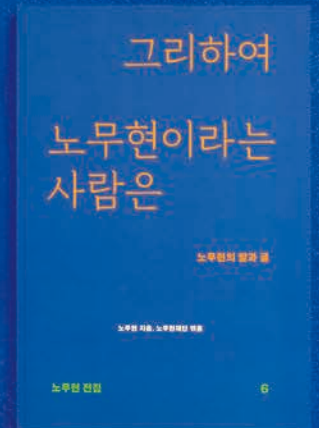


→ 레러미 프로젝트
 ©박소영 ©월화당
 2018, 140×220×14mm

→→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오세날 ©마티
 2018, 152×220×3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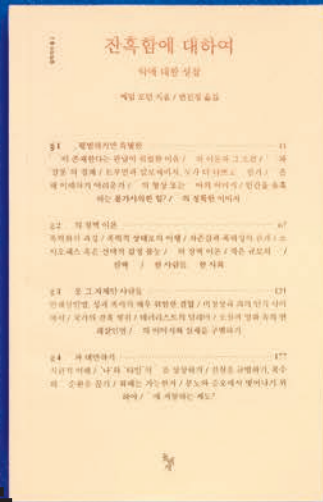


↑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박찬신 ©안그라픽스
 2015, 188×257×12mm



↓ 아픔에 대하여
 ©김동신 ©둘베개
 2017, 140×220×16mm

↘ 잔혹함에 대하여
 ©김동신 ©둘베개
 2015, 140×220×18mm



기록과 선언
 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기록과
선언記錄·宣言



RECORD&DECLARATION

啓示 想像
Revelation and Imagination
계시와 상상

‘계시와 상상’에서는 ‘응축과 지락’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적 상징과 미래적 상상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میم의 정원’에서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감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다루며, ‘기호들’에서는 공예가들이 공예 고유의 기법을 견지한 채로 생명의 기록과 단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열네 팀의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챕터 1
میم의 정원

챕터 2
기호들

“Revelation and Imagination” presents works of various media and genres that look at media symbols and futuristic imaginations under the theme of condensation and resourcefulness. “Garden of Memes” deals with a variety of works based on new inspiration and imagination given to us in the post-Internet era. In “Land of Symbols,” craftspeople symbolically express the records and clues of life while maintaining their unique craft techniques. A total of 14 teams of creators are participating in this part.

Chapter 1
Garden of Memes

Chapter 2
Land of Symbols

만들기 쉽고 공유하기 쉬우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지만, 어느 정도 무의미한 'میم'은 디지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세태적 변화의 상징이자 '일상적 개념주의'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میم의 정원'에서는 디지털 세대의 시각 문자인 밈을 주제로 모방과 복제의 방법론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현한 동시대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현실적 규범을 전복하고 문화와 예술의 계급을 타파하려는 이런 태도는 사실 다다이즘과 팝 아트가 현대 미술에 남긴 유산과 닮았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팝 아트가 예술가들의 농담이었다면, 밈의

세계에는 그 어떤 경계와 한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میم의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상호 소통 가능한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대에 놓인 동시대 예술가들이 계시와 상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전유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런 시도는 예술의 형식이나 미학적 수사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의 예술적 언어가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고유성을 획득해가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밈의 정치학이 동시대 시각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재원
람한
문탠샵
추수
최하늘

기획
신은진 (신자유)

GARDEN OF MEMES

"Garden of Memes" introduces contemporary artists who embody their own world of work using the methodology of imitation and cloning under the theme of "memes," the digital generation's visual characters. A meme is easy to make, easy to share, and intuitive for anyone to recognize, but they are somewhat meaningless. It has become a symbol of the changing world in the digital image communication era and a type of everyday conceptualism. This attitude to overthrow realistic norms and to break down the cultural and artistic classes, in fact, resembles the legacy of Dadaism and pop art in contemporary art.

"Garden of Memes" focuses on the way contemporary artists repossess images through revelation and imagination in an era with platforms where anyone can easily create image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attempt will be an opportunity to look at how the artistic language of those who freely cross the boundaries of everyday life without being bound by art forms or aesthetic rhetoric gains uniqueness in the post-Internet era, while also looking at the impact of meme politics on contemporary visual culture.

Jaewon Kang
Ram Han
Moon Tan Shop
Tzusoo
Haneyl Choi

Curation
Eunjin Regina Shin
(seenzau)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강재원은 미래의 조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 내부의 기능들이 현실의 조각을 구성하는 원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디지털 조각 방식'에 의해 조형되는 '감각'에 관심을 두며 작업 합니다. 2017년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각한 형태에 조명, 환경, 재질을 넣고 렌더링해 조각의 물성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구, 실린더 등의 기본 입체 도형에 3D 소프트웨어 내부의 기능들을 덧붙여 운동감이나 동세, 형태를 지닌 조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jaewonkang.kr

스우시
인플레이터블
5000×7960×1850mm
2021

Swoosh
Inflatable
5000×7960×1850mm
2021

'스우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의 로고이자 동명의 제목입니다. 원래 '획 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라는 뜻의 이 단어는 최근 소셜 미디어상에서 열병처럼 퍼지는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신드롬에 대한 광풍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과 관계를 맺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세속적 욕망은 열광을 넘어 광기로 이어지고, 결국 이 아이콘은 동시대의 종교적인 형상으로 기능합니다.

쉽게 복제되고 전파되는 것처럼 디지털상의 조각 또한 간단한 기술로 복제되거나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에 웅이합니다. 강재원은 3D 소프트웨어에서 구, 실린더 등의 기본 입체 도형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모사한 기능을 더해

운동감이나 속도감을 지닌 조각을 만들어왔습니다. 작가는 구를 활용해 여러 형태를 실험하던 중 우연히 지금의 조형을 발견했지요.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순간, 본인과 작품 역시 mim의 현상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미터 높이의 거대한 인플레이터블 조각인 〈스우시〉는 단단한 금속 조각처럼 보이지만, 얇은 원단을 재단하고 이어 붙인 작품입니다. 내부의 공기압으로 형태가 유지되며 유지 장치가 꺼지는 순간 형체는 사라집니다. 무한하게 확장되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mim과 현대 미술, 물질적 우상 숭배와 그에 반한 허무주의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JAEWON KANG

Jaewon Kang is interested in futuristic sculptures. Based on the idea that the functions inside a 3D program will influence the principles of constructing the sculpture of reality, Kang continues to create works with interest in the sense of being shaped by digital sculpture methods. He produced the materiality of the sculpture by adding lighting, environment, and materials to polygons sculpted using a 3D program in 2017. Starting with this work, Kang has recently made sculptures with a sense of motion, movement, and shapes by adding functions inside a 3D program to basic three-dimensional shapes

such as spheres and cylinders. The finished sculptures (obj: 3d file) are sent in various forms, including digital images, videos, 3D printing, inflatable sculptures, and aluminum.

Seoul
http://www.jaewonkang.kr

"Swoosh" is the title of this work and the logo of one of the world's best-known brands. With its original meaning of "the sound produced by a sudden rush of air or liquid," this word makes us think about the craze for a certain brand's limited-edition syndrome, which has been spreading like crazy on social media recently, and how the phenomenon relates to our lives. The secular desire for material goods goes beyond passion to madness and eventually the icon functions as a contemporary religious figure. Like memes that are easily reproduced and spread, sculptures in the

digital world are also easily reproduced or easily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with simple technology.

In the 3D program, Jaewon Kang, who has created sculptures with a sense of motion or speed by adding deformation functions to basic three-dimensional shapes such as spheres and cylinders, discovered the current shape through a chance process while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shapes using spheres. As soon as the subconscious form is expressed unconsciously, he realized that he and his work also coexist in the phenomenon of memes. The gigantic inflat-

able sculpture, **Swoosh**, looks like a solid piece of metal at first glance, but it is made of thin fabric cut and attached. Its shape is maintained by internal air pressure, and disappears as soon as the device is turned off. This work implies the inextricable relationship between memes and contemporary art, material idolatry, and nihilism in the age of infinitely expanded image communication.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 想像

람한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이미지와 미디어에서 발견하는 이미지를 동일한 감각으로 인식하며 현실과 가상을 통해 전달받는 장면을 구분 없이 한 세계관 속에 나열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열화되고 복제되는 무작위의 이미지와 그 사이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시각적 질감, 색채 등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현실과 가상의 차원을 무시한 동시대의 익숙한 풍경화로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ram__han

RAM HAN

Ram Han's gaze recognizes images found in everyday life and images found in media in the same sense. Ram Han has been working on listing scenes that she receives through the real world and virtual world in one world-view—without distinction. She is interested in recalling nostalgia or vivid scenes from memories, including the scenes that she has never seen before, but wants to see. Ram Han is ceaselessly supplied with rising/repliated images through social media, accepts random images without filtering, and uses visual textures, colors, and elements that match her worldview as materials. S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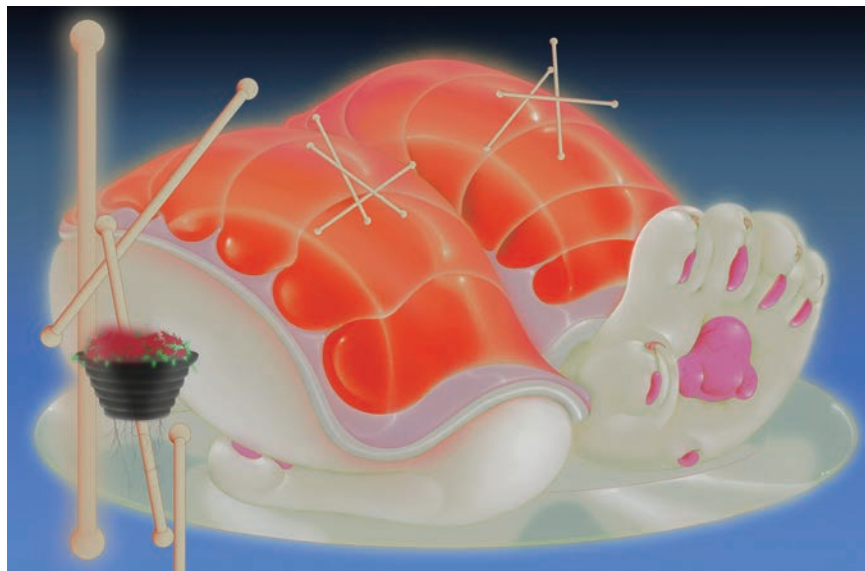
hopes that resulting works will be considered as familiar landscapes of contemporary times, which ignores the dimensions of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Seoul
http://www.instagram.com/ram__han

계시와상상

Babo_F
 디지털 페인팅,
 라이트 패널
 1220×1860mm
 2021

Babo_F
 Digital painting,
 light panel
 1220×1860mm
 2021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고양이를 들어 올려 벽에 붙였을 때 고양이가 벽을 밀어내는지, 얼굴과 몸이 저항 없이 벽에 닿는지에 따라 똑똑한 고양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포스팅이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 전국적인 밈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 지능 분별법'으로 알려진 이 포스팅의 과학적 신빙성은 논외로 둔 채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무념무상한 표정의 고양이가 벽과 하나가 되는 영상을 릴레이 게임에 임하듯 인터넷에 올리며 즐거워했지요. 당시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사람들의 안녕에 관해 깊이 고민하던 람한은 소위 '짤방'이라 불리는 이미지의 타래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몽글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Babo-F>는 이렇듯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이 무의미하게 던지는 허무한 농담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밈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목도한 작가가 이를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기념품>은 여행자가 불러오는 환상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기념품의 부질없음을 표현한 연작입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키링, 접시, 인형 같은 기념품 이미지가 여행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행기나 호텔, 바다 이미지와 혼재됩니다. 이들은 각각 풍경화와 정물화

Recently, people posted a way to find how smart your cats are: if you lift a cat and stick it to the wall, you can see if the cat pushes the wall with the soles of its feet, or its face and body touch the wall without resistance. Such posts became very popular online and it became a meme in Korea. Aside from the scientific credibility of the post, known as "Cat Intelligent Test," many people who have cats as pets enjoyed posting videos of their cats touching the wall on the Internet as if it were a relay game.

At that time, Ram Han wa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ealth of herself and others

as well as about the well-being of people, and she was moved by those numerous Internet memes and gifs. In *Babo_F* the artist embodied the experience in her own visual language after she witnessed another possibility of memes in the flood of image communication, which is mainly made up of futile jokes thrown around by many people.

The Souvenir series expresses the futility of humble souvenirs in contrast to travelers' fantasies about travel destinations. Images of souvenirs such as key rings, plates, and dol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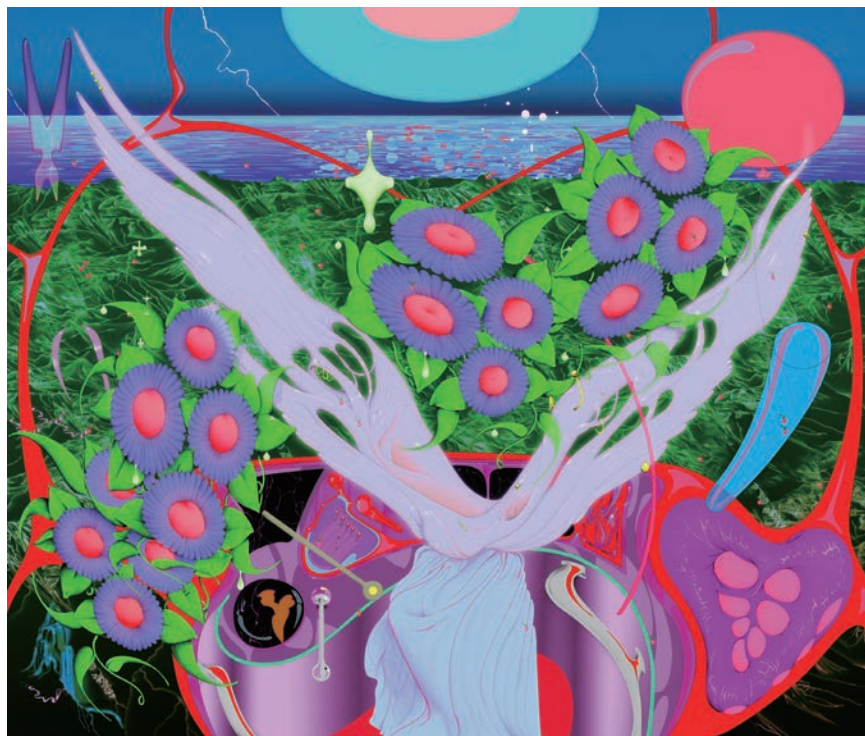
기법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기념품 04_F(조종석)>은 우주를 향해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며 멸망 직전의 세계에 있는 관제실과 나뒹굴 법한 대화를 상상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추락한 비행체와 여름 바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을 세기말적 낭만을 품은 풍경입니다.

tourist attractions along with airplanes, hotels, and oceans are mixed from a traveler's perspective. These are contrasted using the principles of landscape paintings and still life artworks.

Among them, *Souvenir04_F (Cockpit)* is an imaginary version of a conversation that a passenger spaceship would have had with a control room in a world on the brink of collapse, expressing the crashed spaceship, the summer sea, and the end-of-century romance they would have all dreamed of.

기념품 04_F(조종석)
디지털 페인팅,
라이트 패널
1360 × 1620 mm
2021

Souvenir04_F(Cockpit)
Digital painting,
light panel
1360 × 1620 mm
2021



《세상의 마지막 밤》은 C. S. 루이스의 동명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작가가 '스펙트럼 오브젝트'라는 창작 콜렉티브의 일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발제하고 그렸던 전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종교적 주제를 내포한 소설을 조금 더 일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아포칼립스적인 혼돈이 아닌 불시의 고요한 멸망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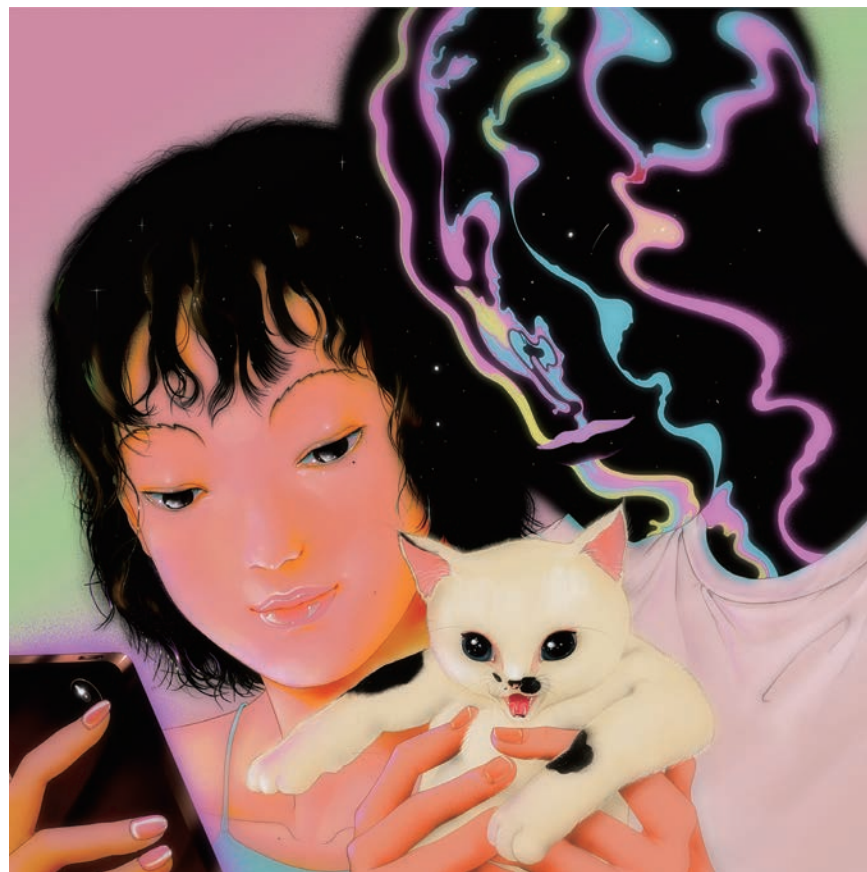
소설의 한 장면을 상상하고, 이를 배경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열외나 차별도 없이 닫히는 세계 속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작가는 결국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느 때와 똑같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일상적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무력하고 통상적인 일상과 대조되는 디스토피아 배경이 모순을 증폭시키는 작품입니다.

Inspired by C.S. Lewis's novel of the same name, *The Last Night of the World* was a theme presented by the artist when she was a member of a collective group called Spectrum Object, and is a remake of the old work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 took the novel with a religious theme as a more everyday story, and imagined a scene of a novel regarding an unexpected silent collapse, not apocalyptic chaos, depicting her

imagination as the backdrop of this work. Ram Han continuously worried about the existence of "I" in the world, which is closed without exception or discrimination, and eventually recalls the daily scene of a person hugging a cat and looking into the world on a smartphone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The helpless and ordinary daily life, which seems contrary to the background of a dystopia, amplifies irony in this work.

세상의 마지막 밤
디지털 페인팅,
라이트 패널
1360 × 1360 mm
2017, 2021

The Last Day of the World
Digital painting,
light panel
1360 × 1360 mm
2017, 2021





문텐샵은 이미지-무빙 이미지에 기반을 두며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배소영, 송다솔, 이은솔이 2020년 말에 결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창작 과정의 유희와 도처에 널린 이미지에 내재된 욕망과 매혹의 언어를 포착하여 각자의 언어로 구조화합니다. 배소영은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이미지 표피 자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송다솔은 개인의 기억으로 종결되어 쉽게 사라지기 쉬운 것을 지속해서 바라보기 위한 사물을 만들어 보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지-무빙 이미지를 시간의 물성을 상상할 수 있는 질료로 상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하는 현재'라는 시간성이 발생시키는 감각의

선상에서 일시적 순간을 붙잡아 나열합니다. 이은솔은 3D 그래픽 제작자로 '킴벌리 리'라는 캐릭터를 구현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캐릭터의 신체를 VR 기반 환경으로 이동시킵니다.

서울

배소영 Soyoung Bae
<http://www.soyoungbae.com>

송다솔 Daseul Song
<http://www.vimeo.com/sds0225>

이은솔 Eun Sol Lee
http://www.instagram.com/kimberlyleee_

MOON TAN SHOP

Soyoung Bae, Daseul Song, and Eun Sol Lee formed a loose form of a project team at the end of 2020. They are respectively interested in capturing and structuring the language of desire and fascination inherent in the playfulness of the creative process and imag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Soyoung Bae is interested in collecting the images' "epidermis" itself and the story behind it in the environment where images are created and consumed. Daseul Song is interested in creating objects in order to keep an eye on things that end with individual memories and are easy to disappear. Images/

moving images are imagined as materials through which she can imagin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ime. Cultivated from this idea, Song would like to capture temporary moments that look at senses that are generated by a temporality she calls the "continuing present." Eun Sol Lee is a 3D graphic producer who embodied the character of Kimberly Lee. She moves Kimberly's body through a VR-based media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ality.

Seoul

계시와상상



Moon Falls

이은솔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6:30
2021

Moon Falls

Eun Sol Lee
Single channel
video, color
6:30
2021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Echo의 계곡

복합 매체, 가변 설치
가변 크기
2021

문탠샵은 온갖 밈이 어우러진 정원에 〈에코의 계곡〉을 소환합니다. 수직으로 솟은 멀티비전, 바닥에 깔린 모니터, 다양한 형상과 질감을 가진 오브제와 포그 머신의 안개, 색조명 등으로 전시장을 구성합니다. 에코는 던져진 소리가 어딘가 부딪혀 돌아온 소리입니다. 거울 놀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반영인 에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어느 순간 잊히고 끝을 알 수 없는 일그러진 상호 참조의 과정이 지속됩니다. 작가들은 노이즈로 얼룩진 폭포를 상상합니다.

폭포(멀티비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밈의 정원에 펼쳐진 고요했던 수면은 쏟아지는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문으로 일렁입니다. 에코의 파문이 오가며 그 표면을 요동칠수록 그 힘에 이끌려 자연물의 형상을 닮은 기이한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풍경을 암시합니다.

이은솔은 세로로 길게 설치된 멀티비전에 이미지의 폭포를 형상화합니다. 〈에코의 계곡〉으로 흐르는 낙하하는 이미지들은 밈의 특성인 상호 참조, 변주, 휘발되는 데이터 조각을 반영하며 마치 소셜 미디어상의 피드가 빠르게 내려가듯 스크린을 스쳐 지나갑니다. 푸티지 소스들은

송다슬, 배소영, 이은솔의 작업의 일부, 또는 작업의 레퍼런스를 사용하며 이들은 서로 섞이고 가로질러 글리칭됩니다. 사운드는 푸티지에 속한 사운드 소스와 소셜 미디어 동로의 음악에 에코 효과를 넣어 지연되거나 증폭되어 울리는 폭포 속 동굴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송다슬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무한히 펼쳐진 선상 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 주는 권태감을 현재의 반복이자 지속으로 인식했습니다. 어디론가 저절로 밀려가는 선상 위에서 개인이 느끼는 오류적 감각(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무화된다는 인식, 이동하고 있지만 정지한 상태, 반대로 정지해 있지만 계속

Riverside_ Panorama & Zoom

송다슬
5 채널 비디오, 사운드, 컬러
34:18
2020~2021

Riverside_ Panorama & Zoom

Daseul Song
5 channel video,
sound, color
34:18
2020~2021

Echo Valley

Mixed medium
Variable size
2021

Moon Tan Shop summons *Echo Valley* to the "Garden of Memes." Their exhibition hall consists of vertical multi-vision, floor-mounted monitors, objects in various shapes and textures, fog made using a fog machine, and colored lights. An echo is the sound that comes back to us after it goes somewhere else. An echo is a reflection of two sounds—almost as if it were a mirror game—and the distorted cross-reference process continues, with its beginning

forgotten at one moment and an unknown end.

Eun Sol Lee embodies the waterfall of images on a long, vertical multi-vision installation. Whi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mes such as cross-referencing, variations, and volatile data fragments, the falling images to *Echo Valley* pass through the screen as if an social media feed were scrolled down quickly. Footage sources are some of the works by Daseul Song, Soyoung Bae, and Eun Sol Lee as well as their references. Sound includes original footage, music created by one of the artist's social media friends, and the echo

effect to express the impression of a cave in a waterfall.

Daseul Song recognized the ennui caused by one's fate to live—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will—on the already infinite line of time as the repetition and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he embodied an individual's erroneous perception in the state of being pushed somewhere (a state where something is moving but still, or a state where something is still but continuously moving). When considering panning and zooming, which are camera photography techniques, this work reminds the viewer of the linear movement that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이동하는 상태)를 구현했습니다. 카메라 촬영 기법인 패닝과 줌을 매체 환경 속 여러 트래지션 효과 중 슬라이딩과 줌에 걸쳐 생각해보았을 때, X축과 Z축으로 탈주하는 직선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강 주변을 걸어다니는 인물의 운동성과 손에 쥔 스마트폰, 그 속의 인터페이스는 각기 다른 방향의 축을 그림니다. 수많은 차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영상은 권태감을 발생시키는 텅 빈 무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의 감각에서 미끄러져 이미지 표피 밑으로 침잠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영상은 석빙 또는 석순 형태의 오브제와 함께 주로 바닥에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져 모니터 여섯 대와 일그러진 패턴 형태를 띠는 무빙 이미지 세 점과

함께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이 응축된 광물을 모방한 오브제를 제작해 각각 X축과 Z축을 진동하는 비디오 오브제를 물리적 공간에 고정시킵니다. 영상 작품 설치 주변으로 배소영의 다양한 오브제와 영상과 어우러지고, 때로는 모니터 아래 또는 위로 포개집니다.

배소영은 털, 머리카락, 인형, 실리콘 인체 모형, 천, 연기 등의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오브제로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묘한 부조화와 불편함을 만드는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작가는 촉각에 기반한 인지와 감각 전달에 집중하며 이번 전시에서 〈에코의 계곡〉 그 수면에 올라온 바위를 구현합니다. 계곡 옆의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듯 전시장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곳곳에 숨어 있는 기괴한 생물의 형상을 통해 판타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작품의 중요한 콘셉트인 서로를 마주보며 왜곡된 상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해 송다슬의 생물, 이은솔의 글리치를 재료 삼아 만들어진 형상으로 서로를 참조하면서도 변주하는 실험적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팀의 관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escapes to the x- and z-axes. This work presents the motility of a person walking around the Han River, holding a smartphone, and the screen of the phone shows axes in different directions. The video, which consists of numerous repetitions of differences, works as an empty stage that creates boredom, and a device that causes viewers to slip from their sense of reality and sink under the epidermis of images. The video will be shown with objects in the form of stalagmites, mainly tilted at various angles to the floor, using six monitors and three moving images in a twisted pattern. Objects that

imitate long-time condensed mineral are produced to fix video objects—vibrating on the x- and z-axes—in the physical space. Around the video installation, Soyoung Bae's various objects will be combined with the video, and sometimes overlapped under or above the monitors.

Soyoung Bae conducted installation work that creates a strange disharmony and discomfort in a familiar and comfortable atmosphere with various materials such as fur, hair, dolls, silicon dummies, cloth, and smoke. The artist focuses on tactile-based cognition and sensory transmission, and

intends to embody a rock on the surface of *Echo Valley* in this exhibition. It will provide a rest area (like a person sitting on a rock by a valley) to view the exhibition hall, while creating a fantasy atmosphere through the images of strange creatures hiding here and there at the same time. Focusing on the process of creating distorted images which are facing each other, an important concept of *Echo Valley*, Soyoung Bae wants to experiment and realize the possibilities of the project team relationship through the experimental process in which cross-referencing and variation are conducted with images.

이끼 바위 위에서 발귀신 만지기

배소영

석고, 인조털, 스판덱스, 숨

가변크기

2021

Touches of the Night Ghosts on the Moss Land

Soyoung Bae

Plaster casting, fabric,
spandex, cotton wool
Variable size

2021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추수는 홍익대학교에서 판화와 예술학을 전공하고, 슈투트가르트 시립예술대학에서 현대 예술을 공부했습니다. 논문 「오버워치 (온라인 FPS게임)의 미학적 로직」 (2017)으로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매료하고 주도하는지, 게임의 역사에서 젠더는 어떻게 현상하는지 인류학적으로 탐구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노동 조건과 신체의 귀어성, 젠더와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버추얼 활동가'라는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베를린
<http://www.tzusoo.com>

TZUSOO

Tzusoo majored in printmaking and art studies, and studied fine art at the State Academy of Fine Arts in Stuttgart, Germany. Through her paper *The Aesthetic Logic of Overwatch (Online FPS Game, 2017)*, Tzusoo explored how the digital world fascinates and drives the real world, and how gender is revealed in the history of games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rough the results of her exploration, she laid the foundation for further works. Based on philosophical concepts, Tzusoo breaks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nd through her works she delves into an area where

her personal experience and sociopolitical situations are connected. She is pursuing her experimental identity as a virtual activist, focusing on people's working conditions in the digital age, the queer nature of people, gender, and human rights.

Seoul, Berlin
<http://www.tzusoo.com>

계시와상상

슈뢰딩거의 베이비
 비디오 루프,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2019, 2021

Schrödinger's Baby
 Video loop,
 video installation
 2019, 2021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슈뢰딩거의 베이비〉는 가상 현실에 존재하는 아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아기를 사랑한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러나 서울을 떠나, 예술을 하며, 밥 먹듯 이사를 다니는 스물여섯의 나는, 나를 닮은 아기의 모습을 꿈꾸기 어려워지고 만다.” 〈슈뢰딩거의 베이비〉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의 살아 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나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와 평행하는 세계관과 이어집니다.

아기는 가상 현실에 존재할 뿐 현실 세계에서는 관측될 수 없기에 확률적으로 가능한 서로 다른 모든 상태가 공존합니다. 물리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공간에서 아기는

현실이 건네는 어떤 물음에도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색, 출생일, 아빠가 누구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혹은 제3의 성인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양육될 것인지 등의 모든 딜레마와 등을 집니다. 이런 상태에 편승해 작가는 아기를 갖고픈 오랜 염원을 달성합니다. 가능성이 공존하는 〈슈뢰딩거의 베이비〉에서는 탄생과 삶, 죽음과 얽히는 사건이 포개집니다. 작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계층을 두지 않고 동등한 행위로 바라봅니다. 인간과 동물, 심지어 사물, 또는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아기조차 행위의 주체로 삼아, 인간 중심의 해석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등진 아기가 관람객에게 되물습니다.

“I am a real baby, am I not?”

In *Schrödinger's Baby*, Tzusoo alludes to the famous thought experiment devised by Austrian physicist Erwin Schrödinger in 1935. Schrödinger proposed a scenario in which a cat is locked in a box, and there is no way to say with certainty when or indeed whether this will happen without opening the box. The result is a paradox, with Schrödinger asserting that the cat enters a state of superposi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say whether it is alive or dead.

Tzusoo translates this famous paradox into the reality of her own life, creating a digital baby in virtual

space. Based on her inner grappling with potential motherhood, Tzusoo bought the digital model of a developing embryo, refining it according to her ideas. She is free to determine the sex, skin color, and other characteristics or dispense with all specifications to avoid stereotyping. In *Schrödinger's Baby*, Tzusoo thus discusses core aspects of her work including reflection on gender and origin for which she also draws on her personal experience as a South Korean artist in Europe. Being a digital native herself, Tzusoo often uses virtual technology applications in her work, creating avatars that operate

in dreamlike settings oscillating between devastated landscape and hyperreality. Tzusoo's works raise many questions connected with the current uncertainty of rapid digital development. The experiment is, therefore, already in full swing. In this digital world, humanity is facing questions that we will only be able to answer when the future has become the present and when we open the box.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최하늘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각가로, 조각이 걸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며 조각의 영역과 그 확장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아라리오 뮤지엄,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등에서 총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열고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choihaneyl.com>

HANEYL CHOI

Haneyl Choi is a sculptor based in Seoul. As he explores a variety of fields that can be related to sculptures, Choi thinks deeply about how far sculptures can be expanded in this era. He has held five solo exhibitions at the Arario Museum, P21, the Commonwealth & Council Gallery, and so on. He has also taken part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some of which were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nd the Seoul Museum of Art (SeMA).

Seoul
<http://www.choihaneyl.com>

계시와상상

직립 연습: 조각 모방 1

금속
 1800 × 250 × 250 mm
 2021

Like Sculpture 1

Metal
 1800 × 250 × 250 mm
 2021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밈'은 인터넷 세계에서 자력으로 상징적, 또는 물리적 두께가 생성됩니다. 또한 반복적 사용을 통해 서사를 주입하거나 서사 속에 밈을 투입시킴으로써 실체를 획득하며 평면 이미지를 맥락 없이 3차원으로 치환하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두께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예컨대 글씨가 혼자 서 있으려면 조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밈의 생태계를 탐구한 최하늘은 이미지 구기기, 이미지 적립 및 자립 연습 등의 방법론을 통해 밈이 두께를 가지면서 조각이 되는 과정을 여러 단계를 나눠 고찰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직립 연습: 조각 모방 2
포맥스
950×900×900 mm
2021

Like Sculpture 2
Fomex
950×900×900 mm
2021

Memes travel around the Internet and gain power (thickness) in either a symbolic or a physical dimension. In addition, memes obtain substance by injecting narratives through repeated use or by inserting memes into narratives, and are then given thickness through simple methods of replacing two-dimensional images with 3D images without context.

For example, if you make a letter stand alone, sculptural help is needed. Haneyl Choi explored such an ecosystem of memes, produced this work based on the process of making memes into sculptures while gaining thickness, through methodologies such as image crumpling, and making images stand like sculptures.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요즘 관람객' 연작과 '거울을 이용한 병풍' 작업은 스스로 믿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소위 '인스타그램머블한' 관람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비판이 아닌 동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관람객의 성향과 행동이 어떻게 현대 미술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작가의 조각은 현대 미술이 작품으로 관람객과 협동하는 방식, 관람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인스타그램머블한 관람객을 환영하는 제스처를 제안합니다. 이는 관람객 참여형 미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각은 조각대로, 관람객은 관람객대로, 서로의 부재에도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조형'에 관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직립 연습: 조각 모방 3
금속
1870×400×700mm
2021

Like Sculpture 3
Metal
1870×400×700mm
2021

The Current Audience series and Folding Screen Using the Mirror deal with so-called "Instagramable audiences" who have a desire to be memes themselves. Choi Haneyl's sculptures make a gesture to welcome the Instagramable audience b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contemporary art collaborates with the audience through works and allows the audience to acquire the image they want. The work

never criticizes them, but it starts with thinking about how the newly emerging audience's tendency and behavior can be harmonized with contemporary art. This is different from participatory art. It is the result of the artist's thinking deeply about the sculpture coupled with the audience so that each proves their existence respectively even with the absence of each other.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네가 여기 있었다고
말해줄게
에코보드에 은경, 시트지
각 1500 × 430 mm
2021

You Were Here
Mirror on echo wood,
lettering
each 1500 × 430 mm
2021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앉아서 휴식 중인 조각
금속, 라이더자켓
800×650×1100mm
2021

A Sculpture Taking a Rest While
Metal, leather jacket
800×650×1100mm
2021

그림을 보고 있는 조각
금속
1650×250×600mm
2021

A Sculpture Looking at Paintings
Metal
1650×250×600mm
2021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생명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후대는 기록의 단서를 시대적 틀 안에서 분석하며 과거를 상상하고, 해석을 더해 또 다른 생명으로 재창조합니다. 기록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 고리 안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의무와 욕망이 혼합된 원초적인 본성일지 모릅니다. ‘기호들’에서는 다섯 명의 공예가가

식물을 닮은 상형 문자를 만듭니다. ‘순환과 연결’, ‘바탕과 지탱’, ‘균형과 매개’, ‘화합과 발화’, ‘내포와 결실’의 의미를 담아, 반복적인 손의 노동으로 재료 (흙, 금속, 유리, 섬유, 종이)의 고유한 물성이 드러나는 문자를 제작합니다. 손으로 만든 문자는 다음 세대의 해독을 통해 발화하며,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전합니다.

김동해
민덕기
오선주
오유경
조준익

기획
김그린, 차정욱

집기 디자인
심승연

그래픽 디자인
김유나

LAND OF SYMBOLS

The record of life is inscribed and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in various forms. The posterity imagines the past by analyzing evidence found in records collate with the standards of their time and adds new life to the record. The act of recording may be the inherited nature of human beings which rises from the obligation and desire for continuous life. “Land of Symbols” presents hieroglyphs on life made by five artists in crafts. The letters resemble the parts of a

plant while embracing the meanings of life; “Circulation and Connection,” “Foundation and Support,” “Balance and Mediation,” “Solidarity and Blooming,” and “Connotation and Fruition.” The repetitive movements of artist hands reveal uniqu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soil, metal, glass, fiber, paper) in the letters. As viewers decode the five hieroglyphs, the letters will obtain the new life and deliver the message of the present.

Donghae Kim
Dukki Min
Sunju Oh
Yukyoung Oh
Junik Jo

Curation
Green Kim,
Jeongwook Cha

Stand Design
Seungyeon Shim

Graphic Design
Yu Na Kim

기호들

000111111110000011111100000111111100000110011111100
0000000000110000111111100001101111110000110111111100
0001111111100000000110000000011000000000110000110000000000

처음과 끝은 이어져 있으며,
자라나기 위해 바탕이 필요하다,
유지하는 것 또한 자라나는 방식이고,
확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모든 과정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결실이고 생명이다.

the beginning leads to the end,
growing needs a foundation,
retention is a way to grow,
expansion begins when gathered,
link of all the processes,
it is the result of life.

Land of Symbols

000111111110000111111111111100001000000000000
0001111111100000000001100000000001100000110000
000111111110000000011111000000011000011000000

김동해는 금속 공예 작업을 통해
자연과 일상에서 관찰하고 느낀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생활
공간에 놓이는 장식과 물건을
만듭니다. 사물과 주변 공간과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며 일상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k_eastsea

DONGHAE KIM

Donghae Kim majored in metal craft. Inspired by his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in nature and daily life, Kim creates ornaments and objects for living spaces. He tries to enrich places of daily lif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ings and surrounding spaces.

Seoul
http://www.instagram.com/k_eastsea

계시와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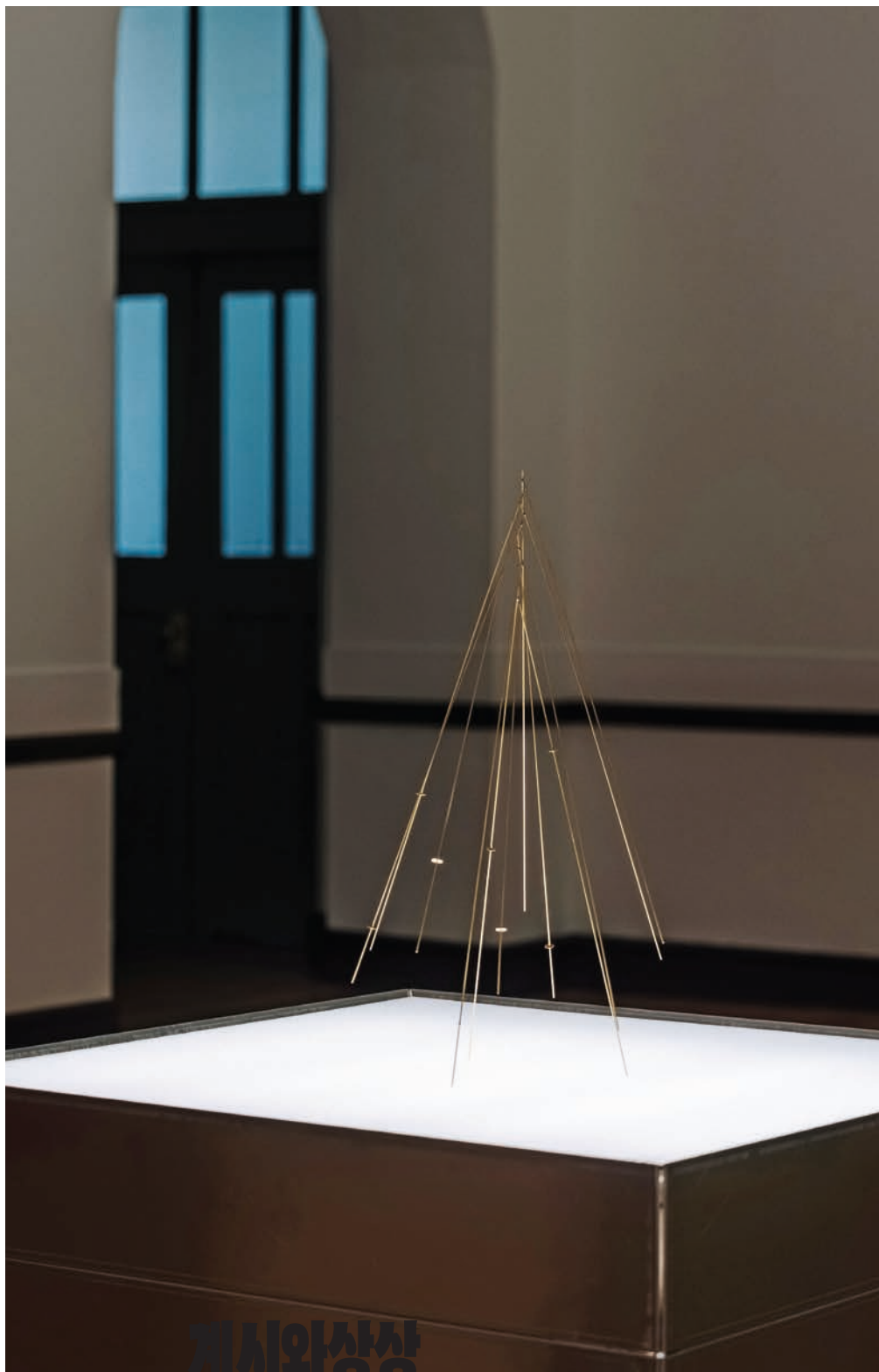
**01: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탕이 필요하다**
황동
900 × 450 × 450 mm
2021

뿌리는 식물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작품은 뿌리에서
'바탕'과 '지탱'의 메시지를 가져와
원(0)과 선(1) 형태의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얇은 금속 선으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각각의 요소는
서로를 지지하며 확장해나갑니다.
이 형상은 마치 식물의 성장과
유사합니다. 얇은 금속 선재의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 완성되는
구조의 작품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
성장하고, 재료와 사물, 사람과
시공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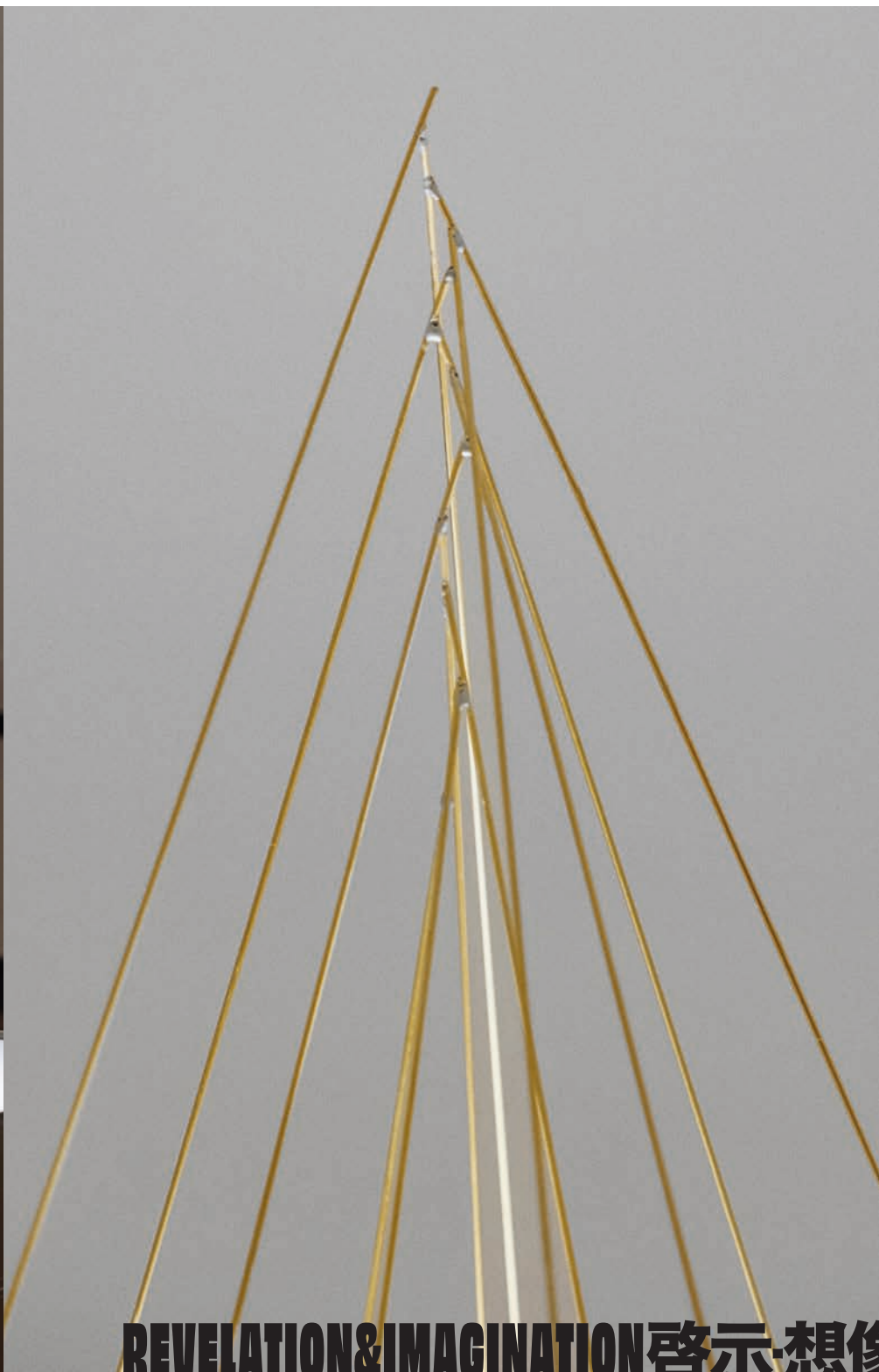
**01: Growth Needs
Foundation**
Brass
900 × 450 × 450 mm
2021

Roots are the foundation that supports plants. The work takes messages of "foundation" and "support" from the roots and creates letters in the form of circles (0) and lines (1). In a work of thin metal wires, each element supports and expands. This shape resembles the growth of plants. The work, which is completed by connecting the joints of thin metal wire, grows through repetition and variation, and expands while creating new meaning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objects, people, space, and time.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민덕기는 파주타이포그래피
배곳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목표로
일상과 맞닿은 사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gghii(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열렸을 때 발산되는 기운을
찾아다니며, 재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돌고돌고돌고: 날벌레》,
《퓨어 랜드: 바람이 머무는 땅》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
com/gghii__

DUKKI MIN

Dukki Min graduated from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in 2021. Min is conduct-
ing the *gghii* project to pro-
duce thing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with
the aim of experiencing vari-
ous senses. Min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Turn Turn*
Turn: Nalliballae, Pure Land,
and so on. She likes learning,
especially learning with her
body, so she actively joins
projects where she can work
manually.

Seoul
http://www.instagram.
com/gghii__

계시와상상

00: 모든 중간의 과정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결실이고 생명이다
종이
가변 크기
2021

열매는 새로운 생명 자체로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민덕기의
작품은 '내포', '결실'의 개념을
작업의 방식으로 삼아 그물 형태의
종이를 겹겹이 쌓고 가장 내핵에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형태의 구를 만들어냅니다.
보호막 틈새로 보이는 문자는
당장은 물러 보여도, 때가 되면
한 겹 한 겹 뚫고 나오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00: Link of All Process-
es, It Is the Fruit of Life
Paper
Variable size
2021

The fruit is new life itself and
bears new life. But also, it
sometimes disappears, un-
able to reach the next stage
of life. With the concept of
"connotation" and "fruition,"
the work is composed with
the layers of the paper net
globes. Each globe con-
tains new life to its deepest
core. Seen through the gap
between the paper net, the
protection of the character
(0) seems weak, but when the
time comes, it will be hard-
ened and break out through
the layers.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오선주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했습니다. 백자와 사기의 중간 지점에서 흙이 가진 매력을 정제된 형태로 담은 작업과 연마한 뒤 드러나는 흙의 표면 질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품을 물레로 성형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안에서 형태와 색, 질감을 찾아가며 식기와 오브제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ohsunjooceramic>

SUNJU OH

Sunju Oh studied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work focuses on capturing the essence of white porcelain and stoneware while experimenting surface texture of the clay. Oh enjoys molding with clay on the spinning wheel, and discovering shapes, colors, and textures.

Seoul
<http://www.instagram.com/ohsunjooceramic>

**00: 처음과 끝은
 결국 이어져 있으며**
 혼합 점토
 각 지름 45mm
 2021

식물의 순환에서 씨앗은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오선주의 작품은 씨앗에서 '순환'과 '연결'의 메시지를 발췌해 원의 형태로 상형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순환과 연결의 메시지는 문자를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에도 반영되는데, 흙을 주무르고 빚는 등의 제작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 표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00: The Beginning and
 the End Are Connected**
 Mixed Clay
 each unit diameter 45mm
 2021

In the plant cycle, a seed is at the beginning and end. This work extracts the message of "circulation" and "connection" from the seeds and creates hieroglyphs in the form of a circle. The message of circulation and connection is also reflected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It reminds that the beginning and end are connected as the physical force appli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such as kneading and shaping clay, is revealed intact on the surface of the completed work.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오유경은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2009년 '모스카'에 이어 2019년 직접 론칭한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오유경'을 운영하며, 네 번의 서울 컬렉션,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studio
ohyukyoung.com

YUKYOUNG OH

Yukyong Oh studied fashion design at the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SADI). She launched a fashion brand called MOSCA in 2009, and participated in Seoul Collection four times as well as many other exhibitions and projects. In 2019, she renamed her brand to Studio Ohyukyoung, and expanded its business area from ladies' apparel to a unisex line. Furthermore, she collaborates with artists from various fields, gradually expanding her activities into artworks.

Seoul
http://www.studio
ohyukyoung.com

계시와상상

**10: 확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가능하다**
폴리에틸렌 섬유,
재생 플라스틱 섬유
900 × 450 × 450 mm
2021

다음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꽃은 발화합니다. 오유경의 작품은
'발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0과
1의 형태에 담아, 여러 굵기의
섬유(1)를 엮으면서 자라나고
매듭(0)을 지어 다음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특히 쓰임을
다한 폐플라스틱이 섬유가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 Expansion Starts
When Gathered**
Polyethylene fibers,
recycled plastic fibers
900 × 450 × 450 mm
2021

Flowers bloom to give birth
to another life. This work
captures the message of soli-
darity and blooming in the
forms of (0) and (1), repeat-
ing the process of weaving
fibers of different thickness-
es, (1), and making knots (0),
to expand it. In particular,
this work shows that plastic
waste, something consid-
ered useless, can be turned
to fiber and then bloom with
a new life.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조준익은 디자인 스튜디오
크래프트 콤바인의 멤버로, 봉규산
유리 소재를 활용한 컨템포러리
오브젝트 브랜드 클리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특성에
주목해 동시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제품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집중해 감정이 전달되는
찰나의 절묘한 순간을 표현하는
상징물과 본능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도구를 조형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
<http://www.clearb.co.kr>

JUNIK JO

Focusing on ways to fulfill
basic human desires, Junik
Jo enjoys shaping symbols
to express the exquisite mo-
ments of conveying emotions
and tools to enable instinc-
tive communication. As a
member of the design studio
Craft Combine, he is pre-
sented product designs that
are close to contemporary
lifestyles by giving attention
to the various characteris-
tics materials. Jo also open-
ates the glass object brand,
clear b.

Seoul
<http://www.clearb.co.kr>

계시와상상

11: 유지하는 것 또한 자라나는 방식이며

봉규산 유리
450 × 900 × 450 mm
2021

줄기와 잎은 식물의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맞춰주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조준익의 작품은 '매개'와
'균형'이라는 개념을 담아 곧게
뻗어 있는 직선 형태의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비어 있는 곳을
채우며 개별 단위가 하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방식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유지하는 것 또한
자라나는 방식임을 전합니다.

**11: Retention Is
One Way to Grow**
Borosilicate glass
450 × 900 × 450 mm
2021

The stem and leaves act as
mediators to balance the
components of a plant. The
work contains the concepts
of mediation and balance and
creates a straight character
(1). This work shows that the
way individual units form a
single shape by filling in the
void. The work presents
that even the growth is not
visible, the maintaining the
shape is also a way to grow.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계시와상상



REVELATION&IMAGINATION 啓示·想像

존재와 지속
presence & persistence
存在・持續

‘존재와 지속’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주제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향상성을 보여준 국내외 작가 열세 팀을 초대합니다. 엘모(몽트레유), 이미주(부산), 기업의 유령들(서울), 스튜디오 스파스(로테르담), 클럽 썸(서울, 랭스), 고경빈(암스테르담), 시모 체(암스테르담),

국동완(서울), 황나키(런던), 뚜까따(인천) 등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전시 공간인 문화역서울 284 곳곳에 설치되어 다른 부분들을 잇습니다. 이번 타이포잔치의 주제인 ‘문자와 생명’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주
.....
엘모
.....
스튜디오 스파스
.....
기업의 유령들
.....
클럽 썸
.....
시모 체
.....
고경빈
.....
카바 라이프
.....
국동완
.....
황나키
.....
파일드
.....
네이버 x
.....
네이버문화재단 x
.....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
.....
뚜까따
.....

Under the theme of harmony and balance, “Presence and Persistence” invites 13 teams of artist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have shown positive and creative homeostasis, including Helmo (Montreuil) and Miju Lee (Busan). There are also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Seoul), Studio Spass (Rotterdam), Club Sans (Seoul, Reims), Bin Koh (Amsterdam), Simo Tse (Amsterdam),

Dongwan Kook (Seoul), Naky Hwang (London), and TUKATA® (Incheon). Works by these artists invited from a number of cities are installed all over the exhibition venue, and Culture Station Seoul 284 connects all these different parts of the event. This part consists of leading works of Typojanchi 2021, expressing the theme “Typography and Life” in the most profound way.

Miju Lee
.....
Helmo
.....
Studio Spass
.....
The In-house
.....
Ghost Collective
.....
Club Sans
.....
Simo Tse
.....
Bin Koh
.....
CAVA Life
.....
Dongwan Kook
.....
Naky Hwang
.....
Filed
.....
NAVER x
.....
NAVER Culture
.....
Foundation x
.....
AG Typography
.....
Institute
.....
TUKATA®
.....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이미주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바르셀로나 예술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다 2016년
귀국해 고향인 부산을 기반으로
일상의 순간을 수집하고 조형적
이미지로 재생산한 뒤 배열하는
공간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http://www.instagram.com/mijuleee>

MIJU LEE

Miju Lee rearranges everyday moments like puzzles, discovers formative principles among them, and hides playful elements that break those principles here and there. In doing so, she tries to embody something like a déjà vu that is full of familiar things but seems strange, realistic, and unrealistic at the same time. She is doing this through numerous methods whil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flat plane, three-dimension, and different genres.

Busan
<http://www.instagram.com/mijuleee>

여래신장(如來神掌)
나무에 페인트
6000×6000×5000 mm
2021

근두운을 탄 손오공이 세상 끝까지
날아가지만, 결국 부처의 손바닥
안이었다는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미주의 〈여래신장〉은
하나의 조각으로 우주라는 큰
그림을 이루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주의 작품은
거대한 힘과 커다란 것 사이에서
작디작은 우리를 인지하게 합니다.
어우러지고 가려지는 이질적인
조합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삶, 그 속에 염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Buddha's Palm
Paint on wood
6000×6000×5000mm
2021

In an old Chinese novel called *Journey to the West*, the Monkey King (a.k.a. Sun Wukong), flew to the end of the world on a cloud, but it was still in Buddha's palm. Miju Lee got the motif of this work from that story, and shows us how he composed a big picture of the universe in one piece. This work reminds us how we are very little beings among huge forces and giant things in the world to shed light on a variety of lives that blend, hide, and create different pictures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them, thereby capturing messages of desire and support of it.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 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엘모는 2003년 토마스 쿠데르크와 클레망 보체스가 설립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주로 프랑스의 문화 기관이나 다양한 전시, 페스티벌 등의 클라이언트와 협업하며, 포스터, 북 디자인, 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이너지 디자인과 같은 폭넓은 분야의 작업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특한 표현을 선보여왔습니다.

몽트레유
<http://www.helmo.fr>

HELMO

Helmo was founded in 2003 by Thomas Couderc and Clément Vauchez. The duo works in the broader scope of the graphic design field: image production, posters, signage, editorial design, and so on. They've mostly been collaborating with French cultural institutions and festivals. They also have created a more autonomous expression through books, prints, and exhibitions.

Montreuil
<http://www.helmo.fr>

삶/사랑

디지털 프린트, 라이트패널
 각 3000 × 1500 mm
 2021

엘모가 보기에 라이트박스 여섯 개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제목의 단어를 기호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I' 위에 동그라미를 넣고 'O'로 읽게 해서 'LIVING'이라는 단어가 'LOVING'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기호가 됩니다. 두 개의 생생한 단어가 뒤섞인 이런 이중 읽기는 기하학적으로 채색된 글자 사이의 긴장감과 존재의 유쾌한 이중성을 구현하듯 손으로 직접 그린 선들이 겹쳐 생긴 활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암울한 분위기를 속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게 퍼뜨립니다.

Living/Loving

Digital print, light panel
 each 3000 × 1500 mm
 2021

It felt evident to us that the best way to make use of the six light boxes was simply to present the title words as a sign. It's a sign where the dot over the 'I' might be read as an 'O', transforming the word LIVING into LOVING. This double reading, the interweaving of two vibrant words, lets an optimistic message beam out into the global post Covid-19 context, the tension between the geometrically coloured letters and the vigor of the superimposed hand-drawn lines embodying the joyful duality of being.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스튜디오 스파스는 아론 코르비누스와 단 멘스가 2008년에 설립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브랜딩, 전시 아이덴티티, 웹사이트 및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엄격하고, 사려 깊고, 지적인 접근법을 유쾌적인 감성과 결합해왔습니다. 이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모두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혁신적인 개념적 사고뿐 아니라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완성하려 합니다. 아론과 단은 스튜디오의 결과물을 계속 감독하면서, 다양한 전문가 팀과 보다 폭넓은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고객과

함께 일할 때 진정한 협업 속에서 최고의 시각적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렇다 해서 고객의 브리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의 생각에 도전하고 작업을 해나가며 자신들의 디자인이 올바른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즐깁니다.

로테르담
http://www.studiospass.com

〈수명〉은 스튜디오 스파스가 선보이는 수행적 인쇄 설치 작품이자 한국의 부적에서 영감받은 여러 겹의 종이 설치 작품으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인쇄된 여러 겹의 색종이로 이루어집니다. 각각 다르게 디자인된 색종이들은 장수를 뜻하는 열 가지 상징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라틴 알파벳, 한자, 한글이 통합됩니다. 한 장 한 장마다 각각 다른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한 점씩 보여주되 관람객에게 일반적으로 전하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작품은 수행적으로 한 장씩 공개됩니다. 작품은 시간을 뜻하는 자연과 예술의 시각적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설치 작품을 통해 작가들은 타이포그래피와 삶의 관계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수명
디지털 프린트, 색지,
나무에 페인트
3600 × 5300 × 300 mm
2021

STUDIO SPASS

Studio Spass is a Rotterdam-based agency that works across print, branding, web, and spatial design projects. Founded by Jaron Korvinus and Daan Mens in 2008, the studio combines a rigorous, considered and intelligent approach with a playful sensibility. They understand that powerful and effective visual communication needs both original ideas and faultless execution, and the team prides itself on its perfectionist eye for the little details as well as its innovative conceptual thinking. Jaron and Daan continue to oversee the studio's output and have built a diverse team of specialists as well as a wider

network of creatives on which they can draw. Studio Spass works closely with clients and believes in genuine collaboration to develop the best visual solutions possible but that doesn't mean slavishly following a brief—rather they like to challenge their clients and make sure their designs are answering the right questions.

Rotterdam
http://www.studiospass.com

Lifespan is a performative print installation and a multi layered paper installation inspired by Korean Bujeok talisman paper. *Lifespan* consists of 12 layers of coloured paper with a printed typographic design. Each layer is uniquely designed and makes references to the 10 symbols of longevity.

Within the layers Studio Spass integrates the Latin alphabet, Kanji, and Hangeul. Each individual sheet displays a piece of the typographic work but also holds a general message of positivity for the visitors of the biennale. For duration of the biennale, the work is revealed layer by layer in a performative way. The work is inspired by natural and artistic visual elements that refer to time. With this installation Studio Spass researches the relation between typography and life.

Lifespan
Digital print, colored
paper, paint on wood
3600 × 5300 × 300 mm
2021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기업의 유령들은 백나은, 이현송, 한만오로 이루어진 디자인 콜렉티브 그룹입니다. 유령들이 뒤집어쓴 침대보 안쪽에는 수많은 비밀이 살고 있습니다. 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로부터 비롯한 만남, 채택되지 않은 채 끝내 버려지는 기록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실 위에 천을 한 겹 드리운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비현실적 존재인 유령처럼 기업의 유령들은 여러 조건 속에서 시도할 수 없었거나 버려진 아이디어가 제약을 벗었을 때 새롭게 발견되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이미지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서울
<http://www.instagram.com/theinhouseghosts>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is a design collective group consisting of Naeun Baek, Hyeonsong Lee, and Mano Han. There are many secrets behind the images of ghosts behind the bedsheet as seen in movies and cartoons. Designers working for companies hide various projects, encounters that result from them, and records that end up being abandoned without being adopted by companies in the end. Like a ghost, an unrealistic being that moves freely with a layer covered on top of reality,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explores the potential of images that are newly discovered or interpreted differently when

restrictions are lifted from some abandoned ideas under various conditions.

Seoul
<http://www.instagram.com/theinhouseghosts>

Make a Wish!
 웹아트
 3740×730 mm
 2021

Make a Wish!
 Web art
 3740×730 mm
 2021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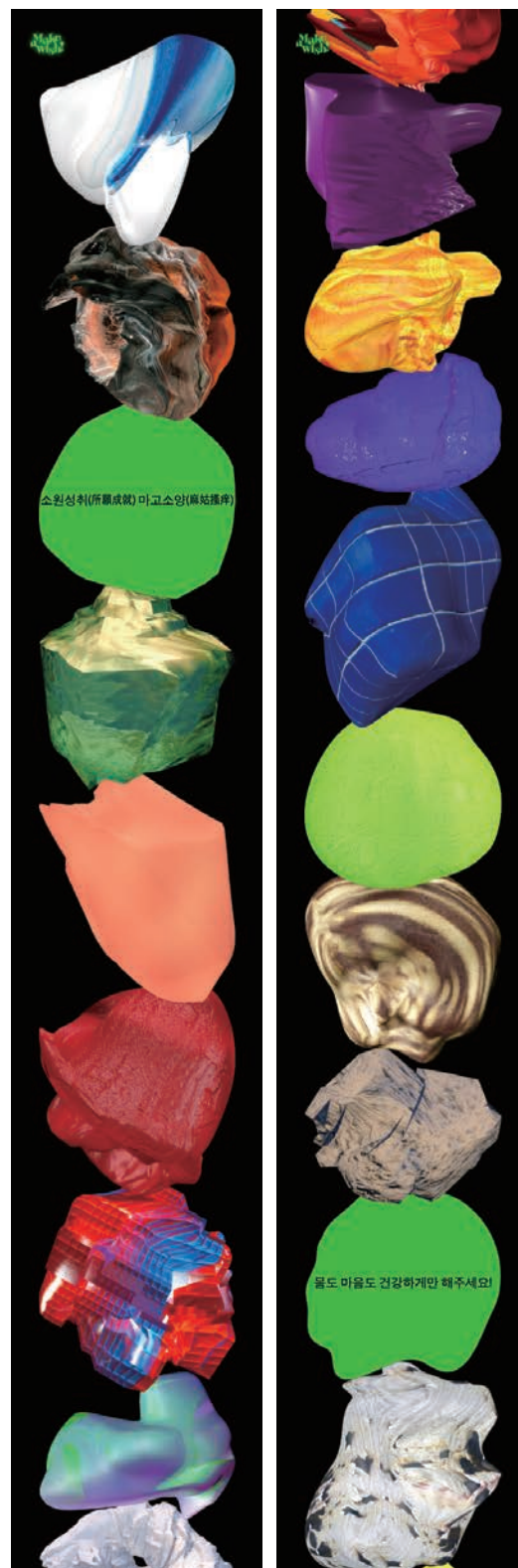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있음과 없음, 0과 1. 그 사이의 무수한 사념과 감정 속에서 욕망은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끝없이 긴 이름,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부적, 한 권의 책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 한켠에 존재합니다. 기업의 유령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가장 원초적인 기원의 형태인 돌탑을 실재와 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상상합니다.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상의

공간에서 끝없이 쌓이는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의 돌은 늘어나는 스크롤의 길이만큼 점점 그 욕망의 크기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참여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소원을 빌고 돌을 쌓는 순간, 전시장의 스크린은 이를 동기화해 오프라인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다채로운 욕망이 무한대로 쌓여 나가는 '디지털 돌탑'이자 '가상의 방명록'으로 변모합니다.

In the myriad of thoughts and emotions between life and death, creation and extinction, end and beginning,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0 and 1, the feeling of desire is the moment and trace of inner needs gaining form. The In-house Ghost Collective tactfully crosses the boundaries of reality and virtuality—analog and digital worlds—and collects various wishes and desires of people that exist in the real world. Then, the group expresses them in the form of the most

primitive stone tower from ancient times, and imagines the form of ever-changing desires in a futuristic language. Stones accumulated in the digital space that is free of gravity gradually grow in size as more participants scroll over the image. As soon as the stones made by the participants are piled up on the website in real time, the graphics on the monitor at the exhibition hall also change in real time, visually showing the "digital stone tower" and "virtual guest book."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클럽 쌔은 비주얼과 공간을 다루는
김슬, 공간과 오브제를 다루는
루카스 라몬드가 2019년에
결성한 열린 형태의 디자인
컬렉티브입니다. 감각과 공간을
관통하는 그들의 작업은 결국
하나의 경험으로 남는 메시지를
제안합니다.

서울, 랭스
<http://club-sans.webflow.io>

CLUB SANS

Seul Kim, a designer who
deals with visual images and
spaces, and Lucas Ramond,
a designer who deals with
spaces and objects, have
been working as a loose form
of design collective named
Club Sans since 2019. Each
of their projects that goes
through senses and spaces
suggests a message that
remains as an experience.

Seoul, Reims
<http://club-sans.webflow.io>

“내 이름은 AN이야. 너의 이름은?
우수수 쏟아진 거인 AN의 집들.
거울, 파이프, 알루미늄 호스,
안테나, 커다란 공, 재단된 나무들.
이 집보따리는 너의 이름은?” 클럽
쌔은 작품을 통해 거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글 조각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소리를 갖고(음절), 음절은
결의 음절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이룹니다. <집>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움직임은 거인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너의
이름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관람객은 한글의 형태, 읽는
방법, 소리, 의미를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관람객이라면, 그는
소재들을 보며 ‘거참, 무슨 관계란

걸까?’ 가우뚱할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형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은
그의 탄생과 발견의 순간에
이름을 갖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태어나고, 약속을 통해
존재합니다.

집
카펫, 적벽돌, 연통,
동파이프, 철망, 각목,
꽃(국화), 자바라, 바구니,
위성안테나, 파라솔,
애드벌룬, ALC블럭
가변크기
2021

Club Sans composes the
giant’s message asking “My
name is AN. What’s your
name? Things in Giant AN’s
luggage are poured with a
rustle: a mirror, pipe, alu-
minum hose, antenna, large
ball, pieces of cut-out wood.
What’s your name?”

The pieces of Hangeul have a
sound (syllable)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movement,
and the syllables form a
meaning by connecting them
with other syllables placed
side by side. The movement
of viewers looking at *JIM*
reads the message of the
giant. “What’s your name?”
If the message was found,
it means the viewer learned

the form of Hangeul charac-
ters, how to read them, and
their sound and meaning.
Then the viewer will introduce
their name. For a viewer who
does not know Hangeul, they
would look at the materials
and wonder what relationship
there is between them. What
is your name? People, ani-
mals, objects, or even things
without shapes—as long as
they exist—get names at the
moment they are born or
are discovered. That is how
relationships are born, and
they exist through promises.

JIM
Carpets, bricks, stove
pipe, copper pipe, wire
mesh roll, lumbers,
flowers(chrysanthemum), flexible alumin-
ium duct, baskets,
reflector antenna,
beach umbrella,
advertisement balloon,
ALC blocks
Variable size
2021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시모 체는 2020년 샌드버그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이자 독립
연구자로, 우리가 느끼는 친밀함과
소외감 사이를 탐구합니다.

암스테르담
<http://www.simo-tse.work>

태양도 별이다
디지털 프린트, 아크릴,
금속, 사모아 동전,
여권사진, 시계 부품
2000 × 1000 × 550 mm
2000 × 1000 × 550 mm
200 × 250 × 70 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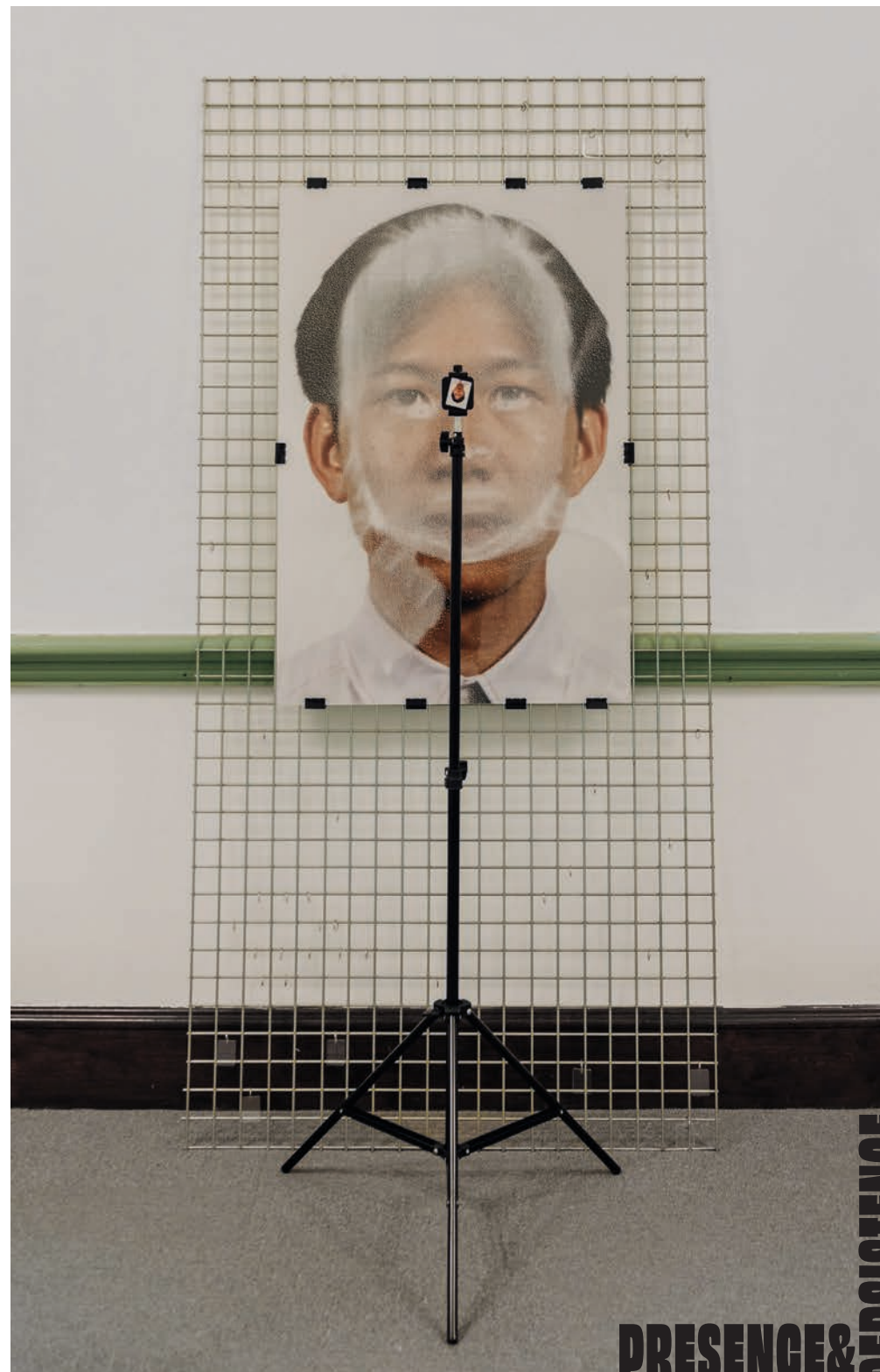
A Sun Is Also a Star
Digital print, acrylic,
metal, Samoa coin,
passport photo,
quartz clock
2000 × 1000 × 550 mm
2000 × 1000 × 550 mm
200 × 250 × 70 mm
2021

SIMO TSE (SIMPSON TEK FAI TSE)

Simo Tse is a graphic design-
er, artist, and independent
researcher. He enjoys
accumulating anecdotal and
biographical fragments into a
constellation of coincidence,
glitches, and plot twists,
which resulted in the forms
of printed matter, moving
image, installation, and par-
ticipatory art. A recent grad-
uate from Sandberg Instituut
(2020), Tse is currently
base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Amsterdam
<http://www.simo-tse.work>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사람이 열 시간 동안 비행해
시간대를 옮겨가 두 살을 더
먹는다면, 섬에서는 1년 중
하루를 더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우리가
풍경으로 시간을 알 수 있다
해도 그 풍경조차 순수하지 않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맥락을
구현할까요?

시간을 통일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1582년 처음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뀐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1884년에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계절 일조량에
따른 서머 타임 개념은
1907년 이후에나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의 균일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재조정하는 컴퓨터는 수정
발진기에 의존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제 표준시간 측정기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과학자, 양자 물리학자,
철학자, 예술가는 모두 시간이란
고정되어 있고 편재하며
확립되어 있다는 개념에 의문을
품고 맹렬하게 재검토해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시모 체의 <태양도 별이다>는
우리가 '시계의 시간'이라 일컫는
것, 즉 인간의 발명품이자 사회
전반에 걸쳐 삶과 사회적 거래의
궁극적인 조절 장치라 할 수 있는
시간의 신축성과 압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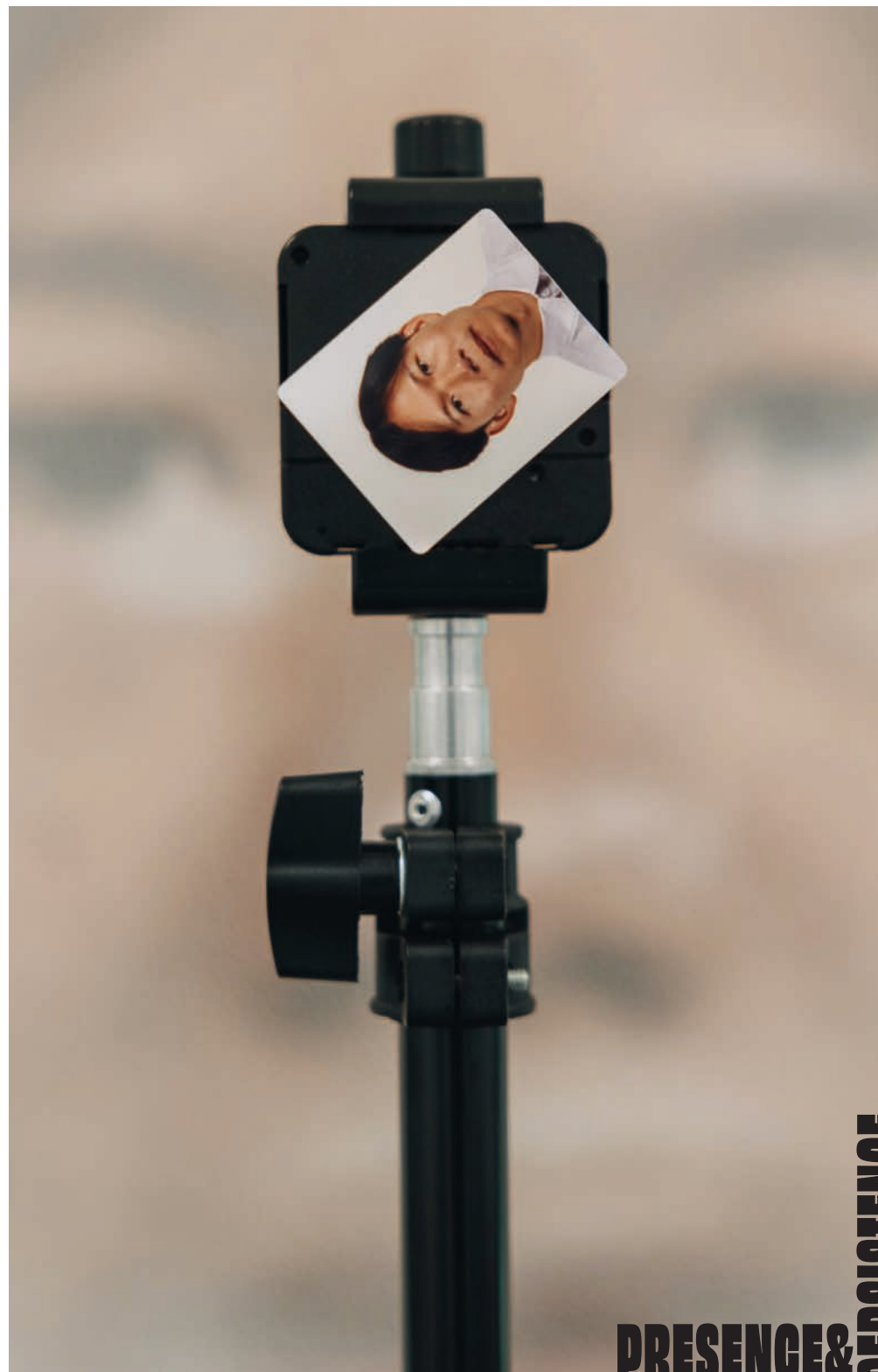
If a person could gain 2 years
of age over a 10-hour flight
time, then an island could
leave one day out of the year;
the sun rises and the sun sets,
not even our timekeeping
landscape is innocent. When
is time "made" and by whom?
What temporal context do the
makers embodied?

The campaign to uniform civ-
ic time has been a planetary
effort since the conversion
from Julian to Gregorian cal-
endar begun in 1582, leading
up to the International Merid-
ian Conference held in 1884.
The idea of daylight saving
was not introduced and
implemented until after 1907.
Constantly updating and

readjusting to the uniformity
of time, computers rely upon
a quartz crystal oscillator
and link up with international
standardised time keeper
through the internet.

On the contrary, this notion
of time being fixed, ubiqui-
tous and uniformed has been
intensely re-examined by sci-
entists, quantum physicians,
philosophers, and artists
alike. To take part in this con-
currency, *A Sun is Also a Star*
questions the stretchability
and compressibility of what
we designate as "clock time,"
as a human invention and the
ultimate regulator of life and
social transactions across
different societies.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고경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로, 성신여자대학교와 샌드버그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습니다. 디지털 노동 체제에서 여성의 몸과 목소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전유되는지를 현대성과 적대성 사이의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접근합니다.

암스테르담
http://www.binkoh.site

고경빈의 〈사적 영역의 기계들〉은 기계에 의해 노동에서 해방되는 상태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체코의 철학자 빌렘 플루서는 저서 『몸짓들』에서 기계에 의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대신, 우리 삶의 유일한 명분이자 의미가 되어버린, 그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치의 일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작가는 인간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가전 제품들의 변조를 상상합니다. 인간이 양육되고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디지털화하고,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가전 제품이 복잡한 재귀적 알고리즘을 갖게 될 때 가사 노동에 임하는 인간은 어떻게 이 새로운 장치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예견되는 가사 노동의 궤적을 좇으며 소외된 가사 노동의 비가시성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사적 영역의 기계들
디지털 프린트,
플라스틱, 금속
1700×600 mm
2000×900 mm
1800×450 mm
2021

BIN KOH

Bin Koh is a visual artist based in Amsterdam. She holds an MA from Sandberg Instituut, Master of Voice. Bin's practice—from graphics, to voice and performance—focuses on how the visual and aural presentation of the female body and voice are mechanized in digital and social labor systems. Her research formalises in a visual/performative language with a spectrum of hospitality and hostility.

Amsterdam
http://www.binkoh.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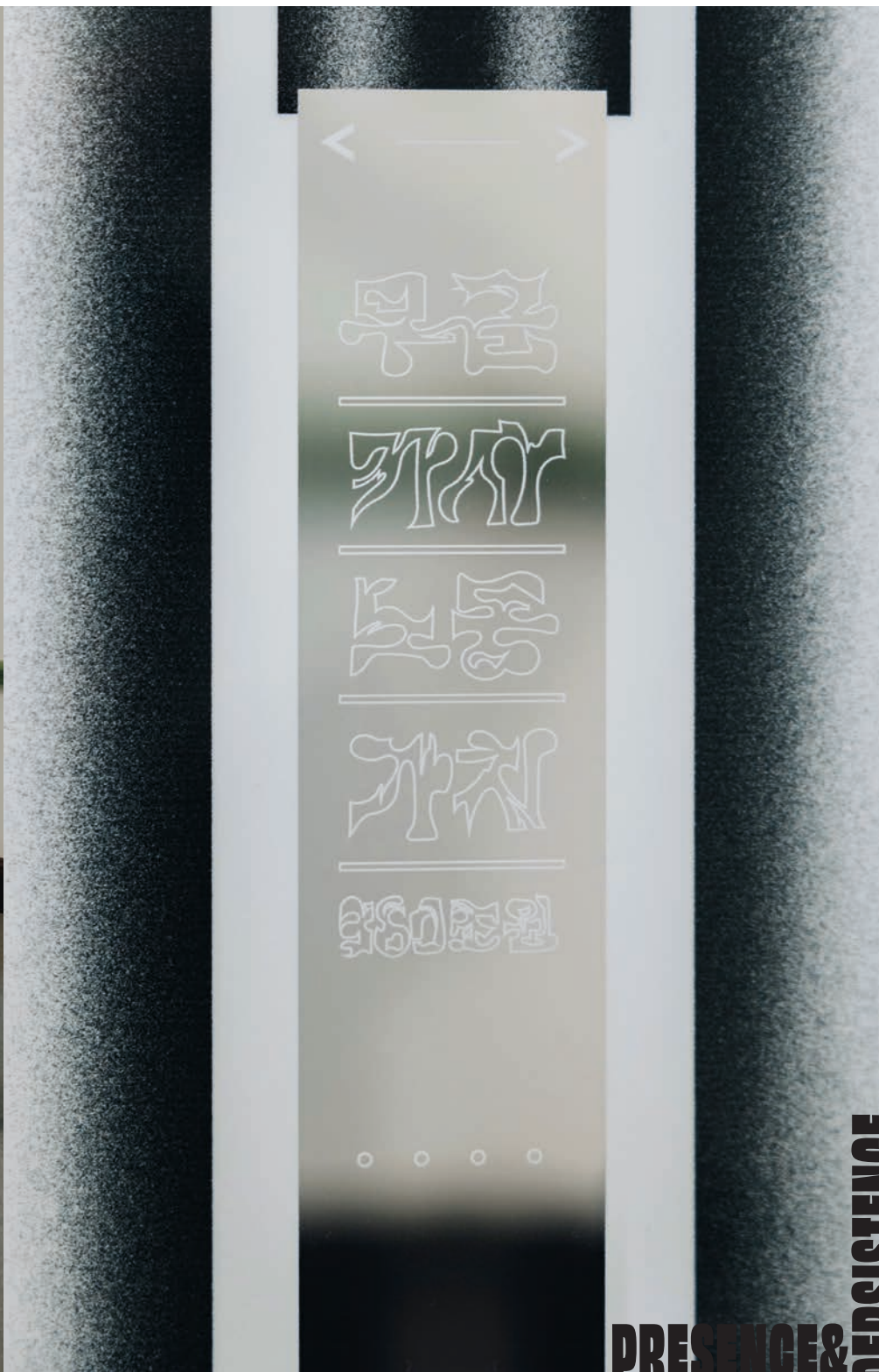
Machines in the Private Domain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at it is like to be freed from labor by machines. The Czech philosopher Vilém Flusser emphasizes in his book *Gestures* that the state liberated from labor by the machine does not become a subject of history, but only serves as a function of consumption and apparatus.

For this work, Bin Koh imagines the modulation of home appliances in a domestic environment. When homes become digitized and home appliances become more complex and recursive, how can humans who are working for domestic labor live and adapt with this new apparatus? She tries to follow the trajectory of speculation of domestic labor in the new digital environment, hoping that the invisibility and alienation of domestic works become more visible.

Machines in the Private Domain
Digital print,
plastic, metal
1700×600 mm
2000×900 mm
1800×450 mm
2021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카바 라이프는 문화 예술계 창작자를 발굴하고 소개하며,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에 주목하는 온라인 아트 커머스 브랜드입니다. 브랜딩, 공간 컨설팅, 아트 컬래버레이션 등 스튜디오 프로젝트와 아티스트 에이전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ca-va.life

만질 수 없는
타이포그래피 시리즈
나일론, 고무
가변크기
2021

Contactless
Typography Series
Nylon, NR rubber
Variable size
2021

동시대 작가들의 플랫폼이자 아트 커머스 브랜드인 카바 라이프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와 협업한 새로운 그래픽 제품 시리즈입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된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열네 번째 전시 《만질 수 없는》에서는 참여 디자이너들이 올린 가상의 페이지들이 소개되었고, 관람객들은 네 가지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공감각 속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카바 라이프와의 이번 협업은 전시 출품작 중 일부를 라이프 스타일 용품으로 전환해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카바 라이프의 디렉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이 자신의 영역과 관점에서 '카바 셀렉티드'라는 이름으로 선정한 작품들이 도어 매트와 멀티 패브릭 상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 전시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한 것과 달리 '만질 수 없는' 상태였던 전시 속 데이터를 물성을 가진 매체로 변환하는 상황에 대한 탐구이자 다양한 시각으로 디자인을 바라보려는 이 시도는 카바 라이프의 웹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CAVA LIFE

CAVA Life was launched in Seoul in April 2018 as a new art commerce platform that connects cultural and artistic cre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consumers seeking new and prosperous lives. By editing and curating the works of artists who work in various fields such as painting, furniture, photography, ceramics, graphic design, video, music, food, etc., CAVA Life will play a role in connecting artistic experiences and consumption in everyda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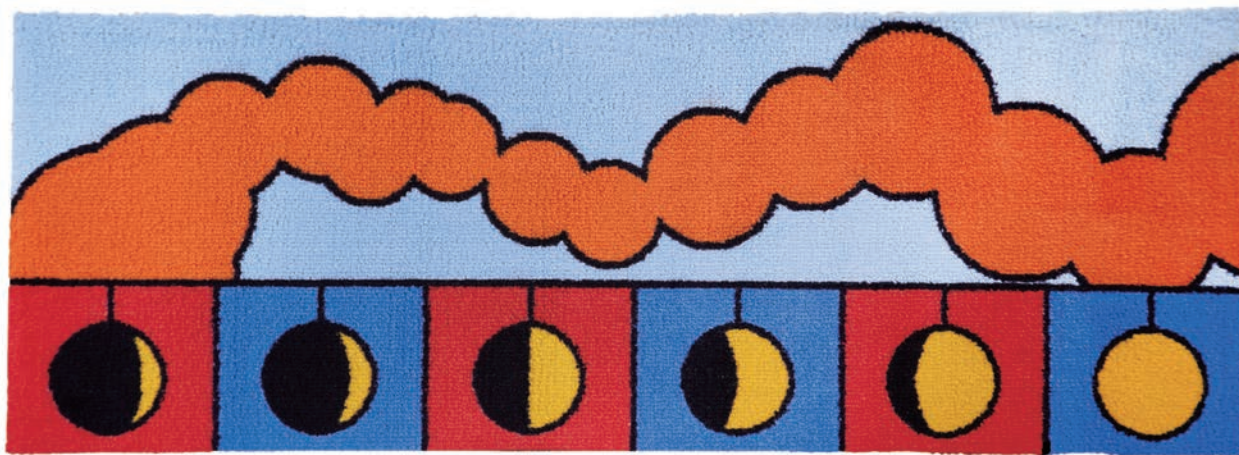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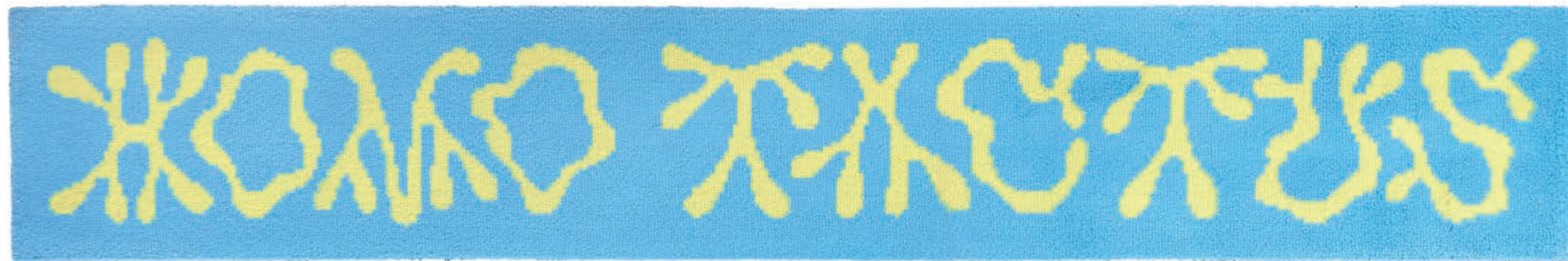
Seoul
http://www.ca-va.life

The 14th exhibi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was held online showcasing four web spaces with different interactions. The viewers were able to enjoy various works displayed in virtual pages by our participating designers (artists). The collaboration with CAVA Life was an online distribution project that gave life to some of the works on display into lifestyle products. These products were selected exclusively under the name CAVA Selected and include products such as door mats and multi-fabric products.

Unlike the previous prize exhibitions' where winners were awarded, a new concept of data transformation was explored. The "untouchable" virtual design was transformed into a "touchable" physical form, allowing the flexibility to weave in and out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design. You too, can explore this transformation now at www.ca-va.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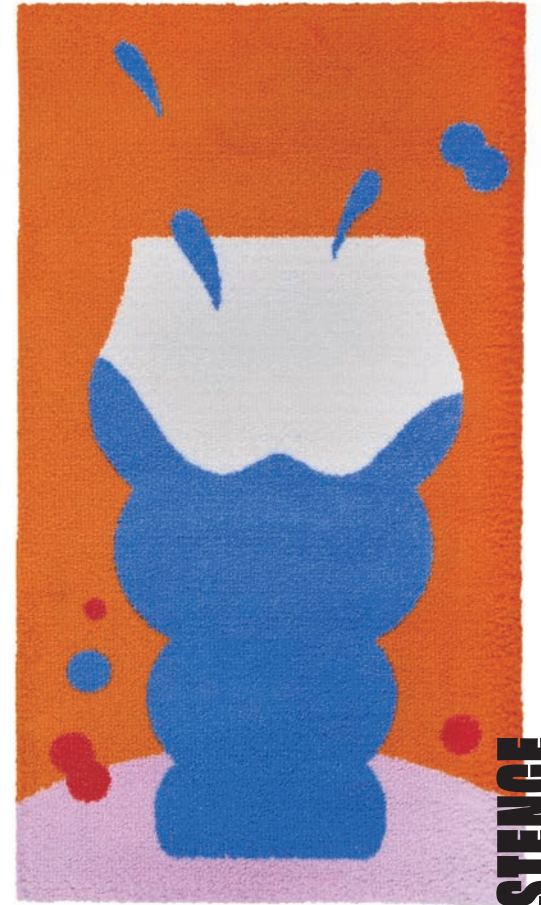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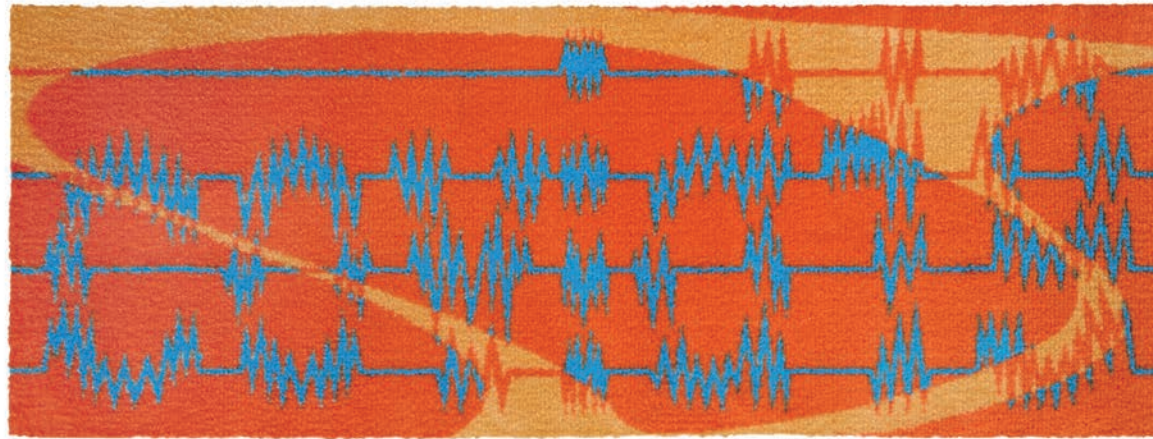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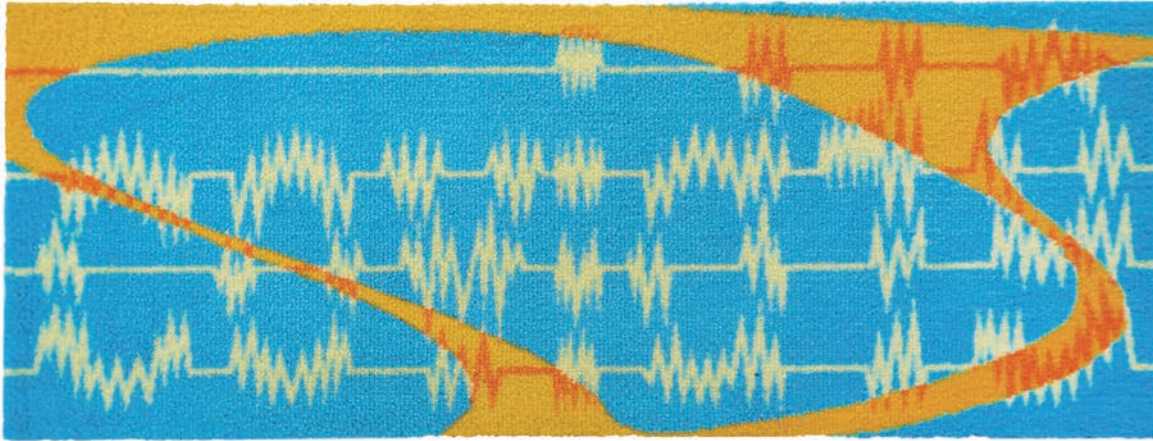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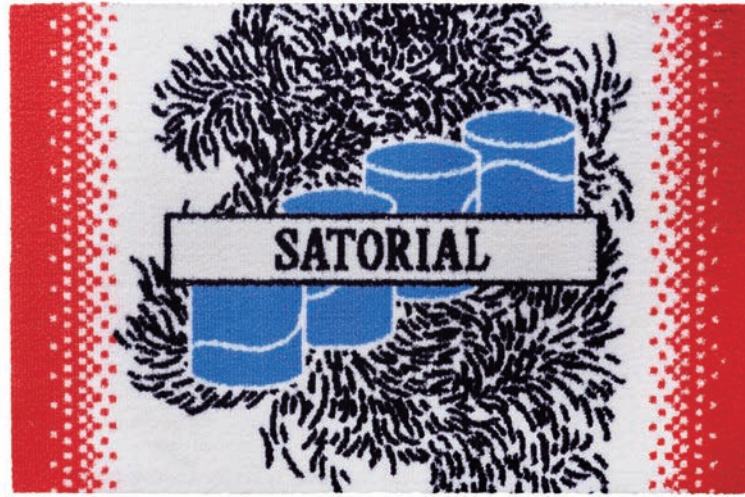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국동완은 드로잉, 회화, 조각, 책 작업을 통해 무의식과 무의식에 접근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2007년부터 지속해온 꿈 아카이브 작업은 자신과 꿈의 관계를 언어와 기억의 자의적 관계에 빚대어 책과 조각의 특성에 녹여냅니다. 자유 연상을 활용하는 작가 특유의 드로잉 방식인 '회광반조'(回光返照)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도구이며, 작가는 이렇게 건져 올린 무의식을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으로 드로잉을 수백 배 확대하는 회화 연작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꿈을 다루면서 단련된 시선을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사회 현상으로 옮기며 개인과 사회의 조형적 접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kookdongwan.com>

DONGWAN KOOK

Dongwan Kook deals with the unconscious and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unconscious through drawing, painting, sculpture, and books. While archiving her dreams since 2007, Kook has transfo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rself and her dream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and sculptures by comparing them to the arbitrary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memory. As she once said, "Returning the illumination to the source of light (回光返照)" is a unique drawing style for the artist, someone who uses free association. It is her way to discover herself living in the present and she develops a

series of paintings that magnify the drawing hundreds of times by observing the unconscious. As she deals with her dreams, Kook shifts her disciplined gaze to social phenomena that penetrate her life, paying attention to the formative interface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Seoul
<http://www.kookdongwan.com>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국동완의 자유 연상 드로잉은 그림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 위에 종이를 놓고 그 아래에서 빛을 비춰 생겨난 이미지의 형태에 손이 자동으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손을 방해하지 않으며, 밑그림 없이, 수정하지 않고, 그려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글자의 모습으로 남은 무의식의 흔적을 그린 드로잉에는 일견 글자와 상관없이 보이는 이미지가 출몰하곤 합니다. 그 이미지들은 드로잉이 일어나는 종이 아래에 놓인 글자의 크기, 글꼴, 굵기, 글자 사이 공간 같은 구체적인 요소에 작가의 손이 즉각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900 × 확대’ 연작은 이렇게 탄생한 드로잉을 900배 크기로

확대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900배’는 작가가 두 팔을 사용해 그려낼 수 있는 최대한을 시험한 뒤 얻어낸 수치입니다. 드로잉을 확대해 다시 그리는 일은 작가가 10년 넘게 꿈을 기록하고 반복해 읽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꿈의 기록이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듯 자유 연상으로 붙잡은 내면의 이미지들은 그리는 몸짓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확대 작업은 드로잉에서 여백으로 남겨진 선을 종이 테이프로 캔버스 위에 ‘그리고’, 주변을 칠한 뒤 테이프를 뜯어냄으로써 면과 선의 위치를 서로 뒤바꾸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같은 그림을 그리는 정반대의 몸짓과 스케일, 우연성을 통해 알 수 없는 세계를 반복해 바라보는 일일지 모릅니다.

Dongwan Kook's free association with drawing captures the images generated by her hand, and automatically reacts to the shadows created by the light behind the objects that she wants to draw. She does not interfere with the hand's movement, does not sketch, does not modify the images, and accepts everything that is drawn. As a result, her drawings frequently show images that seem irrelevant to the objects under the paper. In this work, the images are the immediate response of the artist's hand to specific factors such as the size, font, weight, and letter space of characters placed under the

paper where the drawings take place. The 900 × Magnification series was created by painting the drawings revealed in such a way to be 900 times bigger.

The 900-fold magnification is the result of her calculation after she tried drawing the maximum scale she could draw using her arms as a tool. The reason for painting the drawing in an enlarged scale is in the same context with her act of recording and reading her dreams repeatedly for more than a decade. Just as the record of her dreams feels different every time she reads them, the inner images that

발생 900 ×
캔버스에 아크릴페인트
900 × 1800 mm
2020

Outbreak 900 ×
Acrylic on canvas
900 × 1800 mm
2020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발생 900 x〉는 종이에 흑연으로 그린 드로잉 〈발생〉을 900배 확대한 작품이며 〈집에 머물러 주세요 900 x〉는 종이에 흑연으로 그린 드로잉 〈집에 머물러 주세요〉를 900배 확대한 작품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유독 새삼스러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머물러 주세요, I promise I stay, 2020, 거리, 발생, 유행, 집단, 연결 등...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는 복잡한

감정의 다짐을 받아냈고, 뉴스와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그 말들은 점점 많은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숫자 '2020'이 지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 사회의 상징이나 '유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패션보다 전염병을 떠올리게 하는 등의 익숙한 듯 낯선 상황이 자신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고픈 마음으로 작가는 작업에 임했습니다.

집에 머물러 주세요 900 x
캔버스에 아크릴페인트
2700 x 2700 mm
2020

Stay at Home Please 900 x
Acrylic on canvas
2700 x 2700 mm
2020



she catches through free association appear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stures in which she paints them. When the magnification work is done, she attaches paper tape onto the lines left blank in the drawing, paints the surroundings, and tears the tape off to reverse the original positions of the faces and lines. Thus, it is like looking at an unknown world repeatedly through opposite gestures and scale, with a coincidence in painting the work based on the same drawing.

Outbreak_900 x is a 900-fold magnification painting of the drawing *Outbreak* that was drawn in graphite on paper.

Stay at Home Please_900 x is a 900-fold magnification painting of the drawing *Stay at Home Please* drawn in graphite on paper. In 2020, when the pandemic started. This was a time when a lot of words and terms began to be used quite commonly: stay at home, I promise I stay, 2020, distancing, outbreak, trend, group, connection. When recommended to stay at home, people experienced complex emotions, and words repeatedly heard in the news and communities have gained more serious meaning over time. The artist carried out this work with the desire to see how seemingly familiar but unfa-

miliar situations—such as the number “2020,” which was a symbol of future society in the past, and the Korean word “trend” made us think of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fashion for the first time—passes through herself.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황나키는 시각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과 우리의 삶, 그리고 그
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시각
언어와 시각 기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신적, 초월적, 명상적
주제를 몰입감 있게 표현하며,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인 VR에 집중하는 한편,
공간화한 그림 안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할지, 그를 통한 소통은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런던
<http://www.nakyeng.com>

NAKY HWANG

Naky Hwang thinks about
how visual language works
and our lives as well as the
new visual language and
visual symbols that are born
between them. She contin-
ues working with a focus on
VR, a medium that provides
a perfect sense of immersion
by making the viewer move
into digital images themselves
instead of giving materiality
to digital images. Today, she
thinks about what kind of
experience could be possible
in spatialized pictures and
how communication through
them could work.

Seoul, London
<http://www.nakyeng.com>

우리의 탄생지

VR 체험, 천에 디지털
프린트, 텐트 프레임
가변크기
2021

우리의 탄생지 지도

디지털 프린트, 목재 기념비
2800×2000×800mm
2021

우리의 탄생지 기념품

인스타그램 AR 필터
2021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날씨는

창문에 시트지
가변크기
2021

Our Birthplace

Interactive VR experi-
ence, digital printed
fabric, tent frame
Variable size
2021

Map of Our Birthplace

Digital print, wooden stele
2800×2000×800mm
2021

Our Birthplace Souvenir

AR filter via Instagram
2021

Weather the Day We Were Born

Printed vinyl on window
Variable size
2021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우리는 태어나기를 선택한 적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이해하고 납득하며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감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이용해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에 반응하거나 무시하고, 폐기하거나 저장하고, 망각하거나 반복하고, 분류하거나 보류하고, 보존하거나 가공하여 내부 세계를 제작합니다. 언어와 감각과 감정은 우리 내부 세계 제작의 좋은 도구입니다. 언어는 우리 내부 세계를 조형하며 이름 없는 경험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감각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포착하고, 감정은 그 자극을 분류합니다. 즐거움과 고통, 공포와 편안함, 슬픔과 기쁨

등 분류된 자극은 과거를 해석하며 미래를 제시해 현재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탄생지〉는 언어와 감각과 감정이 시각 기호로 번역되어 3차원의 좌표 위에 놓인 공간적인 지도입니다. 모든 지도가 그렇듯 〈우리의 탄생지〉는 기호화되어 축소된 이미 경험된 세계이며, 경험의 증거인 한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추상적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읽을 수 있는 암호이며, 앞으로 펼쳐질 경험의 안내자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해석된 세계를 새로운 버전의 세계로 등록하며 '출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탄생지〉는 연속적인 무빙 이미지와 공간적인

소리 지형으로 구성된 VR 설치 작업입니다. VR은 인터페이스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완전한 몰입형 미디어로 기능하며 1인칭 시점 관찰자의 체적 궤적이 내러티브를 구성합니다. 이런 특성은 관람객에게 내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공간적이고 정신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비롯해 생각, 의식, 감정의 지형 위를 걷는 공감, 체화, 의식 공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탄생지 지도〉는 우리의 탄생지를 읽어내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암호표이며 사진입니다. 〈우리의 탄생지〉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는 각각 뜻을 지닌 단어로서 기능하며 단어가 공간에

We were born without choosing to be born. We are all different, but the fact that we were (helplessly) born is the same. In order to live each individual life while understanding it, we use our ability to sense and perceive our lives, and then create an internal world by responding to images and texts provided by the outside world. We also ignore, discard, store, forget, repeat, classify, preserve, or process the images and texts in doing so. Language, sense, and emotions are good tools for creating our inner world. Language shapes our inner world and gives names to nameless experiences. The senses

capture stimuli from the outside world, and emotions classify them into pleasure, pain, fear, comfort, sadness, and joy, for example. Classified stimuli interpret the past, and suggest the future so that we can make choices in the present.

Our Birthplace is a spatial map in which language, senses, and emotions are translated into visual symbols and placed on top of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As with all maps, it is a symbolized, reduced world that some already experienced, and evidence of experiences, while it is also an abstract image to those who cannot

understand it, but a readable code to those who do understand it. If properly read, it is a guide to our future experiences, and an attempt to interpret the world and to register and "publish" the interpreted world as a new version of the world. *Our Birthplace* is a VR installation consisting of continuous moving images and spatial soundscapes. VR functions as a fully immersive media by erasing the existence of the interface, allowing the trajectory of first-person viewers to construct narratives. These media characteristics give viewers a direct, immediate, spatial, mental, and personalized experience of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놓였을 때, 각자의 행동 규칙을 가지며 운동할 때, 우리의 읽기 방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탄생지 지도>는 <우리의 탄생지>를 통한 VR 경험과 관람객의 현실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장치로서 틈 사이에 놓인 다리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날씨>는 우리의 탄생지를 구성하는 좌표면 이미지가 부착된 창문입니다. 일련의 작업이 '가상' 세계를 '현실'에 '증강'하려는 시도라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날씨는 창문을 통해 '현실'을 '가상' 세계에 '증강'하려는 시도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부 풍경이 좌표화된 창문이라는 렌즈를 투과해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이를 붙여지고 번역됩니다.

looking into their inner side. It also gives them a shared experience of empathy/learning/consciousness while walking on the terrain of thought/consciousness/feeling.

Map of Our Birthplace is a code-decode table book and dictionary that can be referenced to read *Our Birthplace*. The images and sounds that make up *Our Birthplace* function as words with their respective meanings, and when they are placed in a space, and when they move with their own rules of conduct, our reading style changes. *Map of Our Birthplace* serves as a device that bridges the

<우리의 탄생지 기념품>은 기념품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차용한 <우리의 탄생지>의 조각입니다. 종종 기념품은 여행—우리 일상과 다른 경험—에서 돌아와야 할 때 인상과 기억으로만 남을 그 경험을 스스로 반추하거나 현실 공유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획득됩니다. AR 필터로 제작된 작업을 관람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현실로 들여오며, 가상 현실에서의 경험을 증거하고 기억하고 현실과 연결하며 현실 공유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gap between VR experience through *Our Birthplace* and the reality of viewers.

Weather of the Day We Were Born is a window attached with a coordinate image that forms *Our Birthplace*. If a series of works is an attempt to augment the virtual world to reality, it is an attempt to augment reality to the virtual world through a window. The outer landscape, which changes every minute, penetrates the lens (called a coordinated window), and is named and translated in different ways every minute. *Our Birthplace Souvenir* is a fragment of *Our Birthplace* which borrows the meaning

and role of souvenirs. Souvenirs are often acquired in order to reflect on an experience—something that would remain only an impression or memory when people have to return from a trip (different experiences from our daily lives)—or prove it to other people who share reality. Viewers will bring the work produced through the AR filter into their reality using their smartphones, prove/remember their experiences in virtual reality, connect the experiences with reality, and share them and talk about them with "reality sharers."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파일드는 강경희, 유현선, 이민주, 이소정, 정다혜로 구성된 이미지 기반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2017년부터 사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와의 조합을 통해 이미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집 『Filed SS 2020』(2019), 『Filed: The Book of Filed Images』(2017)를 발간했으며 전시 《PLAANTS》(2021), 《Filed SS 2020》(2019)을 기획하고 《Let's Dive ART STREET》(2020), 《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2020)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http://www.filed.kr>

FILED

Filed is an image-based project group composed of Kyunghee Kang, Hyunsun You, Minjoo Lee, Sojung Lee, and Dahye Jung. Since 2017, the group has been exploring various possibilities of images through combinations with other fields, focusing on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The group published photography books such as *Filed SS 2020* (2019), *Filed: The Book of Filed Images* (2017). They also curated exhibitions such as *PLAANTS* (2021) and *Filed SS 2020* (2019) and participated in *Let's Dive ART STREET* (2020) and *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 (2020).

Seoul
<http://www.filed.kr>

잃어버린 이미지
디지털 프린트, 나무,
아크릴, 금속
2200 × 7000 × 1200 mm
2021

Missing Images
Printed vinyl, wood,
acrylic, metal
2200 × 7000 × 1200 mm
2021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대체 텍스트'는 웹 브라우저상에서 이미지를 렌더링할 수 없는 경우 대신 표시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 링크가 유실됐거나 인터넷 연결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경우 이미지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온전히 글만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이미지를 대체하기에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이 차이는 이미지가 유실된 링크에서 극대화됩니다. '엑스 박스'와 대체 텍스트만 남은 하이퍼링크는 몇 가지 단어 조각으로 잃어버린 이미지의 힌트를 줍니다. 파일드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간극에 남겨진 힌트를 바탕으로 잠시,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이미지의 몽타주를 구성합니다.

An alternate text is a text string that appears instead of an image that cannot be rendered on the Internet. It is used to show information about an image when the link to the image is lost or when the Internet connection speed is slow. Therefore, an alternative text strives to convey the information of the image clearly in writing. However, the properties of text and images are too

different for the text to completely replace the image. This difference is maximized on links where images are lost. A link with only an x-box and alternate text gives viewers a lost image with several word fragments. Based on hints left in the gaps between images and texts, Filed constructs montages of the images that may have been lost for a while, perhaps forever.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글꼴은 하나의 '형'(形)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돌과 나무, 옹골과 같은 곳에 새기는 형이 있었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전하며 목활자와 금속 활자, 사진 식자에 의한 형이 있었습니다. 글꼴은 마치 진화하듯 환경에 맞춰 더욱 효율적이고 잘 읽히며, 동시에 미적인 형으로 변화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며 글꼴을 둘러싼 환경은 서서히 종이에서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부리꼴은 성공적으로 화면에 맞춰 형을 진화했지만, 부리꼴은 정체되었습니다. <마루 부리>는 화면 속 외면받고 있는 부리꼴을 여러 사용자와 의견을 나누고 반영해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 고유의 미감으로 표현한 <마루

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루 부리>를 통해 디지털 시각 문화가 더욱 우리답게 정돈되고, 한글의 고유한 미감이 디지털 기기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http://hangeul.naver.com>

마루 부리, 4년의 기록
디지털 프린트, 프로젝션
1400×8055×880mm
2021

**Maru Buri,
a Record of 4 Years**
Digital print, projection
1400×8055×880mm
2021

NAVER * NAVER CULTURE FOUNDATION * AG TYPOGRAPHY INSTITUTE

The font doesn't stay in just one shape. There were types of engraving in places such as stones, wood, and keel, and as paper and printing skills developed, there were printing types of wood type, metal type, and photographic type. The font became more efficient and readabl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s if it were evolving, and at the same time, it has changed into an aesthetic type. In the late 1970s, personal computers appeared, and the font environment gradually moved from paper to screen. During this process, the San-serif type successfully evolved to fit the screen, but the Serif type stagnated.

Maru Buri was designed by sharing and reflecting opinions with several users on the Serif type, which is being shunned on the screen. Starting with preliminary research in 2018, we introduce the four-year record of the *Maru Buri* font design process to be published on Hangeul Day in 2021. We hope that through *Maru Buri*, the digital visual culture will be more organized as who we are, and the unique aesthetics of Hangeul can bloom in digital devices.

Seoul
<http://hangeul.naver.com>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뚜까따는 이효진과 정하영이
설립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일상의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전달하고자
하며, 가치 있는 경험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http://www.tukata.kr>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코튼 패브릭,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1

**The World's
Longest Name**
Cotton fabric,
mixed materials
Variable size
2021

TUKATA®

Tyodi Hyojin Lee is the
co-founder/creative director
of TUKATA®, and Hayeoung
Jung is the co-founder/cre-
ative director of TUKATA®, a
Korean lifestyle brand. They
aim to reinterpret everyday
objects from a new perspec-
tive and deliver new values
to customers, and tries to
create a happy future by
delivering fresh insights
and valuable experiences to
customers with TUKATA®'s
long-lifestyle.

Seoul
<http://www.tukata.kr>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옛 선조들은 장수에 대한 욕망을 상상의 동물로 상징화했고, 이를 구전으로, 글로, 자수로, 또 벽화로 표현해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TBC에서 코미디언 서영춘과 임희춘 콤비 개그로 유명해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강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에 고양이 고양이에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하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처럼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시대에 맞는 제3의 기호로서 장수를 상징함과 동시에 대중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가상의 5대 독자도 실제 개그의 창작자도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리드미컬한 운율과 상징성, 대중들에게 주었던 웃음은 2021년 현재에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장수하고 있습니다. 뚜까따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각 이름의 기호들이 지닌 욕망과 상징성에 관해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관람하거나 품에 지닌다 해서 장수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장수를 기원하는 욕망을 담은 작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또는 건강한 웃음으로 비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TUKATA® intends to reinterpret the world's longest name, "Kim Suhanmoo Keobugiwa Durumi Samcheongabja Dong bangsak Chichigapo Sarisarisenta Woriwori Saepeurikang Moo-dosella Guneumi Hurricane Dambyeorak Seosaeng-wonae Goyangyi Badooki-neun Doldoln" in the artist's own style and talk about the desires and symbolism that each symbol of the name stands for, by using various materials. TUKATA® truly hope that the creator's sincere wish for people's longevity and wellness would be well delivered, evoking healthy laughter.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 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존재와지속 存在・持續

PRESENCE & PERSISTENCE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0-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토크
2021년 5월 1일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숍
2020년 12월 14일~22일
문화역서울 284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는 본 전시에 앞서 주제를 미리 탐색하며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행사로, 감독의 재량에 따라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사이사이 2020-2021'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워크숍과 2021년 5월 1일의 토크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행사는 '문자와 생명'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Typojanchi saisai 2020-2021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alk
May 1, 2021
Online Youtube streaming

Workshop
December 14~22, 2020
Culture Station Seoul 284

Typojanchi saisai is a pre-biennale to explore its themes and present expectancy and possibilities prior to the main event. It consists of diverse channels such as symposia, workshops, and exhibitions at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Typojanchi saisai this time had workshops on 14~22 December, 2020 and a talk on 1 May, 2021. The workshop and the talk are the results of attempting to search for diverse possibilities that can be expressed with the combined two words of letter and life.

총감독
이재민

기획 총괄
이재민 / 박이랑 / 조효준

토크
양수현 / 정다운 / 소피아 어스터후스
(비그 스튜디오) / 하기와라 쉐야 /
박영신 / 에리히 브레히틀

워크숍
정효 / 이영연 (저스트프로젝트) /
오혜진

프로젝트 매니저
진혜진

코디네이터
이예린

기술지원·진행
콩콩 / 레오닷

영상·포스트 프로덕션
Peace Piece (디렉터 박재용,
DP 이태범, AC 장승환)

번역
예스모어 / 사카베 히토미

아트워크
이홍민

Director
Jaemin Lee

Planning & Management
Jaemin Lee / Eenang Park /
Hyojoon Jo

Speaker
Soohyun Yang / Dawoon Chung /
Sofia Østerhus (Byggstudio) /
Shunya Hagiwara / Youngshin
Park / Erich Brechbühl

Lecturer
Jeonghyo / Youngyeun Yi (Just
Project) / Hezin O

Project Manager
Hyejin Jin

Coordinator
Yelin Yi

Filming & Post-production
Peace Piece (Director Jaeyoung
Park, DP Taebeom Lee,
AC Seunghwan Jang)
Technical Support & Operation
CongKong / LeoDot

Translation
Yes More Translation /
Hitomi Sakabe

Illustration
Hongmin Lee

토크 1

「뉴닉은 어떻게 뉴스를
살아 숨쉬게 했나」
2021년 5월 1일
14:10~14:40

양수현, 서울
뉴스 콘텐츠를 전달하는 '뉴닉'에서
브랜드를 담당해왔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젊은 세대가 기존 매체,
기존 전달 방식의 뉴스를 읽거나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로서
만들어진 뉴스레터 플랫폼 뉴닉을
소개합니다. 정보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뉴닉의 브랜딩과 운영 방식,
과정을 공유합니다.



Talk 1
**How Did NEWNEEK
Give Life to the News?**
May 1, 2021
14:10~14:40

Soohyun Yang, Seoul
Soohyun Yang has been in
charge of branding at NEWNEEK,
which publishes news content
for the needs of these days.
NEWNEEK has been introducing
new services and designs for the
new generation, including devel-
oping the main character of the
newsletter as a living speaker.

토크 2

「행동을 바꾸는 디자인」
2021년 5월 1일
14:40~15:10

정다운, 서울
사물의 버려진 이후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이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제안하는 플랫폼
'보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텀블러 대여 서비스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의 과정에서
맞닥뜨린 여러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그 해결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며
환경과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Talk 2
**Design Changing Beliefs
and Attitudes**
May 1, 2021
14:40~15:10

Dawoon Chung, Seoul
Dawoon Chung continues her
activities with an interest in
objects after being abandoned.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Is it possible to have a cafe
without disposable cups?', she
has opened a cafe called Bottle
Factory that proposes sustain-
able daily life and introduced
a tumbler rental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Dawoon
Chung conducts various life ex-
periments that can be designed
for the environment and people.

토크 3

「타이포그래피, 재료, 가공」
2021년 5월 1일
15:10~15:40

비그 스튜디오, 스톡홀름/오슬로
그래픽 디자이너 한나 닐손과
소피아 어스터러스가 2006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스웨덴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특색의 공예적 기법을
디자인에 적용하거나, 특정 지역의
고유한 식물을 수집해 사이즈를
만드는 등, 평범하고 무기력했던 공공
공간을 활기찬 공간으로 살아 숨 쉬게
변시켰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Talk 3
Typography, Materials, and Craft
May 1, 2021
15:10~15:40

Byggstudio, Stockholm/Oslo
Byggstudio is a Norwegian-
Swedish multidisciplinary
design studio founded in 2006
by graphic designers Hanna
Nilsson and Sofia Østerhus.
Byggstudio works with both
commissioned and self-initiated
projects in the boundaries of
desig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t focusing on placemak-
ing and design for public space.
Their works include research,
concept development, design,
and content for three- and
two-dimensional visual identi-
ties, wayfinding, environment
concepts, and exhibitions, as
well as printed matter. Also,
their special interest is outdoor
environments and all aspects of
the process of designing places
with high play value, for and with
children.

토크 4

「업로드와 다운로드 사이 어딘가」
2021년 5월 1일
15:55~16:25

하기와라 쉐야, 도쿄
웹 디자인 및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기획, 디렉션, 개발, 디자인 운영 등의
다양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스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인
'정보에 대한 능동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된 활동 영역인 인터넷이라는
매체, 또는 그 외연의 '인터넷스러운
것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온 작업을
소개합니다.



Talk 4
**Between Uploading
and Downloading**
May 1, 2021
15:55~16:25

Shunya Hagiwara, Tokyo
Shunya Hagiwara is a web
designer and programmer with
interdisciplinary expertise in
programming and design. After
working for Semitransparent
design, in 2012 he set up his own
business. He's heavily involved
in production-related work such
as planning, conceptualization,
direction, implementation,
design, and operational work
primarily in the areas of web
design and digital art. Shunya
Hagiwara has served as a part-
time lecturer at Tama art univer-
sity since 2015 and received
Japan Media Arts Festival Award
as a member of IDPW.org. He is
also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book event
Trans Books.

토크 5

「생명은 발신한다」
2021년 5월 1일
16:25~16:55

박영신, 서울
'이안디자인'의 아트 디렉터이며,
북 아티스트이자 그림책 작가입니다.
1983년 《어머니책》, 《샘이깊은물》을
시작으로 세밀화 도감, 국어사전,
그림책 등을 디자인했으며, 자연과
생명, 이미지를 주제로 자기 주도
작업을 병행해왔습니다. '발신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특성으로
간주하며, 스스로가 1995년부터 긴
시간 동안 스스로 발신해온 다양한
시도와 사유를 되돌아봅니다.



Talk 5
Life Radiates
May 1, 2021
16:25~16:55

Youngshin Park, Seoul
Youngshin Park is a book artist,
picture book writer, and art
director at Ian Design. She has
designed numerous illustrated
encyclopedias, Korean dictio-
naries, and picture books since
1983. Youngshin Park received
Design Achievement Award on
Book Day in 2020 by attempting
new ways of making art books,
such as Bird & Bird Sound, which
visualized bird sounds in Morse
code, and God's Garden, a book
composed of imaginary seeds.

토크 6

「이미지로서의 문자」
2021년 5월 1일
16:55~17:25

에리히 브레히비틀, 루체른
글자에 다양한 재질을 부여하거나
입체적인 구조 안에서 단어와
문장을 시각화하는 등 여러 기술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뿐
아니라 표현의 재료로서 문자를
활용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포스터 작업을 소개하며 지금껏 그가
탐색해온 글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공유합니다.



Talk 6
Type as Image
May 1, 2021
16:55~17:25

Erich Brechbühl (Mixer), Luzern
Erich Brechbühl is a Lucerne-
based independent graphic
designer and is mainly known
for his diverse poster designs—
his preferred mode of graphic
expression. After studying
typography, he became an
apprentice graphic designer
under Niklaus Troxler and finally
opened his own studio, Mixer, in
Lucerne in 2003. In 2009, Erich
Brechbühl was co-founder of
the Weltformat Graphic Design
Festival in Lucerne and started
the regular exchange meeting
for graphic designers called
Show & Tell in 2012. He won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for his posters and he is an AGI
member since 2007.

워크숍 1
「생명을 얻은 글자—Life.js」
정효
2020년 12월 14~15일
문화역서울 284 RTO

워크숍 2
「재생再生하는 글자—
나의 얼굴, 나의 쓸모」
저스트프로젝트
2020년 12월 18~19일
문화역서울 284 RTO

워크숍 3
「변이變異된 글자—돌연변이」
오혜진
2020년 12월 21~22일
문화역서울 284 RTO



Workshop 1
Letters Brought to Life—Life.js
Jeonghyo
December 14~15, 202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Workshop 2
**Reviving再生 Letters—
My Face, My Use**
Just Project
December 18~19, 202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Workshop 3
Mutated變異 Letters—Mutation
Hezin O
December 21~22, 202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타이포잔치 2021**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거북이와 두루미》**

개막 2021년 9월 14일

폐막 2021년 10월 17일

문화역서울 284

<http://www.typojanchi.org/2021>**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협력기관

국립한글박물관 /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공인

국제디자인협의회

조직위원회

유정미 / 이정은 / 김태훈 / 심동섭 /

김경선 / 안병학 / 박우혁·진달래

운영위원회

이재민/ 김상호 / 김승배 / 신인아 /

유민경 / 이만형 / 최명환 / 최슬기

사무국

김승배 / 김지원 / 이수진

후원

NAVER / NAVER 문화재단 /

두성종이 / 배달의민족 / 안그라픽스 /

TWL—Shop & Studio /

motemote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 / 콩콩 /

레오닷 / CAVA Life / Print Fidelity

미디어 후원

월간디자인 / 디자인프레스 /

IDEA Magazine / Design360°

Magazine

Typojanchi 2021**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A Turtle and a Crane**

Opening September 14, 2021

Closing October 17, 2021

Culture Station Seoul 284

<http://www.typojanchi.org/2021>**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nagement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Cooperation Institution

National Hangeul Museum /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uthorization

ico-D

Organizing Committee

Jeongmi Yu / Jeongeun Lee /

Taehoon Kim / Dongseop Shim /

Kyungsun Kymn / Byunghak

Ahn / Dallae Jin & Woohyuk Park

Operating Committee

Jaemin Lee / Sangho Kim /

Seungbae Kim / Inah Shin /

Minkyung Yoo / Minhyung Lee /

Myunghwan Choi / Sulki Choi

Administration Office

Seungbae Kim / Jiwon Kim /

Sujin Lee

Sponsors

Naver / NAVER Cultural

Foundation / Doosung Paper /

Baedal Minjok / Ahn Graphics /

TWL—Shop & Studio / motemote /

The Japan Foundation, Seoul

Supports

AG Typography Institute /

CongKong / LeoDot / CAVA Life /

Print Fidelity

Media Sponsors

Monthly Design / Design Press /

IDEA Magazine / Design360°

Magazine

총감독 이재민	도록 편집·디자인 워크룸 (김형진, 민구홍, 박활성, 유현선)
책임 큐레이터 박이랑 / 조효준	웹사이트 제작·편집·디자인 워크룸 (김형진, 민구홍, 유현선)
큐레이터 김그린 / 신은진 (신자유) / 이장섭 / 이재영 / 차정옥	번역 김현경
프로젝트 매니저 진혜진	영상·포스트 프로덕션—연계 프로그램 Peace Piece (디렉터 박재웅, DP 이태범, AO 장승환)
코디네이터 이예린	사진 촬영—도록, 웹사이트 장수인
전시 아이덴티티 타이포잔치 2021 기획팀 / 김미키	에디터 박은영
시노그래피 맷소사 (김병국, 민경문, 박은경)	
전시운영 (주)에이엔디자인	

Director Jaemin Lee	Catalog Editing & Design Workroom (Hyungjin Kim, Guhong Min, Hwalsung Park, Hyunsun You)
Chief Curators Eerang Park / Hyojoon Jo	Website Developing & Design Workroom (Hyungjin Kim, Guhong Min, Hyunsun You)
Curators Eunjin Regina Shin (seenzau) / Green Kim / Jaeyoung Lee / Jangsub Lee / Jeongwook Cha	Translation Hyunkyoung Kim
Project Manager Hyejin Jin	Filming & Post-production Peace Piece (Director Jaeyoung Park, DP Taebeom Lee, AC Seunghwan Jang)
Coordinator Yelin Yi	
Exhibition Identity Typojanchi 2021 Team / Miki Kim	Photography Soolin Jang
Scenography Marcsosa (Byungguk Kim, Kyungmoon Min, Eunyoung Park)	Editor Eunyoung Park
Exhibition Operation ANDesign	

타이포잔치 2021 연계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박이랑

영상·포스트 프로덕션
Peace Piece (디렉터 박재웅,
DP 이태범, AO 장승환)

기술지원·진행
콩콩 / 레오닷

번역
이현송

Typojanchi 2021: Online Programs

Planning and Management
Eerang Park

Filming & Post-production
Peace Piece (Director Jaeyoung
Park, DP Taebeom Lee,
AC Seunghwan Jang)

Technical Support & Operation
CongKong / LeoDot

Translation
Hyeonsong Lee

총감독

이재민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2006년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fnt를 설립한
이후,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로서 프로젝트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국단, 서울레코드페어 등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여러 문화 행사와
공연을 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다양한 범위의 브랜딩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작고 어여쁜 두
고양이의 아빠가 된 이후로 생명에
대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야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이포잔치 2015: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O()T()》의 책임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코리아:
디자인 +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2005-2015, 서울》, 《벨트포맷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코리아
나우! 한국의 공예, 디자인, 패션,
그래픽 디자인》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쇼몽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 국제 포스터
공모전,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스코틀랜드: 국제 포스터 전시 등에
선정되어 전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2016년부터 AGI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Director

Jaemin Lee
Graphic designer.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unded his design studio
fnt in 2006. As an art director,
he plays a key role in managing
the visual aspects of many proj-
ects. Various cultural events
and concerts worked with him,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and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the Seoul Record Fair Organiz-
ing Committee.

He served as the chief curator
of Typojanchi 2015: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O()T()》
and took part in several exhibi-
tions such as *Korea: Design +
Poster*, *Korea Now! Craft,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in
Korea*. His work has been selected
in the Graphic Design Biennale of
Chaumont: International Posters
Competition and the Graphic
Design Festival Scotland: Interna-
tional Poster Competition, etc.
He has been an AGI member
since 2016 and a full-time dad of
two beautiful cats.

큐레이터

김그린
기획자. 건축 설계와 도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공간이나 장소를
매개로 일어나는 사물, 사람, 사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전시, 공연, 영상, 출판,
공공 예술, 공간 기획 등 여러 매체로
표현합니다.

박이랑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브랜딩
전략, 캠페인, 아이덴티티, 비주얼 등을
기획하고 디자인합니다. 공예, 디자인,
기획, 강연,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활동합니다.

신은진 (신자유)
큐레이터.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미술사를 수학하고,
영상 커뮤니케이션 이론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3년부터 전시
기획을 시작해 젠더와 미디어 문화,
도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했고, 이후 '신자유
프로덕션'을 설립해 아티스틱 디렉터와
프로듀서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큐레이팅을 변주해 예술적 실험을
도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강연,
글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urators

Green Kim
Curator. Background in archi-
tecture and urban design, her
interest lies in the relationship of
objects, people, and events initi-
ated by spatial context. She com-
municates the topic of interest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exhibition, performance, video,
publishing, public art, and space
planning.

Ee-rang Park
Art director and graphic de-
signer. After studying graphic
design in Seoul, she plans and
designs brand strategies, cam-
paigns, identities, and visuals.
She is interes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rafts, design,
planning, lectures, and writing.

Eunjin Regina Shin (seenzau)
Eunjin Regina Shin studied Media
Communications and art history
in London and completed her
doctoral course in Cultural
Studies at Yonsei Univ. She has
been organizing numerous
exhibitions focusing on gen-
der, media culture, and urban
research since 2003. From 2012
to 2018 she served as a curator
at the Seoul Museum of Art, and
has since founded SEENZAU
PRODUCTION expanding her
scope to an artistic director and
a producer with interest in pur-
suing artistic experiments by
varying curatorial practice. She
writes articles and gives regular
lectures at various academic
curatorial programs.

이장섭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에서 시각 디자인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공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이후 디자이너와 작가로 여러 국가에서 프로젝트와 전시에 참가했으며, 2010년 브랜딩 에이전시 '액션 서울'을 설립해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현실 참여적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이 과정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6699프레스)

그래픽 디자이너. 6699프레스는 이재영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입니다. 마이너리티, 삶,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한 책을 출판합니다. 2020년 디자인 및 기획한 『New Normal』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의 공원』, 『너의 뒤에서』,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1』 등을 기획 및 출판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에서 출판국장으로 활동하며 『글짜씨』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와 북 디자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효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코우너스의 공동 대표. 2012년부터 출판, 인쇄물, 디지털 이미지, 웹사이트, 전시 그래픽과 사이니지 등의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 상품 기획 및 리서치 기반 출판물 기획 등 자기 주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치환하는 데 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 활동과 함께 리소 인쇄 워크숍인 코우너스 프린팅을 공동 운영하며 친구들, 다른 작업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차정욱

기획자.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창작자와 제작자를 연결해 창작 활동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다양한 형식의 장을 기획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작품과 상품, 기획과 운영에 이르는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Jangsub Lee

Graphic designer. Jangsub Lee majored in visual design in Seoul and public design in Barcelona. After graduation, he participated in projects and exhibitions in various countries as a designer and artist. In 2010, he founded Action Seoul, a branding agency, to discover excellent local content. Since 2018, 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lanning and running a participatory social design project to enable the practical education in this process.

Jaeyoung Lee (6699press)

Graphic designer. 6699press is a graphic design studio and a publisher house run by Jaeyoung Lee. The studio publishes books on minority, life, and design. Recent work New Normal selected as The Most Beautiful Book in Korea. He edited and published Parks in Seoul, Behind You, Korea, Women, Graphic Designer 11, etc. From 2015 to 2018, he has organized, edited, and designed LetterSeed issued by the Korea Society of Typography. He teaches Typography, Editorial design and Publication design at University.

Hyojoon Jo

Graphic designer and co-founder of a Seoul based office for graphic design, Corners Studio. Hyojoon focuses primarily on creative direction and visual communication strategies through typography, conceptual and content-related approaches. He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how ideas turn into physical objects. Alongside the graphic design practice Hyojoon co-run a risograph printing workshop, Corners Printing, for self-learning and self-experiment, and also for collaborating with friends and other people.

Jeongwook Cha

Project planner and coordinator in the field of craft and design. His interest lies in organizing platforms that support the circulation of the industry by connecting creators and fabricators. The current projects encompass artworks to products and curating to project managing.



NAVER



NAVER
문화재단

AGTI



배달의민족



AG



THINGS
shop WE studio
LOVE



motemote



DESIGN
PRESS

717.7

